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0월 19일(음력 9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 548 호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쉽게 읽을 '계율서'가 없다

번역서 50여권에 비해 해설서는 턱없이 부족
'깨달음 지상주의' '지계교육 부재' 등이 원인

직장인 최경식(38 · 서울 중구 필동)씨는 얼마 전 5계를 받았다. 5계를 받고 새롭게 발심한 최씨는 계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서점에 나가 계율 관련 책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리 찾아도 재가불자들을 위한 계율해설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최씨의 이 같은 경험은 본지가 조사한 불교계 출판사의 계율서 출간 현황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사분율> 등의 5대 광율, <범망경> 등의 대승율장 번역서는 동국역경원과 율원, 계율전공자 등에 의해 50여권 발간된 반면, 재가자를 위한 계율해설서는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여시아문) <계율학 개론>(장경각) 등 몇몇 권에 불과했다.

계율해설서의 출간이 부진한 것은 최근 동화사 '계율수행법회', 가산불교문화원의 '근대한국불교율풍 진작과 자운율사' 심포지엄 등이 잇따라 열려 계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드러났다.

게다가 재가자의 지계행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전통의 한국불교 현



실에서 재가자를 위한 대중적인 계율서의 부재는 '느슨한 지계행'의 불씨가 되고 있다.

재가자를 위한 계율해설서는 왜 없을까?

파계사 영상율원 율주 철우 스님은 "한국불교계는 '깨달음 지상주의'에 빠져있어,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반면 깨닫는 과정에는 방점을 두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계율을 가르쳐 줄 스승도, 읽을 책도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철우 스님의 지적은 전국의 율원 현황과 계율전공 출가자 수에서도 확인됐다. 현재 율원이 있는 곳은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파계사 등 단 4곳뿐으로, 학인 수는 20여 명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계율을 지도할 율사도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해, 재가자의 지계수행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불교계 출판사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내놓는 지적도 대동소이하다. "출 · 재가를 막론하고 계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련 서적이 출간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필요성'을 못 느끼니 수요가 없고, '중요성'을 간과하니 공급도 없는 셈이 됐다.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 윤창화 부회장(민족사 대표)은 "한국불교의 계율전통이 거의 없어진 현실에서 대중적인 계율서가 출간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율사와 불교 출판사 관계자들은 대중적인 계율서 발간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재가불자용 '계율지침서' 발간 △계율지도 율사(법사) 양성 △한글 계율용어 해설집 편찬 △계율 관련 법회 및 교육 상설화 △율원 위상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은 "율장을 절대화 · 신비화해 인식하는 계율관이 출 · 재가자들이 일상에서 계를 지키는 데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전 곳곳에 흩어진 계율 관련 내용을 정리 · 요약해 일종의 '지계 세행(細行)'인 계율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혜능 스님은 그간 개별적으로 활동됐던 계율 관련 종단 기구의 통합운영을 강조했다. 총무원 계단위원회, 교육원 불학연구소, 포교원 신도교육위원회 등이 재가자를 위한 계율지침서 발간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 여수령 기자



동화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계율수행대법회'를 회향하는 보살계 수계법회가 50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9일 통일약사대불 앞에서 봉행됐다. 동화사=고영배 기자

"지계로 보살의 삶 살겠습니다"

동화사 계율수행법회, 5천여명 보살계수계로 회향

대구 팔공산 동화사(주지 지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주최한 계율수행대법회가 10월 9일 보살계수계법회를 끝으로 회향했다.

보살계 수계법회는 전계사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갈마사 혜정(법주사 회주), 교수사 종진(해인사 율주) 스님을 3사로, 지하(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지성(동화사 주지) 수성(동화사 부주지) 흥교(대각사 주지) 문인(봉정사 주지) 지우(관음사 주지) 스님을 7증사로 동화사 통일 약사대불 앞에서 봉행됐다.

이날 수계대법회에서는 지난 8월 6일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거행된 동화사 계율수계대법회의 참석자 5000여명이 계를 받았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수계는 참자기를 찾고, 불교를 넘어 일반사회에 윤리도덕의식을 찾는 길"이라며, "수계대중은 계를 내몸과 같이 여겨 지켜나가며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화사는 오전에 창건 1512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대구=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잊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꽃을 드니
미소 짓다
-두타제일 가섭
현봉 스님
10월 19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선원장, 禪의 원류를 찾다 8면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 마감 12월 17일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템플스테이 '차원' 달라졌다

심볼마크 선정 '개선전략 수립연구' 보고서 발간

지난해 상설운영으로 전환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새로운 심볼마크를 선정하고 전면적인 BI(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 나섰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 템플스테이사무국의 새얼굴이 될 심볼마크는 은은한 먹빛을 바탕으로 연꽃, 가람, 물고기 등이 어우러져 환경 친화적인 느낌을 준다.

또 선진국 수준의 템플스테이 환경조성을 위해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 발표했다. 템플스테이사무국은 10월 12일 템플스테이의 향후 10년 발전방안을 담은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사찰수용태세 개선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템플스테이 수용시설의 부족 및 안내문의 용어 비표준화, 통합적 예약 서비스체계 부재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운영사찰을 100여개로 늘릴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템플스테이 사업단은 정부의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2천83억을 요청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심볼마크. 이 마크는 앞으로 템플스테이 입간판 및 모든 공문과 관련기념품 등에 사용된다.

현진 스님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지난해 대비 57%가 늘어나는 등 2015년까지 매년 10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세계인이 한국불교를 '클릭'
영문 포탈 부다피아 eng.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지관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자운대율사계주원명사리탑비 제막식' 및 '근대한국불교율풍진작과 자운대율사 특별심포지움'

귀의삼보하옵고,
淸明의 계절,
율문유통과 대중지도, 수계의례복원 등
계단정비작업을 통해
한국불교 교단중흥의 초석을 다지신
자운대율사의 사상과 그 업적을 조명하는
계주원명사리탑비 제막식 및
근대한국불교율풍진작과 자운대율사 특별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05년 10월 15일(토) 10 : 00~19 : 00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경국사

慈雲門徒會 • 伽山佛敎文化硏究院 會主 伽山智冠

慈雲大律師戒珠圓明舍利塔碑 제막식

10 : 00~10 : 30 제막식 탑비도량

近代韓國佛敎律風振作과 慈雲大律師 심포지움

11 : 00~12 : 00 제1부 '한국불교계법진승과 자운대율사'
삼귀의례
인사말 운도대표
기조법문 '한국불교계법의 자주적 전승' 지관스님
자운대율사의 행장 발표 보광스님

12 : 00~13 : 00 점심공양

13 : 00~16 : 30 제2부 '불교중흥과 자운대율사'
발표1 한국불교의 참법수행과 자운율사 종진스님
발표2 천화율원감로계단설치와 대중교화 혜흡스님
발표3 자운대율사의 화합승가와 역경불사의 원행 범해스님
발표4 한국불교조계종단과 자운율사 무관스님
발표5 계정겸수와 대중교화 태원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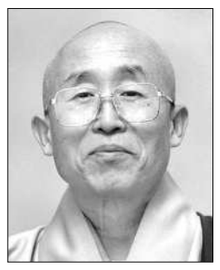
17 : 00~17 : 40 제3부 '한국불교계단에 있어서 이부승제 복원의의'
발표6 초기불교의 계단설치와 이부승제 이자랑님

18 : 00~19 : 00 대중종합토론 진행 박병기님
사홍서원



증흥 경국사 도량 내 자운대율사계주원명사리탑비 전경

월운 스님 은관문화훈장 수훈…15일 문화의 날 기념식서



문화관광부는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을 비롯한 200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대한 '문화훈장' 서훈자와 '제37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자를 13일 발표했다.

월운 스님은 1965년부터 37년에 걸쳐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완역, 전 318권의 한글대장경을 완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불교문화 유산의 계승 및 대중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불자인 한국무용가 김백봉 선생도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또 국악인 신영희, 홍성덕 명창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다. 시상식은 10월 15일 전주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실시된다.

조용수 기자

범여권 지관스님 후보 추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윤곽 드러나며 본격화

범여권(일승회 · 화엄회일부 · 조계종 22개교구본사)이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한 가운데, 월정사 은해사 금산사 주지스님 등은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뜻을 함께했다.

범여권 중심인 '32대 총무원장 추대 상임위원회' 간사 장적 스님은 10월 12일, "상임위 3차 회의 결과 지관 설정 도영 스님 중 만장일치로 지관 스님을 제32대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림회 · 금강회와 조계종 10개(대리 2개 포함) 교구본사 주지스님은 13일 범야권의 총무원장 후보 단일화에 뜻을 같이한 뒤, 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24일 오후 1시(잠정)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종책모임 금강회와 보림회는 12일 "세 분의 후보 중에서 한 분을 제32대 총무원장으로 합의 추대할 것을 범여권의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추대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며 후보 추천 선택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적 스님은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다만 합의 추대를 위한 문호는 개방돼 있다"고 말했다.

화합승가포럼 토론회 개최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화합승가포럼(공동대표 효천 · 종고 · 효범)은 12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제1차 토론회 '총무원장 인물론과 역할'을 열고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는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 △종헌종법을 무시하는 추대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등을 결의했다.

승가운동본부 좌담회

한편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상임대표 수완)는 14일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청정선거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의정 등) 공동본부장단도 14일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을 예방해 종무원들의 선거 중립을 요청했다.

남동우 · 유철주 기자

"청정 · 공명 선거에 동참하라"

조계종 원로회의 담화, 고산스님 원로의원 추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0월 12일 청주 보살사에서 13명의 원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로회의는 담화문에서 "전 종도들은 화합승단에 맞게 종헌종법 절차에 따른 청정한 공명선거와 모든 사부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공의를 모아 추대를 하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로회의는 또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는 원만한 선거관리를 위해 엄정중립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원로회의는 새 원로의원에 고산(쌍계사 조실), 전계대화상에 성수 스님(황대선원 조실)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또 원로회의 사무처장 일문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의 임명 동의안도 의결했다. 김원우 기자

11월10일 총무원장선거 태고종, 25일부터 등록

태고종 제 23대 총무원장선거가 11월10일 봉원사에서 실시된다.

태고종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환우)는 10월 10일 총무원장 선거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23대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는 총무원장선거법 제4조에 의거해 선거권자인 중앙종회의원 40명이 중앙종회에 참석하여 투표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격은 태고종 재적승으로 연령 만 55세및 승랍 35세 이상으로 법계 종사급 이상이어야 한다.(02)382-7361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획연재 - 조계종 총무원장 어떤 자리?

원력과 권력으로 '현대화' 지휘

연재순서
1. 위상과 권한
2. 어떻게 선출하나
3. 인물로 본 총무원장 上
4. 인물로 본 총무원장 下

청담 · 경산 스님 종단기반에 노심초사
석주 스님 3차례, 영암 스님 행정틀 잡아

60~70년대 총무원장들…평균 재임기간 1년 안돼

1962년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대 총무원장은 어떤 스님들이었을까?

먼저 1962년 초대 총무원장 이후 1980년을 기점으로 조계종의 현대사를 전 · 후기로 나눠 살펴보자. 전반기에는 비구-대처간의 오랜 싸움이 정권의 강압적 중재로 형식적으로나마 통합종단이 꾸려졌다.

한국불교근현대사를 연구해온 부천대 김광식 교수는 이시기 혼란의 주 요인으로 우선 종권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과 성격이 정립되지 않았고, 불교의 역량을 현대화하는 방법을 놓고 서로간의 다툼이 계속됐다고 지적한다. 당연히 60~70년대 총무원장의 고뇌와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었다.

김 교수는 "통합종단 초기 종정과 총무원장 가운데 누가 중심에 설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시작됐고, 70년대로 접어들어서는 종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노선갈등이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지금의 안정을 찾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1962년, 본사 주지 등으로 구성된 50명의 중앙종회에서 비구 측 추천으로 효봉 스님이 초대 종정, 비구였지만 대처측 추천을 받은 석진 스님(재임 62.04.11~62.12.30)이 초대 총무원장을 맡았다.

2대 법용(62.12.30~66.04.12), 3대 경산(66.04.12~67.08.09), 4대 영암(67.08.09~69.09.13), 5대 월산(69.09.13~70.07.22), 6대 · 7대 청담(70.07.22~71.11.25) 8대 석주(71.11.25~73.01.25), 9대 경산(73.01.25~75.10.06), 10대 서암(75.10.06~75.12.05), 11대 영암(75.12.05~76.10.04), 12대 영해(76.10.06~76.12.03), 13대 자운(76.12.03~77.07.23), 14대 혜정(77.07.23~78.01.07), 15대 석주(78.01.07~78.02.03), 16대 월하 스님(78.02.03~80.04.26)등 16명이 1980년 4월까지 약 18년 동안 총무원장 자리를 거쳤다. 따라서 당시 총무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이 채 안됐다.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청담 스님과 경산 스님을, 뛰어난 리더십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종단의 기반을 다지기위해 노심초사했던 대표적 총무원장으로 꼽았다. 또 김광식 교수는 영암 스님을 뚝심과 남다른 추진력으로 종무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했던 스님으로 평가했고, 방송작가 윤청광씨는 어려울 때마다 종단의 화합을 이끌며 위기를 극복했던 석주 스님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

동시대 인물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던 청담 스님과 경산 스님은 때로는 경쟁적 관계였지만 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늘 고민하고, 한국불교의 현대화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16명의 총무원장들 가운데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스님은 법용 스님으로 3년 4개월을 지냈다.



공식적으로 8대, 15대, 23대 총무원장을 맡아 유일한 3선 총무원장으로 기록된 석주 스님은 15대 때 단 27일을 재임해 80년대 이전까지 가장 짧은 재임기간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이 가운데 총무원장 출신으로 종정에 올랐던 스님은 청담 서암 월하 스님이다. 통합종단 초대 총무원장이었던 석진 스님(1892~1968)은 남다른 인품으로 많은 불자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조선불교조계종 간부 시절 친일 행적 때문에 역사적 조명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불교정화운동의 화신(化身)으로 불린 청담 스님(1902~1971)은 50~60년대 치열했던 불교정화운동의 한복판에서 "성불(成佛)을 한생 미루더라도 불교정화만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서원할 정도로 강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인욕보살'이라 할 만큼 고독한 수행자였다.

경산 스님(1917~1979)은 종단의 혼란을 막고 종단과 종립 동국대의 기틀을 다진 원력보살이었다. 청담 스님과 마찬가지로 역시 1956년 정화불사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탁월한 행정처리와 포용력으로 종단의 기틀을 탄탄히 다져놓고 1979년 서울 적조암에서 입적했다. 공식적인 총무원장 재임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열반하기 전날 아침까지 견지동 총무원에서 종무회의를 주재했을 정도로 종단을 위해 헌신했다.

영암 스님(1907~1987)은 문제가 얽혀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특유의 '뚝심'으로 풀어갔던 총무원장이다. 조계종 종무행정의 기본은 영암 스님의 재임기간동안 대부분 틀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부는 반드시 2권을 만들어 보관하게 하는 등 사찰경제와 행정혁신을 이뤘다.

울해 입적한 석주 스님(1909~2005)은 총무원장을 3차례 본사 주지를 3차례, 종단의 비상시기 부의장과 의장직을 맡았지만 한번도 본인의 원에 의해 직책을 맡지는 않았다. 그러다 문제를 수습하고 나면 스님은 미련없이 총무원장직을 내놓았다. 청빈하고 '무주상(無住相)'의 정신으로 살아온 스님의 포용력은 늘 후학들의 모범이 되었다. 자비심으로 행정에 임했지만 경우에 어긋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스님은 삼보정재가 헛되이 쓰이거나, 정법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鷲山(九河)門徒會 結成文

佛之宗家인 通度寺를 開山하신 慈藏律師의 法統을 繼承하고 靈鷲叢林 通度寺의 無窮한 發展을 爲하여 鷲山(九河) 尊師의 문하인 우리 門徒들은 상호 탁마수행하고 합심단결 할 것을 서원하고, 본 문도회를 결성한다.

또한 九河 尊師의 上首제자인 月下大宗師의 숭고한 얼을 이어 받아 후대 法孫들은 師資相承하여 화합단결하고 佛敎發展과 佛祖慧命을 이땅에 永遠히 빛나게 하기 爲하여 鷲山(九河) 門徒會를 結成한다.

佛紀 2549(2005)年 10月 1日

문도회 결성 발원 제자

월파 초우 목산 진철 성파 현문 성림
산옹 청운 혜남 태봉 재원 정우 명신
향과 영하 중선 능연 운성 재경 현초
동하 원천 <무순>

鷲山(九河)門徒會 總會 召集 公告

通度寺 축산(구하)문도회 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공고 하오니 문도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세상을 향해 떠오르는 「축산문도회」를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멋지게 정진합시다.

일시 불기 2549(2005)년 10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통도사 설법전
안건 ① 회칙 통과
② 통도사 현안문제 해결 방안 논의

※사진 지참 요망 (수첩 제작용)

통도사 축산(구하)문도회 회장단
초우, 성림, 향과, 태봉, 청운, 혜남, 법진 합장

축산(구하) 문도회 명단

월하 월은 월정 월주 월인 추봉 호경 혜각 월저 남호 월제 평곡 만성 경우 월남 월봉
월국 월면 보해 월륜 월성 재용 월공 월파 중광 중길 의천 지강 선우
청하 홍법 영철 초우 서주 현파 도열 목산 태응 상우 성파 운하 법초 종진 운성 성림
진철 혜남 현문 태봉 산옹 천진 철환 청운 상수 법혜 법조 영도 지명 능연 성기 덕암
수안 일봉 법산 법천 현근 여산 동원 용문 현오 가열 기후 지원 중선 정산 대원 호성
신행 법진 양일 석봉 덕수 진오 일현 자하 만성 종일 항조 현초 목주 우인 성오 수원
동하 경담 자성 양진 영실 성윤 양우 영노 해원 관우 오심 만천 성현 남천 성본 노우
증도 증악 지운 방원 해중석 현광 지수 자고 기현 구성 해두 진명 오성 이지 삼해
이수 병천 성구 종원 기호 성열 성화 성법 양우 벽해 회암
정우 재경 상경 지용 영재 현근 상운 진성 도응 문성 현기 현원 혜오 혜용 재진 도안
향과 도천 남현 삼경 동주 영수 지운 본원 준수 범해 정안 효선 원근 묘경 묘일 묘원
묘영 보문 묘행 묘산 양관 양행 보안 선준 묘신 호암 재원 재문 재홍 보화 보안 보응
보각 보광 명신 명일 명안 지문 도원 도웅 원천 양현 진산 장해 일승 진오 여해 영화
영월 영도 영봉 영경 석산 법은 수연 동륜 종원 등운 혜원 혜장 홍선 보덕 남도 남곡
남주 덕원 정학 원정 원진 혜우 원묵 원범 정주 시광 명오 신화 원무 선운 마벽 선오
진성 상원 덕진 덕우 도문 덕월 덕문 시공 진공 우보 우학 보덕 남월 동진 효범 대한
조월 삼석 명덕 매물 광산 광석 시원 만행 대운 정로 증관 무진안 우진
범철 혜초 법진 정헌 태암 우암 소암 중암 성일 주봉 임성 유경 안치 동우 만오 만영
만초 진범 진목 진응 진명 진통 진무 현담 일과 일성 지범 지상 지봉 범준 보명 보원
지석 지성 지해 지철 범용 남곡 혜일 혜강 혜종 혜안 예봉 혜공 무위 정인 정원 정무
설문 설운 영봉 영곡 영명 영선 광우 다원 성무 초중 선혜 선오 성혜 성업 성열 선석
선원 선림 선종 서상 서호 용은 서중 서초 도산 도행 도유 도국 현고 도선 만제 도연
도설 무심 도계 도증 자원 자금 혜성 혜원 영봉 영곡 영명 만일
각원 무유 각광 각현 무영 성원 성법 각성 각문 성지 성화 성전 각평 성안 성민 성밀
각심 성념 성재 성륜 각림 성래 원행 무천 신행 지무 무중
도피안 선철 선각 일법 세진 수운 자견 보인 도영 동일 동수 동명 명조
일법 진성 하유 한수 범우 량림 용성 용주 용린 용제 용봉 용파 지성 만성 효성 종백 <무순>

※ 九河 · 月下스님 제자는 비석을 참고, 전체 명단에서 누락된 문도분은 꼭 연락 바람.

전화 055)381-6460 수석부회장 성림

‘배아줄기세포’ 불교계 입장은?

11월 26일 심포지엄, 내년중 입장 표명할듯

기독교, 반대입장 공식화…성체줄기세포 대안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비윤리성을 비판만 해오던 기독교계가 ‘비판’을 넘어 성체줄기세포연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 줄기세포 윤리성 논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기독교계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까지 불사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뒤늦게나마 조계종이 11월 26일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중으로 종단입장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리상 문제없다” 견해 많아

가톨릭계는 10월 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를 발족시키고, ‘생명의 신비기금’ 100억원을 확보해 성체줄기세포연구를 지원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 총상금 3억원 규모의 ‘생명의 신비상’을 제정해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큰 업적을 낸 이를 포상하기로 했다. 마련된 기금은 가톨릭병원에 중점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성당 짓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강한 결의를 보였다. 가톨릭계의 상징적인 존재 김수환 추기경도 9일자 가톨릭신문에서 인간배아를 명백한 인간생명으로 규정하며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개신교 61개 교단과 20단체가 가입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최성규 · 이하 한기총)는 7일 세미나를 열어 배아줄기세포 대신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입장을 13일 개최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

기독교계의 신속한 대응과 달리 불교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조계종이 제1회 불자대상 수상자로 황우석 교수를 선정한 바 있고, 지난 달 입적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생전에 황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 격려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불교학자들 사이에서는 “불교교리에 따르면 배아는 생명이 아니며,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불교교리상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지 530호 13면 참조)

교계, 사회현안에 소극적

이와 관련한 불교계의 공식입장은 내년 중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지난해 발족한 ‘불교생명윤리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심포지엄을 11월 26일 열어 그간의 연구성과를 발표케 하고, 이를 토대로 공식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 정리가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배아줄기세포를 다루는 ‘생명조작분야’ 위원들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생명조작분야’의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허남결 동국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낙태분야’의 고영섭 동국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유호종 연세대 교수 등 5개 주제 분야에서 총 15명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11월 12일에는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가 ‘불교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계는 이제 겨우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불교적 관점 정리를 위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셈이다.

이같이 불교계의 반응이 느린 까닭은 무엇일까. 윤영해 동국대 교수(불교학과)는 한국불교가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잃고, 지혜에만 편중하는 경향에서 원인을 찾는다. 윤 교수는 “한국불교는 여전히 자기 해탈에 주력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 내면에 침잠해 있다보니 사회현안에 대한 인식도 더디고 반응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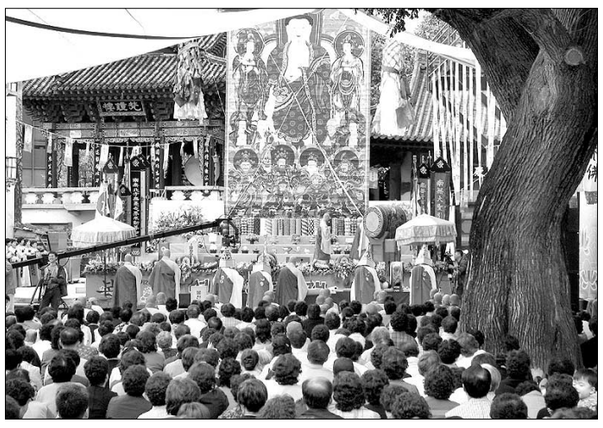
“충분히 논의하자”

서재영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타종교의 신속한 반응에 초조해하기보다는 더디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씨는 “종교가 사회현안에 대한 도덕적 · 종교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가능해도, 과학연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본분을 벗어난 것”이라며 가톨릭계의 성체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비판한 뒤, “불교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 그룹을 조직해서 그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공식 입장을 밝히는 신중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성체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는 인간 성체의 골수나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배아를 이용해 배양하는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생명윤리 논란이 적다. 하지만 성체줄기세포는 치료에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렵고, 타인의 세포를 쓸 경우 면역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조계종 제3회 영산재 봉행

전통불전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계종의 ‘제3회 삶과 죽음의 아름다운 만남 영산대재’가 3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10월 9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보성 스님은 “영산재는 수많은 인천중(人天衆)이 영축산에 모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듣는 장엄한 모습을 극적으로 재현한 불교문화의 정수로 환희심 넘치는 불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계종은 종단차원의 불전의식 재정립 차원에서 2003년부터 3년 동안 총30시간에 걸쳐 영산재 전 과정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용수 기자

북관대첩비 100년만에 돌아온다

한 · 일 공식 서명…28일 한국서 공개

북관대첩비가 100년 만에 돌아온다.

한일 양국정부는 10월 12일 야스쿠니 신사 회관에서 북관대첩비 반환 인도문서에 공식 서명하고 본격적인 반환 절차에 들어갔다.

북관대첩비 반환을 주도하고 있는 한일불교복지협회 회장 초산 스님은 “지난 3일 야스쿠니 신사 이사회에서 북관대첩비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며 “10월 20일 경 국내로 북관대첩비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도 ‘북관대첩비 환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에서 인수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식 행사에서 북관대첩비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친일파 이해창 후손 내원암 상대

땅찾기 소송 취하 번복

친일파 이해창 후손들이 내원암을 상대로 제기했던 ‘땅찾기’ 소송의 취하를 번복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모씨 등 이해창 후손들은 10월 11일 소 취하를 취소하고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557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내원암 일대 5만여 평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해창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 측의 변론을 맡고 있는 송기성 변호사는 “내원암 측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스님은 “봉선사에 찾아와 사과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판사 강민구) 관계자는 “재판을 제기했던 원고가 소송 취하를 취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차례의 심리를 거쳐 1심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여성의 경제생활’ 연수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0월 21일~22일 김천 직지사에서 <여불련 10년사> 출판 기념행사와 함께 ‘여성의 경제생활 활성화 방안’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민주적인 제도와 불자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강지연 기자

10 · 27법난 특별법 제정 국회 귀빈식당서 공청회

조계종 10 · 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이하 법난진상규명위)는 법난 발생 25주년을 맞아 10월 27일 오후 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10 · 27법난 25주년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가 ‘법난 발생의 정치사회적 배경 및 당시 책임자의 동향과 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동국대 연기영 교수가 ‘명예회복과 피해자보상의 법적 근거의 당위성, 다른 유사사건의 특별법과 비교분석’을 각각 발표한다.

또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법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채환규 PD가 취재 과정에서 발굴한 법난 정황에 대해 설명하며, 법난 당시 평창 상원사 주지였던 삼보 스님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은 불교문화컨텐츠를 발굴하고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11월 25일까지 ‘제2회 불교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전’을 연다. 주제는 ‘한국사찰의 설화’.

애니메이션 작품은 3~5분 사이로 제작, Fla와 Swf 파일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응모할 때 작품소개와 시나리오, 기획의도, 스토리보드를 첨부한 기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통사찰 관광종합정보사이트(www.koreatemple.net)로 인터넷 접수하거나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결과는 12월 2일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사이트에 게재된다. (02)2011-1857 이은비 기자

종교 뛰어넘어 나눔바자

강북구 수유동의 3개 종교단체가 힘을 모았다. 화계사(주지 성광)와 송암교회, 수유1동 성당은 10월 8일 한신대학교 운동장에서 ‘제6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강북구 내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쳤다.

이날 바자회에는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 송암교회 박승화 목사, 수유1동교회 박문석 신부,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모금된 5000여만원의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은 11월 초순경, 지역 난치병 어린이 2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불교계 파키스탄 구호 나선다

현장에 조사단 파견…봉사단 보내기로

지난 10월 8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조계종과 한국한국 JTS가 본격적인 구호활동에 나섰다.

조계종은 10월13일 주한파키스탄 대사관에 파키스탄 국민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애도문을 전달했으며, 파키스탄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10월 14일 현지에 선발대를 파견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10월 21~29일 15명 내외의 의료봉사 인력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봉사단도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 JTS(대표 유수)는 10월 10일 주한파키스탄 대사관에 긴급구호지원금 5000달러를 전달했으며, 10월 11일에는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이 현지를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 JTS는 답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지원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유철주 · 김강진 기자

승가교육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기초 2년 · 기본 4년 · 전문 교육 5년

‘기초(행자)교육 2년, 기본교육 4년, 전문교육 5년’을 주요골자로 지난 제5차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조계종의 승가교육제도개선안이 입법예고 됐다.

승개추 법령개정분과위원회(위원장 영배)는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조계종보와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관련 개선안을 교육원 명의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승가교육제도 개선안에 따라 조계종은 기초교육이 2년으로 늘어나지만 기본교육 기간은 현행대로 4년을 유지하고, 전문(특수)교육 기간은 5년(전문2년, 연구3년)으로 현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선안은 앞으로 교육원회의-종무회의-중앙종회 교육분과 심의-중앙종회 본회의에 상정 등을 거쳐 중앙종회에서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입법 시행된다.

조용수 기자

감 사 의 말 씀

삼보에 귀의합니다.
법장 큰스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하여 바랑 하나에 온갖 것들을 담으셨던 이 사바세계와의 세연을 뒤로한 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들의 무능과 잘못으로 스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점을 깊이 참회하며, 그동안 스님에게 보여주신 여러 덕행과 추모의 뜻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지면으로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께서는 남다른 생각과 실천정신으로 나눔을 통한 복지사회건설과 청정승가구현, 수행풍토의 진작 등 쉼 없는 수행과 거침없는 자비행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문도들은 스님의 유지와 보살행을 받들고 가슴에 새겨 열심히 수행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스님의 49재일(2005년 10월29일)을 맞이하여 평소 스님과 인연 있었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모 임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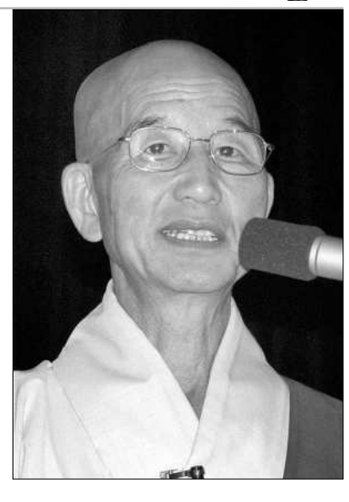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10월 29일 토요일 11:00(49재 끝난 직후)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인곡당 법장 대종사 문도회(도광, 지만, 정묵, 도신 외) 일동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2강 : 참회 새로워지는 삶-신통제일 목건련

강사 : 정무 스님 (석남사 회주)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현대불교
일시 : 2005.10.12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孝가 살아야 가정 · 나라 · 인류가 산다

효심이 불심, 효행은 인간 완성 · 성불의 길
화목한 가정 만들기 온가족 함께 노력해야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두번째 강좌에서 정무 스님은 신통제일 목건련 존자의 삶과 사상에 대한 강의를 통해, 가정은 국가의 핵심이며 효가 살아야 가정도 국가도 더불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목건련 존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해낸 효심입니다.

목건련 존자의 어렸을 때 이름은 나복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자 어머니 청제 부인과 슬픔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줄어들기 시작해 하루는 나복이 재산을 3등분한 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는 어머니 생활비로 쓰고, 하나는 제가 장사 밑천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버님을 위해 사문을 모셔다가 공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복이 외국으로 장사를 떠나자 청제 부인은 신바람이 나서 매일 잔치를 열어 사문에게 공양 올려야 할 재산까지 탕진했습니다.

지옥에 가서 어머니 구해

3년 후, 나복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사람들이 청제 부인의 악행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복이 어머니에게 진실을 물어보자 어머니는 거짓말과 함께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칠 일만에 지옥에 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칠 일 후 죽고, 아비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복은 장사로 번 모든 재산을 이웃에 나누어 주고 친구인 사리불 존자와 함께 출가하여 육사외도의 하나인 산자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목건련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열심히 정진하여 마침내 육신통을 얻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목건련 존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관(觀)해보니 어머니가 지옥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건련 존자는 안타까움에 부처님에게 청하여 칠월 보름 안거 해제 때 대중에게 공양을 올려 그 공덕으로 지옥고에서 어머니를 구해냅니다.

이처럼 목건련 존자의 신통은 큰 효심으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목건련 존자는 효행제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35년 전, 제가 수원 용주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용주사는 정조 대왕이 부친인 장헌세자의 능을 쓰고 건립한 원찰입니다. 정조는 보경 스님에게서 <부모은중경>을 받아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뜻에서 당대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는데, 시골 처녀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현모양처는 여성의 적'이라는 망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초가집도 버리고 다 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여성은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국가의 핵입니다. 핵이 무너지면 국가가 번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선진국도 다 그렇습니다. 가정 분규로 세상의 질병과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잘 모시면 그 밑의 자녀들은 문제없습니다. 효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며, 인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효 문화는 꼭 지켜야한다는 생각에 <부모은중경>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스승으로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녀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교육, 부모노릇이 더 문제입니다.

효도를 하려고 해도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모 자격증 제도가 올 것입니다. 부모가 되려면 부부부터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또 부부 자격이 있으면 부모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면 평생 '친구'로 살아야

부부가 되려면 남녀가 서로 만나야 하는데 만남에는 정(情)보다 지성(知性)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성적으로 여섯 가지를 봐야합니다.

첫째는 과식(過食)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둘째는 과음(過飮)하는 사람입니다. 알콜 중독은 정신병과 같습니다. 셋째는 과음(過淫)이며 넷째는 과로(過勞)입니다. 쓸데없이 피곤하게 설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섯째 과태(過怠)로 게을러도 안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너무 짙은 화장을 하는 사람도 안됩니다.

이 여섯 가지에 눈을 뜨고 지성적으로 판단해서 후에 이혼 도장 찍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친구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정으로 살고, 도반으로 살고, 동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은중경>에서 설한 열 가지 부모님 은혜를 잘 새겨서 부모 의무를 다하도록 하세요.

열 가지 부모님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에 품어 목숨 걸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2. 낳으실 때 심한 고통 참아내어 견딘 은혜 3. 갓난 아이 낳은 뒤에 모든 근심 잊은 은혜 4. 쓴 건 골라 자기 먹고 단 것 찾아 먹인 은혜 5. 젖은 자리 갈아주고 마른 자리 뉘신 은혜 6. 젖과 밥과 약으로써 양육하여 주신 은혜 7. 더러운 것 싫다 않고 갈아주고 씻긴 은혜 8. 길 떠나면 올 때까지 걱정하며 애쓴 은혜 9. 자식위해 몹쓸 짓도 마다않고 하신 은혜 10. 장성해도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신 은혜.

부모가 되었으면 태교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부처님, 공자님도 부모가 기도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큰 스승님 십 년 공부가 삼 년 부모 교육만 못하고, 삼 년 교육은 어머니 뱃속 열 달 교육만 못하며, 열 달 어머니 교육은 하룻밤 부모님 용심만 못합니다.

우리가 효도하게 되면 공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면 성실해지고, 건강 장수하며,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항상 마음이 편하며, 내생에는 선도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불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못하고, 음주 도박하다가 못하며, 처자 편애 하다가 부모한테 소홀하고, 유흥방탕으로, 그리고 범법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면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살면 노인문제 안생겨

불효를 하게 되면 과보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다섯 가지입니다. 못된 놈이라는 악명이 유포되고, 신심이 불안하며, 정법에 인연이 없고, 자기도 불효를 받고, 죽어서 아비지옥에 떨어집니다. 부처님은 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부모를 보되 자기 부모같이 보아야 보살이라 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이가 보살이다"

효심이 불심이며 효행이 부처님 행인 것입니다. 효행은 만 가지 착한 일의 기본이며 천지신명을 다 섬겨도 부모님 잘 섬김만 못합니다. 부모야 말로 최고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혜 총명한 자가 있어 생사의 저 언덕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응당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 섬겨서 신인 듯 받들어야하며 부모님 생각대로 기쁘게 해드리면서도 부모님 재산을 탐하거나 아첨하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착한 것의 최상은 효도만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의 최상은 불효만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이 살면 노인문제도 안 생깁니다. 자녀문제도 안 생깁니다. 부지런히 염불하고 수행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수행하는 사람이 진정 효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효행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인간기본 교육입니다. 효행은 인간성 회복의 길이며 인간 성숙의 길이고 인간 완성, 성불의 길입니다.

요즘은 불효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부모를 내다 버리고 가기 일쑤입니다. 예전에는 관광지에 버렸는데 요즘은 요양원에 버린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부모님과 일체중생의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했습니다. 성불하시고 먼저 가비라성에 가서 부왕 정반왕을 위해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반왕의 청에 따라 모친을 위해 도리천궁에서 90일간 설법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위시해서 역대조사가 효심 없이 도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효심이 곧 불심입니다.

부모님 잘 모시는 효 문화로 선비의 나라, 군자의 나라, 보살의 나라, 부처님 나라가 되도록 함께 노력 합시다.

질의응답

문 : 부모자격과 효에 대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덧붙여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 경전에서는 부모는 솔선수범하라. 자녀에게 악을 짓지 않게 하고, 착한 것을 가르치고, 때 되면 좋은 배필을 정해주며,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잘못은 냉정히 반성해 보면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꼭 못된 것만 골라서 하는데 억압하면 안됩니다. 그냥 놔두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제재하면 평생 인격장애자로 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입시 때가 되면 부모를 피해 절로 도망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기대에 따라가지 못해서입니다. 자녀의 능력에 맞춰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얼마 전 착실한 아이가 작은 잘못을 했다고 어머니가 '나가 죽어라!' 했는데 한시간도 안되어서 죽었습니다. 자녀가 불효를 한다해도 막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거룩하신 승보(僧寶)에 공양하는
가사불사





삼보에 지성으로 귀의하오며, 모든 이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만물이 성숙하는 가을을 맞아 불사 중의 으뜸 공덕인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사는 삼보 가운데 하나이신 스님들의 청정한 계율을 상징하고, 부처님을 예경하는 마음을 담아 수하는 불교전통의복입니다.
이 가사를 지어 스님들께 공양함은 공양중에 최상의 공덕입니다. 이번 가사불사에는 불자들이 직접 제작에 동참하여 손수 지은 가사를 스님들께 봉헌하게 됩니다.
승가에 대한 존경과 깨달음을 향한 정진으로 지혜와 복덕을 함께 쌓아가는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 · 사 · 안 · 내
- 입재 : 9월 4일(일, 음8.1)
- 회향 및 점안법회 : 11월6일(일, 음10.5)
- 제작 : 가사당(신도회관 옆)
- 접수 : 신도회 사무처 02)732-2187

동 · 참 · 안 · 내
- 일반동참 : 10만원
- 9조가사 : 30만원
- 19조가사 : 50만원
- 25조가사 : 100만원
- 문의 : 조계사 포교국 02)732-2183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15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닭살커플’로 열심히 살래요

천마재활원, 장애인 부부 두쌍 사회생활 첫 발


10월 15일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이삿짐을 챙기고 있는 박병주 전미숙 부부.

부산 천마재활원(원장 박근련)내에서 ‘오빠’ ‘동생’으로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던 3급 정신지체 장애인 박병주(36) 전미숙(32) 부부와 이태근(31) 이경숙(28) 부부. 10월 12일 두 부부의 방을 찾았을 때 이들은 이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재활원에서 생활하다 사랑을 키워 정관스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살림을 차렸던 천마재활원을 떠나 사하구 다대동에 12평 영구임대 아파트를 얻어 독립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각각 결혼 9년, 8년만이다. 부산지역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부부가 새 둥지를 찾아 독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생의 대부분을 재활원에서 보낸 이들 부부에게 세상으로의 독립은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모험이고 도전이다.

독립을 결심하고서도 2년 동안이나 은행 거래법, 고지서 납부 요령, 금전출납부 작성, 시장보기, 요리 등 세상살이에 적응하기 위한 갖가지 훈련과 연습으로 보내야 했을 정도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간단한 금전출납부 작성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부산불교교육대학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한 적응훈련 끝에 재활원의 보호에서 벗어나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2년 동안 세상살이 적응 훈련 식당보조 등 하며 아파트 얻어 3년 안에 전셋집 얻는 것 목표

아파트 임대 보증금 213만원은 도자기 굽는 일, 식당보조, 시설 관리 등으로 받는 월급을 모아 장만했다. 입주일인 15일이 임박하자 이들 부부는 이사 갈 아파트를 재활원 선생님, 가족들과 함께 도배, 장판, 페인트칠까지 직접 했다. 결코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둘이서 채워나갈 풍성한 사랑과 꿈을 간직한 부부의 입가엔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닭살커플’로 소문난 박병주 전미숙 부부는 “막상 독립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모든 게 걱정되고 막막하기도 하다”며 “그래도 알뜰하게 살림해서 3년 안에 전셋집으로 이사 가는 게 목표”라고 야무진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미숙씨는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최고의 파티쉐가 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2세 계획도 조심스레 세우고 있다.

결혼 8년차인 이경숙씨는 “장애인 축구팀 선수로 활동하는 남편이 전국 장애인 풋살(futsal, 실내축구)대회에 출전 중이라 혼자 이사를 하게 돼 걱정이 더 많다”며 “재활원 식구들중에는 벌써부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나도 울게 될 것 같다”고 떠나는 섭섭함을 전했다.

이들 부부는 10월 한 달간 재활원을 오가며 적응 과정을 거친 후, 11월부터 트랙스타에 취직해 여느 사람들처럼 생활전선에 뛰어든다. 일요일엔 늦잠도 자고 산책도 하면서 생활의 여유를 누리고 싶다는 이들의 단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대 아파트에서 가까운 관음사 신도로 등록, 생애 처음으로 법회도 보고 신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불자로서의 깊이도 더해가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부산/글 · 사진=천미희 기자

어르신들 건강, 안정된 생활 해결

부산 노인요양시설 상락원 배산실버빌 개원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산 최초의 노인실비요양시설 상락정 배산실버빌(원장 정관)이 문을 열었다(사진).

서민층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물꼬를 트고 있는 상락정 배산실버빌은 저렴한 이용료뿐 아니라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벌써부터 입주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다.

상락정 배산실버빌은 3천800여평의 부지에 지상 3층 건물로 물리치료실, 자원봉사자실, 의료실, 간호사실 등의 시설과 함께 입소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규칙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촉탁의를 위촉해놓고 있다.

상락정 배산실버빌 입소 대상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월평균 가구원 소득이 1인당 90만원 이하여야 한다.(051)753-9907 천미희 기자

통도사 개산대제 봉행

부도헌다례, 가사친견 행사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11일, 개산 1360주년을 맞아 개산대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초우 스님을 비롯 허남식 부산시장, 오근섭 양산시장 등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 개산대제는 10일, 11일 양일간 영축 사생대회, 제7회 부도헌다례, 부처님 가사, 자장율사 가사 친견, 재롱잔치, 개산대제 기념 합창제 등의 문화행사를 선보이고 회향됐다. 천미희 기자

목판인쇄, 이운행렬 등 체험 해인사 팔만대장경 축제

2005팔만대장경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해인사와 합천읍 황강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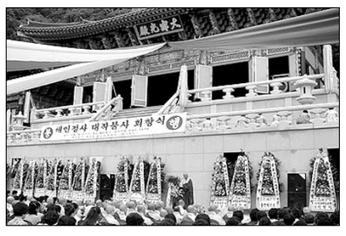
해인사(주지 현응)와 2005팔만대장경축제위원회 주최로 5돌을 맞는 팔만대장경 축제의 올 주제는 ‘목판인쇄문화와 함께 하는 역사여행’이다.

목판인쇄의 전 과정을 한자리에서 감상 체험할 수 있는 목판인쇄 문화축제답게 4일 동안 원목가공, 목판 성형, 목판 · 목각 전시, 인경 시연 및 체험, 전통한지 제조 시연 및 체험 등 목판인쇄에 관련한 각종 전시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7일과 8일에는 고령개포와 해인사 일원에서 팔만대장경 이운행렬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다.

조선 태조 때(1398년) 강화도 선원사에서 서울 지천사, 고령 개경포를 거쳐 해인사로 팔만대장경을 이운하는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는 단연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해인사주지 현응 스님과 사부대중 천여명이 이운식에 참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이운행렬 참가자를 공모해 일반인도 동참해 화제가 됐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지혜 가꾸는 도량되길”

부산 해인정사, 불사회향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는 10월 7일 10년여의 도량 불사를 회향하는 낙성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총 5천여 평의 부지 위에 대적광전, 지장전, 관음전을 비롯한 6개의 당우와 문화회관, 불교조각 전시장 등을 갖춘 대작불사를 회향하는 자리였다. 이날 법회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비롯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해인정사는 앞으로 해인불교경전대학을 중심으로 부처님 경전을 토대로 한 재가 교육을 담당하는 도량으로 자리 잡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으며, <금강경>, 다도강의도 진행된다. (051)291-1176 천미희 기자

용호 햇빛연극단 창단 첫 공연

10월 9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용호동 UN 공원 특설무대에는 제9회 오륙도축제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연극이 한창이다. 애랑의 계교에 빠져 낭패를 당하고 있는 배비장이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장면이다.

이날 해학과 풍자로 관객을 쥐락펴락하며 무대를 펼쳐간 극단은 용호복지관(관장 혜총) 햇빛연극단(단장 김동민). 용호복지관 햇빛연극단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연극 공연으로 환하게 밝혀주겠다는 목표로 지난 7월 8일 창단됐다.

인근 주민들이 배우로 참여해 만든 아마추어 극단인 햇빛연극단의 창단을 기념한 첫 공연임에도 이날 공연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무대였다. 천미희 기자

대구 중부署, 시민 음악회 개최

대구 중부경찰서(서장 조두원) 불자들의 모임인 법우회(회장 유문종)와 기독교신자들의 모임인 신우회(회장 김상한)가 ‘경찰 60주년기념 축하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10월 20일 대구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서부교회 나다나엘 어린이 중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해 남부교회 아카펠라 중창단과 서부교회 새노래 여성 중창단의 기독교음악을 선보인다. 그리고 금강합창단과 황룡사 주지 도일 스님, 김태란 불자가 찬불가를 부를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합창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10월 30일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소아암환자돕기 한마음합창제 마음의 불씨’를 무대에 올린다.

공연 수익금 전액을 11월 1일 울산시에 전달하게 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울산 지원의 거사합창단, 어린이, 청년회 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을 비롯 중부경남지원, 진주지원 어머니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등 120여 명이 참여한다.

지원장 혜안 스님은 “모든 이들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자유인의 길을 걸을 수 있길 기원하며 합창제를 마련했다”고 합창제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052)295-2335 천미희 기자

금정실비요양원 기공식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이사장 흥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 청룡동 39-5번지 금정실비노인요양원 신축공사장에서 금정실비노인요양원 기공식을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공사개요 보고와 법인 대표 이사 흥교 스님의 기념사,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의 격려사에 이어 시삽을 한 뒤 2부에서 안전기원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정실비노인요양시설은 200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387평에 건평 187평으로 건립된다. 천미희 기자

부산 길상사 9일 개원법회

부산 강서구 길상사(주지 자인)는 10월 9일 오전 불사 회향 법회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해림사 주지 동림 스님, 보타원 회중 보광 스님, 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정각 스님, 천은사 주지 금종 스님 등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백옥불 점안, 경과보고, 주지 스님 인사말, 법어의 순으로 진행됐다.

길상사는 앞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말마다 가족단위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다도 교실, 가족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도법 지도 등으로 가족들의 건강과 수행을 동시에 챙겨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표충사 사명제전 성료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주지 청운)는 8일부터 10일까지 제524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기념하는 사명제전을 봉행했다.

8일 입재식과 함께 사명대사 일대기 유물 전시, 사찰음식시연, 전통다도 시연 등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을 펼친 표충사는 특히 9일 저녁 표충 산사음악제로 사명제전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표충사는 마지막 날인 10일 표충사 경내 사당인 ‘표충사’에서 제524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하며 3일동안의 사명제전을 회향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통도사 극락암 주지 원산 스님, 이상조 밀양시장, 불교방송 이성언 사장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향사는 유교식 향사와 불교적 영산재를 1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향사는 예년에 비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며 지역의 유림과 불자들이 다함께 참여했다.

청운 스님은 “앞으로 표충사는 사명대사의 가르침을 현대에 재조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대성사 2박3일간 영산재 재현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정산)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대규모 영산대재와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사진).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의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인 영산재를 2박3일간 밤낮으로 재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10월 1일 입재식을 봉행한 후 매일 사경과 법화경 28품을 독송하는 등 모든 불교수행법을 망라하는 용맹정진의 시간을 가진 후, 9일부터 3일 동안 영산대재와 생전예수재를 봉행해 의미를 더했다. 배지선 기자

삼각산 도선사 창건 1134주년 개산대재

제4회 청담문화제

풍요로운 가을의 향연 삼각산 도선사에서 만끽하시길…




〈중창조 청담대종사〉

귀의삼보하옵고,
불법과 현문, 지리의 심오한 이치를 통달한 도선 국사가 명산 승지를 두루 답사하다가 삼각산에 이르러 산세가 절묘하고 풍경이 청수한 이곳에서 천년 후 말세 불법이 재흥하리라 예견하고 도선사를 건립하셨습니다.
이후 삼각산 도선사는 역사화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면 많은 큰스님들이 도량을 외호하시어 수도 서울의 대표적 참회 및 관음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선사는 개산조 도선국사의 개산의 고매한 뜻을 잇고자 개산대제 및 청담문화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지 선묵 혜자 합장

일 시 : 11월 4일(음력 10월3일) 금요일

주요행사일정

■ 1부 : 개산대제(10시)
-괘불 현괘 및 헌공
-불공의식
-법요식

■ 2부 : 도선국사의 생애와 사상 특강(12시)
-강사 : 이광준 일본 용곡대학교 교수

■ 3부 : 청담문화제(15시)
-사 회 : 이익선
-출연진 : 가수 장미화, 탤런트 강부자
가수 머루와다래, 가수 박정식
개그맨 신재수, 박정희 교수
북청사자놀이, 학춤


〈개산조 도선국사 진영〉

주최 : 호국참회 관음기도 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관 : 청담장학문화재단 전화 : (02)993-3161~3

종교서 '해법' 찾는다

서울고법 조정위원회, '종교와 조정' 주제로 세미나

법명 스님 발제…논총 발간계획
12월 '가사문제' 포럼도 열 예정


10월8일 열린 '종교와 조정' 세미나에서 법성사 주지 법명 스님이 발제를 하고 있다.

서로간의 갈등은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그 갈등을 조정하는 지혜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회(회장 연정열)가 그 해답을 종교에서 찾기 위해 10월 8일 경남 창녕 법성사(주지 법명)에서 '종교와 조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회는 서울고법 재판부(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가운데 민사부와 관련된 기구로,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위원은 법관과 법률학자, 사회 각계 저명인사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성사 주지 법명 스님(대한불교사상연구회 공동대표), 노영환 목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장), 김택환 교수(정치학박사 · 민주시민정치학회장)가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사상에 입각해 '조정' 문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특히 법명 스님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심성을 길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종교가 교리를 중심으로 국민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불교에서는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을 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가 관심을 끄는 것은 '조정'의 지혜를 종교적 바탕에서 찾는 것 외에도, 서울고법 조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정'문제를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고법 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 7월 '분쟁없는 사회 모색'을 주제로 불교 등 8개 종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포럼을 가졌었다. 또 오는 12월에는 '가사문제'를 주제로 종교 포럼을 갖는다.

이와 함께 조정위원회는 세 차례의 포럼과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묶어 내년 초 논총 (가제)<조정연구>을 발간할 예정이다. 결국 이 논총은 분쟁과 조정, 그리고 가사 문제에 대한 각 종교의 입장이 교리를 근거로 간단하게 종합 정리된 내용을 담게 되는 셈이다.

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종교를 주제로 '조정'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은 현재 조정위원회 회장 연정열씨와 법성사 주지 법명 스님의 영향 때문이다.

두 사람은 현재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각각 맡아 불교 사회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고법 조정위원회의 세 차례 포럼도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조정위원회 연정열 회장(전 한성대 총장)은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등 모든 종교는 인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로 통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포럼을 갖고 종교의 역할을 조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명 스님 역시 "법률문제를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자체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대한불교사상연구회도 지속적인 후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녕/글 · 사진=한명우 기자

법주사 대웅보전 낙성식

삼존불 개금불사도 진행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법주사 대웅적 낙성법회 모습.

법주사 대웅보전이 완전해체돼 복원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새 모습을 드러냈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10월 7일 대웅보전 해체보수 낙성 대법회 및 이를 기념하는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2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낙성법회에서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400여 년 전 조사스님들이 지금의 대웅보전을 건립하였고 이제 또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웅장하고 아름다운 옛 모습으로 다시 복원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주사 대웅보전(보물 915호)은 무량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불전 중 하나로,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돼 조선 인조2년에 벽암대사가 중창한 목조 2층 170평 규모의 웅장한 법당이다.

법주사/글 · 사진=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지역민과 함께 새 출발 해요

낙산사,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경로잔치, 효행상 시상식도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가 지역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원을 열어 화제다.

낙산사가 10월 21일 개원하는 '낙산노인전문요양원'은 강원도 양양지역 유일의 노인전문시설로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 보호를 목적으로 개설됐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 중풍 뇌경색 등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질환 전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이미 채용했다. 요양원은 건평 54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물리치료실이 갖춰져 있다.

요양원의 초대원장을 맡은 무문 스님은 "노인요양원 설립과 경로잔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낙산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033)672-2447

김강진 기자

상불사 하남시민위한 음악회

불교세가 열악한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산사음악회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하남 상불사(주지 동효)는 10월 28일 오후 5시 30분 경내에서 '하남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연다.

음악회는 가수 남진과 박현의 대중가요를 비롯해 향운 스님의 노래, 풍물 · 스포츠댄스 공연,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레크댄스, 예선을 통해 선발된 상불사 신도들의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하남시와 광주시 스님들이 무대에 올라 대중을 위해 범패와 승무 등을 선보인다. (031)792-4585

이에 앞서 제천 무암사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온 세상을 밝게'란 주제로 8일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진행했다.

25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산사음악회는 하유스님의 법고 타고로 시작해 한국 최고의 뮤지션으로 구성된 리듬앙상블의 연주, 인기가수 이동원이 향수, 가을의 편지 등을 불러 관객들을 무아지경에 빠지게 했다.

박봉영 기자

보령 영신암 무료천도재

충남 보령 영신암은 10월 11일 낙태수술로 죽은 수자영가와 유주무주 고혼영가를 위한 무료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법회는 낙태수술 전력이 있는 이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천도재를 지내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명이 접수했었다. 영신암은 이날 법회를 위해 영산재 어산 및 작법 범패스님 등을 초청했다.

영신암 주지 능인 스님은 "사회 저변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광주 교도소서 위안공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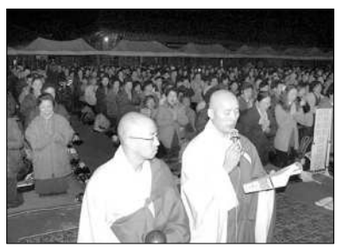
광주불교교화위원회(회장 현지 스님)는 10월 11일 광주교도소에서 재소자 위안공연을 개최했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불자 연예인들의 모임인 무등예술봉사단(단장 이애자)의 협찬으로 열린 이날 공연에는 가수 주권기, 국악인 오목대, 연주가 유상호씨 등 연예인 30여명이 출연해 재소자들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준엽 기자

"지계와 포교 둘 아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해인사서 8재계 수계법회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의 지도로 1500여 불자들이 참회진언을 하고 있다.

"계를 잘 지키며 부처님 법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8일, 청명한 하늘과 어우러진 가야산에 전국에서 불법(佛法)을 전하고 있는 1500여 조계종 포교사와 불자들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이 주최한 '제3회 포교사단 정기연수 및 8재계 수계 실천대법회'. 하루 동안 출가자가 돼 불살생(不殺生) 등 8가지의 계를 지키며 자신의 신행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이날 저녁 열린 8재계 수계식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증명아래 전계대화상 지관, 갈마아사리 종진, 교수아사리 무관 스님의 지도로 진행됐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계를 받기에 앞서 그동안의 생활을 반성하는 참회진언을 한다.

"여러분들은 8재계를 받겠습니까?"

"호법수지 하겠습니다."

'출가자'로서 지켜야할 계목(戒目)을 가슴에 새긴 참가자들은 곧바로 촛불을 들고 해인사 운동장으로 향한다.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의 지도로 연비를 한 참석자들은 각자 준비한 서원문을 태우며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했다. 참석자들은 또 살 속 깊이 파고드는 추위를 물리치며 석가모니불 정근을 밤새 이어 나갔다.

다소 피곤하지만 '도반'들과 함께 한 하루 출가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래서인지 가방을 챙겨 해인사를 나서는 참가자들의 어깨가 무척이나 가벼워 보인다.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나가라. 그러나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는 말아라. 한결같이 훌륭한 법문을 중생들에게 들려주고 언제나 깨끗한 수행자의 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전법의 길을 떠났던 다섯 비구처럼.

해인사/글 · 사진=유철주 기자

서울 불광사, 중창불사 나선다

시민선방 · 문화센터 · 유치원 등
전문연구소 설립, 신행강화 방침

'도심대중 포교' 기치를 들고 지난 30여년 간 각종 활동을 벌여온 불광사 · 불광법회가 중창불사를 통한 대중포교의 한 단계 도약을 선언했다.

불광사(회주 지홍)는 10월 10일 현 법당 건물을 헐고 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2007년 부처님오신날 직후부터 3년간의 공사를 통해 완공되는 새 건물에는 불자들이 24시간 정진할 수 있는 시민선방을 비롯해 문화센터, 대웅전, 유치원, 출판사 등이 들어선다. 특히 신축 건물에는 수도권의 43개 지역모임과 거사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각급모임들이 자유롭게 법회를 열 수 있도록 50여명 수용규모의 작은 법당도 5~6개 마련할 예정이다.

불광사는 건물 신축과 함께 광덕 스님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 연구소를 설립해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뒷받침한다. 또 사찰운영위원회와 지역 · 계층 대표자들의 모임인 '명등회의'도 신도 중심으로 확대해 사찰을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공동 공간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유철주 기자

계룡산 보전 서명운동 본격화

불교성지 계룡산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불교연대(상임대표 장곡, 계룡산 불교연대)는 계룡산보전 시민모임 등과 함께 10월 9일 공주 갑사에서 불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1000여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계룡산 불교연대는 앞으로 '계룡산 훼손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량용 스티커 제작 · 배포, 종교시민단체 연대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혜초 종정 증명 500여명 수계

한국불교 태고종 아일다율원(원장 수진)은 지난 10월 9일 담양 용화사 대웅전에 금강계단을 세우고 대승보살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의 증명으로 열린 이날 수계식은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갈마아사리), 무관 스님(교수 아사리)이 종단을 초월해 증명법사로 동참했다.

수계에 앞서 태고종 전계대화상 수진 스님은 "온전한 마음이 계율이며 계만 온전히 잘 지키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며 "부처님 공양하듯 계를 지켜 다같이 성불하자"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낙산사 낙산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

초청의 말씀

설악 가을산의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는 아쉬움 때문에
눈에 밝히는 모든 것들이 빨갛게 물들어
산도 구름도 흘러가는 계곡의 물들도
우리 가슴에 그리움을 묻으면서
여기 금풍리 언덕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강원 도민의 정성과 양양 군민의
지극한 원력을 모아
낙산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을 하게 되었사오니
따뜻한 마음 모두어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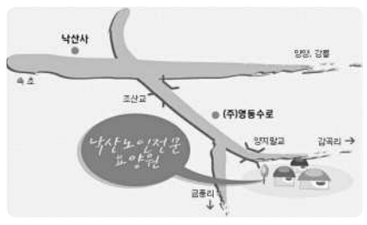
2005년 10월
낙산사 복지재단 정념 합장



● 일시 : 불기 2549(2005)년 10월 21일(금)
개원식 11시 / 경로잔치 12:00

● 장소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금풍리
낙산노인전문요양원 앞마당

● 찾아오시는 길



낙산노인전문요양원 ☎ 033)672-0053 / 낙산사 ☎ 033)672-2448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 사회복지법인 낙산사 복지재단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성남 봉국사 신도회 봉사단

나눌수 있어 행복합니다

10월 12일, 성남 봉국사(주지 효관) 공양간이 시끌벅적하다. '효도잔치'를 한다는 소문에 찾아온 지역 어르신이 150여명. 손님들은 봉국사 보살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과 봉국사 앞마당에서 펼쳐진 풍물놀이 마당에 흐뭇한 웃음을 짓는다.

이렇게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부지런히 밥과 국을 나르고 안내를 돕는 노란 색 앞치마 부대는 봉국사 신도회 봉사단(단장 위여금)이다. 이번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여는 '효도잔치'지만 봉국사 신도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 봉국사의 봉사교육과 여러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해온 '경력'에서 나오는 여유다.

사실 봉국사에는 전문 사회복지사까지 종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사찰 내 불교대학에서는 8주 교리공부, 8주 봉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신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제대로 된 봉사교육 과정을 거쳐 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사실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그 길을 알게 됐으니 좋죠."

봉사단에서 각각 재무와 총무를 맡고 있는 이경화(43) · 유정옥(46) 보살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봉국사에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절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봉국사 신도들의 활동영역은 사찰 안팎을 넘나든다. 인근의 부처님마을 자광원과 주몽재활원 · 수정복지관 · 한솔복지관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자광원에 갔을 때, 앞이 안 보이는 할머니가 더듬더듬 방을 짚어서 사탕을 꺼내주려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우리가 교육 받고 이곳에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봉사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일하고 있는 봉국사 신도 중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대답은 '나누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에 봉국사 신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다.

글 · 사진/ 성남=김강진 기자



10얼 12일 봉국사 제1회 효도잔치를 준비하면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담당한 봉국사 신도회 봉사단원들은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보살들이다.

효도잔치에 쓸 부식 후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효도잔치를 연 봉국사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효도잔치를 벌여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식사, 간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봉국사 신도들은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한끼 식사를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031)755-0329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백혈병 민수를 돕기위해 달마도를 그리고 있는 일허 스님.

민수돕기 달마도 주문 줄이어

일허 스님 보시한 100장 중 70장 판매

"민수 돕기 달마도, 아직 구입 가능한가요?"

본지가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백혈병 민수 돕기 달마도 판매'에 불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10월 13일 현재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보시한 100장의 달마도 중 70장이 본지와 일허 스님을 통해 판매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달마도에 대한 문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달마도를 판매하고 있는 곳이 늘어났지만 본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달마도에 불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스님의 달마도에는 네 살짜리 백혈병 환우 민수를 돕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자들의 자비심과 함께 '나눔 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딸에게 달마도를 선물한 차정순(65)씨는 "달마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판매금액 모두 아이 치료비로 쓰여 진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생각은 달마도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스님의 보시에 감동했다는 구입자들도 적지 않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독자는 "스님께서 큰 뜻을 내어주셔서 보기좋다"며 "베풀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스님은 혼신이 깃든 그림을 선뜻 내 놓으시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백혈병으로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민수(4)는 10월 4일 임시 퇴원한 상태다. 5차 약물치료 중인 민수는 계속 자라나고 있던 암세포와 파괴된 채 복구되지 않는 혈소판 때문에 힘든 투병생활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암세포는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지만 혈소판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민수는 18일, 다시 병원을 찾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민수 아버지 김형찬씨는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민수가 약물치료를 잘 견디고 있다"면서 "그림을 구입해주신 분들의 마음들이 하늘에 닿아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강진 기자

민수돕기 달마도 구입해 주신 분들

박현 가사야 이순덕 박순일 구숙경 양각용 정영희 이재도 서경숙 송남이 김진배 김광태 한상경 박훈식 김성귀 윤영숙 이보걸 송림사 청암사 덕암사(용각스님) 방시열 최성식 송정석 박종범 심원식 한양현 서선화 김선자 최선호 이승호 최혜원 전재구 한만현 서원준 이재윤 김기태 오택규 최타숙 변용태 용각 스님 윤명숙 김주환 이경철 김대영 황근하 류진영 김숙자 박경아 김영준 우진궁 김귀남 김정순 황용선 정진갑 김양숙 권갑연 송전옥 이준엽 김원우 여수령 오택규 박정선 이봉덕 송정선 감응사 차정순 이영만 감흥사(도각스님)

(10월 13일 현재 입금 완료된 분, 주문순서 기준)

* 주문자와 입금자가 달라 입금 확인이 안 된 분도 있습니다. 본사로 전화주시면 이후 정산 시에 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했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minsu

네팔 불교 부흥에 힘 모아 주세요

'샤키아족(석가족)' 불교를 살리기 위한 현대불교신문 부다피아의 '풀뿌리운동'이 전개된다.

네팔 '부처님의 땅 불교인센터(Buddha Bhumi Buddhist Center, 이하 불교인센터)' 공동대표인 삿다티사(Saddhatissa) 스님과 고리타(Kolita) 스님은 10월 5일 한국을 방문, 네팔 불교 부흥을 위한 한국불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정통 샤키아족 출신으로 네팔 카투만두 지역에서 활동 중인 두 스님의 한국방문은 1995년 이어 두 번째. 이들은 가난한 샤키아족 네팔 불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기 위해 두 번째 한국 방문길에 나섰다.

불교인센터는 4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규모는 작지만 지역에서 이름난 불교기관이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의료봉사, 산간지역 불자들을 위한 문맹퇴치사업, 초등학교 학습 지원 등 사회봉사와 찬불가 보급, 불교잡지 발행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02)2004-8281 조용수 기자



사진 왼쪽부터 본사 부다피아 청월 스님, 삿디티사 스님, 고리타 스님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종선사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 드립니다.

"천문을 열어라" 책값 : 20,000원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뜬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쓸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명중 8,9명 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요실금이 없어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어 남편 바람날 염려없고 전립선이 좋아진 남자는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니 이러한 신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 내 나이 75세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들의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쓰워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 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충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부터 2주간은 서울 수련원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답십리 고미술상가 2동 맞은편에 있습니다.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 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올림



이조암 내부 혜가 스님상 앞에 선 의정 스님.



소림사 입설정. 입구 양쪽에 '선종초조천축승 단비구법입설인' 이란 주련이 걸려 있고 안에는 초조부터 5조까지의 상이 모셔져 있다.

선원장, 禪의 원류를 찾다

– 중국 선종 초조에서 8조까지

2조 혜가 : 의정 스님 (상원사 용문선원장)

팔뚝 잘라 법을 구하니 그 벽력같은 가르침이여

이조암

이조암(二祖庵) 가는 길. 걷고 싶었다. 날씨는 더운 편이었지만, 이조암으로 올라가는 길은 걷고 싶었다. 10여리 길이라니 걸어서 1시간 반이면 될 듯 했다. 걸으면서 이조 혜가 스님을 생각하고 싶었다. 지금으로부터 1520년 전에 태어나 108세를 살다 갔지만, 후대의 수행자들에게는 단비구법(斷臂求法)의 커다란 가르침으로 영원히 살아 있는 큰 스승을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빠듯한 여행 일정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케이블카를 타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다.

나의 이조암 답사는 느긋한 걸음이 아닌 케이블카(스키장의 리프트 카처럼 생긴)의 신속함으로 시작됐다. 선의 원류를 더듬어 떠난 여행의 사흘째 되는 날, 9월 10일이었다.

이조암은 소림사 서남쪽의 발우봉(鉢盂奉) 아래 있었다. 소림사에서 달마굴로 오르는 도중에 이조암을 들렀다 가는 코스였다. 케이블카가 위로 오르는 동안 멀리 혹은 가까이 조망되는 경치가 시원스러웠다. 나는 이조암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설레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네가지 맛 나는 우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현대사회에서 선객으로 사는 일도 예전과는 다르다. 많은 것이 편리해진 만큼, 정신은 나태하고 유약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때 수행자들에게 혜가 스님의 구법의지는 청천의 벽력같은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인가?

면벽을 하고 앉은 스승을 향해 서서 오로지 법을 구하던 대장부, 눈이 내려 무릎을 덮어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구법의 불길을 활활 태워 몸을 덥히고 서 있다가 "천하에 붉은 눈이 내릴 때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스승의 한마디에 팔뚝을 쓰윽 잘라 바치던 초인. 바로 그 혜가 스님의 행적지를 1500년 후의 제자가 찾는 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전국 선원을 다니면서 정진에 몰두하던 시절, 어쩌다 몸이 아플 때면 늘 혜가 스님을 생각했었다. 정진이 잘 안되면 의례 혜가 스님의 단비구법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추스르던 나에게 이조암 답사는 남다른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팔뚝을 잘라 법을 구함. 그렇게 적극적이고 뜨겁게 표현된 구법의지가 또 있을까? 단비구법의 감동이 <본생담>의 설산동자 이야기만큼이나 큰 울림으로 다가 오는 것은 바로 동토(東土)로 전해진 선불교의 정점에 혜가 스님이 있기 때문일 터.

"불안한 네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조암은 아담한 전각 하나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앞에는 원나라 때 축조됐다는 6각 전탑이 뒤에는 당나라 대의 4각 전탑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주변에 눈을 돌릴 겨를도 없이 내가 먼저 들어 간 곳은 법당. 혜가 스님의 좌상이 모셔져 있었다. 금칠을 한 소상에 다시 옷을 입혔는데 오늘날 중국 법당의 전형이었다.

이조의 소상을 바라보며 조형성이나 조선 연대, 재료 등을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문화혁명 등을 거치며 피폐할 대로 피폐했던 중국 사찰들이 이렇게나마 복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절이 지나치게 관광지화 되어 있는 느낌은 께름칙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그 역시 중국 사람들에게 불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소림사 일대는 물론 다른 곳에서 만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은 하나 같이 표정이 밝았고 절을 단순한 구경거리로만 보는 것 같지 않아 희망적이었다.

소림사나 이조암이나 다를 바 없이 절 입구를 장엄하고 앉아 있는 장사꾼들의 행색조차도 절 풍경의 한 구색이라 생각하는 것이 편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중국이고 중국불교였다.

삼배를 올리고 20여 평의 법당 안을 둘러보는 동안 참으로 감개가 무량했다. 이곳이 혜가 스님의 수행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혜가 스님의 우렁찬 법문을 듣고 있는 듯했다.

내가 본래 이 당에 온 것은
법을 전해 어리석은 이를 제도하고자 함이었다.
한 꽃에서 다섯 잎이 피게 되리니
열매는 자연히 맺으리라.

달마 스님이 혜가 스님에게 내린 전법게(傳法偈)다. 이 게송으로 스승의 법을 이은 혜가 스님은 다시 제자 승찬 스님에게 게로써 법을 전한다.

꽃과 종자는 땅에서 나고
땅으로부터 종자와 꽃이 나지만
종자를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꽃도 땅도 생겨나지 않으리.

절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다. 사미정(四味井)이다. 단맛, 쓴맛, 신맛, 매운 맛의 네 가지 맛이 나는 물이라는데 지금은 물맛을 볼 수 없을 만치 방치되어 있었다. 키 작은 비석에 큼직하게 새겨진 '사미정'이라는 표석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혜가 스님이 이 터에서 수행할 때는 물이 없어 고생스러웠다. 이를 안 달마 스님이 찾아와 짚고 있던 지팡이(錫杖)로 땅을 치니 물이 솟아 우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한다.

실제 중국의 사찰에는 이렇게 지팡이로 '탁' 쳐서 우물을 만들었다는 탁석천(卓錫泉)이 많다. 나는 사미정 앞에 서서 제자를 위해 커다란 석장을 높이 치켜들었다가 땅을 향해 '쾅' 찍어대는 스승을 생각해 보았다.

스승의 마음… 펄펄 나부끼는 눈발 속에서 팔뚝을 잘라 법을 묻는 제자에게 "불안한 네 마음을 가져 오라"는 추궁 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물이 없어 고생하는 제자를 위해 지팡이로 땅을 갈라 물길을 여는 그 정성보다 큰 가르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수행은 각자 알아서 한다"

이조암에는 10여명의 스님들이 살고 있었지만 모두가 절을 안내하거나 불사를 안내하는데 매달려 있었다. 물어 보니 소림사 소속이라 했다.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조금 계면쩍은 얼굴로 "각자 알아서 한다"고 답했다. 얼른 듣기에도 그리 체계적인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소림사에도 많은 스님들이 있지만 선원은 없는 듯 했다. 선원이라는 건물이 한 동 있지만 그 속에서 스님들이 체계적인 수행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물론 안내원이나 소림사 스님은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막상 보여주지는 않았다.

문득 3년 전 광동성 보림사와 운문사를 답사했을 때가 생각났다. 보림사에는 50여 선객들이 모여 정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벽 예불을 올리고 오전에는 정진을 하고 오후에는 일을 했다. 그리고 다시 저녁에 정진을 하는 일과였는데, 나는 실제 그들과 함께 하루 동안 정진을 했었다. 그때의 감격은 참으로 오랫동안 가슴을 채웠었다. 중국에서 불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림사와 운문사의 선객들은 참으로 개방적이었다. 한국의 객승에게도 자리를 내 주어 함께 정진을 하도록 배려해 주고 함께 포행을 돌며 '도반'의 따스한 정을 나누는데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었다.

그에 비해 소림사는 아직 본격적인 선수행 도량으로서의 골격을 갖추지 못한 느낌이었다. 대신 오랜 전통의 소림권법을 중심으로 하는 무술학교 수백 개가 소림사 주변에 흩어져 있고 내외국인 수만 명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니 그 역시 달마 스님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의 '맥'이라는 점에서 마음을 달래 주었다.

아무래도 혜가 스님의 체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이조암을 내려와 다시 위로 한 시간 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한 달마굴이었다. 그곳이야말로 '단비구법'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달마 스님이 양 무제에게 '불식(不識)'을 설하고 숭산으로 들어와 9년 면벽을 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한국에서 찾아간 운수에게는 '단비구법'의 현장이라는 사실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유적지였다.

오유봉(五乳峰) 중턱에 자리한 달마굴의 내부에도 달마 스님의 소상이 조성되어 있었다. 동굴 입구에는 돌문을 세우고 '묵현처(默玄處)'라고 음각으로 표기해 두었고 벽에는 '달마동(達磨洞)'이라 새겼다. 달마 스님의 9년 묵언 면벽의 장소라는 것을 그렇게 알리고 있었다. 뒷벽에는 '동래조적(東來肇跡)'이라는 음각이 있고 옆면에는 소림권(少林拳)'을 부조해 놓았다. 그러저런 부조들을 둘러보던 나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팔뚝'이었다. 혜가 스님이 잘라 바쳤을 그 팔뚝을 손가락까지 자세하게 묘사하여 부조한 벽면에 눈이 닿는 순간 섬뜩한 기운마저 온 몸을 싸고돌았던 것이다. 그저 관념적으로만 생각했던 '단비구법'의 '실제상황'을 보는 순간 제방 선원을 다니며 결제와 해제를 반복해 온 30여년 세월이 뚝 멈추는 듯 진한 감동이 온몸에 전해졌던 것이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내 팔뚝이 저기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며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눈을 감았건만 어둡던 동굴 내부가 갑자기 밝아지는 듯했다.

> 혜가 스님이 잘라 바쳤을 그 팔뚝을
> 손가락까지 자세하게 묘사하여
> 부조한 벽면에 눈이 닿는 순간 섬뜩한
> 기운마저 온 몸을 싸고 돌았다

눈속에 찍힌 붉은 도장

소림사 방장실 위에 있는 입설정(立雪亭)도 혜가 스님을 상징하는 전각이었다. 15평 가량 되는 이 전각은 그 이름부터 혜가 스님의 일화를 담고 있다. 스승을 찾아가 편치 못한 마음의 정체를 묻던 그 날 혜가 스님은 무릎까지 차 오른 눈 속에 서 있었던 것이다. 입설정 안에는 단이 있고 단 위에는 초조 달마 스님으로부터 5조 홍인 스님까지 다섯 조사의 상이 모셔져 있었다. 정문 기둥의 주련에는 '단비구법입설인(斷臂求法立雪人) 선종초조천축승(禪宗初祖天竺僧)'이라고 쓰여 있었다. 역시 달마 스님과 혜가 스님을 설명하는 말이다.

내부 현판에는 '설인심주(雪印心珠)'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설인심주, 눈속에 찍힌 붉은 도장이란 다름 아닌 혜가 스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팔뚝을 잘라 터져 나온 피가 흰 눈에 도장자국처럼 찍혔음은 바로 그 단단하고 드높은 구법의 의지인 것이다.

나는 입설정에서 다시 한 번 혜가 스님의 붉디붉은 구도의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었다. 눈 속에 찍힌 붉은 도장처럼 분명한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1500년을 거쳐 이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을까? 중국 하남성의 최대 불교유적지 소림사. 소림사와 이조암, 달마동, 입설정 이 모든 유적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짧은 시간이나마, 소림사 일대 답사를 통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준엄한 모습으로 살아 있는 조사들의 체취를 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역대조사들의 붉고 뜨거운 가르침이 있기에 오늘날의 운수들도 눈 뜨면 그곳이 고향임을 확신했다.

정리=임연태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이조암 앞에 선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 앞줄 오른쪽부터 불산, 혜국, 원타, 강설 스님, 두번째줄 영진, 인각, 현산, 고우, 일오 스님, 세번째줄 수련, 설우, 현기, 일수, 원각, 신용, 지현, 영명 스님.



소림사 달마굴 앞. 이곳이 '단비구법'의 현장이다.

의정 스님은 1973년 봉선사에서 운경(雲鏡)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했다. 해인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마친 후 전국 선원을 돌며 정진했다. 2001년 경기도 양평 용문산 상원사를 복원, 용문선원을 열고 선원장 소임을 맡아 정진하고 있다.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대불청 서울지구 제1회 통일자전거 대행진 현장


대불청 회장 김익석씨(사진 중앙)가 서울지구 임원들과 함께 임진각 평화의 종을 타종하고 있다.


평화통일을 발원하고 있는 대불청 서울지구 회원들.

북녘 땅까지 법륜 굴러가길…

참회 · 발원 의미 담아 108대 준비
서로를 격려하며 임진각까지 달려
육법공양 올리고 통일발원문 낭독



쾌청한 가을 하늘이 맑게 드러난 10월 9일 이른 아침. 120여 명의 청년불자들이 일산 여래사 옆 정발중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손질하고 있다. 조계종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지회장 현일환 · 이하 서울지구)가 이 땅의 자주통일을 염원하며 마련한 제1회 통일자전거대행진에 참여하는 불자들이다. 오늘은 임진각까지 총 30km를 자전거로 달려야 한다.

□ "통일로 가는 길처럼 자전거로 달리는 일도 쉽지는 않군요"

오전 9시. 108대의 자전거가 일산 여래사를 출발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깊다. 세간사의 모든 고뇌를 집약해 흔히 108고뇌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회하거나 발원하기 위해 불자들이 올리는 절 역시 108배이다. 그래서 서울지구도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108대 자전거로 숫자를 맞추었다.

이날 행사는 여래사에서부터 임진각까지 약 30여 km에 이르는 구간을 자전거로 달리는 것이다. 봉은사청년회, 보문사선재청년회, 화계사청년회, 도선사청년회, 구룡사청년회, 금강정사 금강청년회, 길상사청년회, 영화사 용화수청년회 등 서울 각 지역에서 모인 청년 불자들이 우렁찬 구호 소리와 함께 출발했다.

"남자는 앞에, 여자는 뒤에서 따라오세요!" 맨 앞에서 행사진행차량을 몰던 서울지구 지도위원 인성호씨(조계종 포교원 신도계장)가 외치자, 대열이 금세 정돈된다. 교통정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차의 엄호를 받으며, 108대의 자전거가 힘차게 달려나갔다.

"속도가 15km도 안 나와요. 아무래도 다들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다보니까…" 진행차량을 몰며 속도를 살피던 인씨의 무전기에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사고가 났습니다!"

행렬을 멈추고 차에서 뛰어내려 사고가 난 지점으로 달려가니 다행히 자전거를 몰던 젊은 여성 불자가 잠깐 넘어진 것에 불과했다. 조마조마했던 마음을 쓸어내리며 인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바로 옆으로 승용차들이 달려가는 6차선 도로라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자전거 몰 수 있어요?" "네, 끝까지 몰 수 있습니다!"

넘어진 참가자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행렬은 지체 없이 출발했다. 중간 중간 사거리가 나올 때마다 온통 긴장의 연속이다. 진행요원들은 그때마다 차에서 내려 교통정리를 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열심히 페달을 밟았다. "통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것처럼, 자전거로 국토를 달리는 일도 쉽지가 않군요." 자전거 행렬의 앞 뒤를 돌보며 안전주행을 지도하던 인씨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 "꼭 완주해 통일염원 이뤄야죠"

중간 휴식시간. 15km를 쉴 새 없이 달려온 자전거들이 멈추자마자, 참가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오늘을 위해 며칠전부터 자전거 타기 연습을 했다는 오현주씨(23 · 봉은사청년회)는 "내리막을 달릴 때의 기분이 너무 상쾌하다"며 상기된 얼굴로 웃으며 "오늘 꼭 완주해서 통일을 발원하는 법우들 마음에 내 마음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들이 쉬는 동안에도 잠시도 쉬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박건원씨(24 · 화계사청년회)는 자전거 타는 법을 곁에 있는 법우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오늘도 출강해야하는데,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박씨는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면 통일이 가까워진다는 각오로, 하프코스만이라도 끝까지 뛰고 돌아가겠다"고 말해 동료들의 박수를 받았다. 30분 남짓 쉰 참가자들은 다 함께 "통일! 통일! 화이팅!"이라고 구호를 외치며 다시 출발했다.

현일환 서울지구회장은 "자체 동력이 없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통일도 우리 스스로 행동해야 다가올 수 있다는 뜻에서 청년불자들의 큰 원력으로 통일을 앞당기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서울지구 뿐만 아니라 전체 대불청 회원이 참가하는 통일대행진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통일 앞당기는 동량이 되게 하소서 "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임진각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곧바로 법회준비에 들어갔다. 괘불을 세우고 오색천으로 장엄한 불단에, 각 사찰청년회에서 두 명씩 선발된 여성법우들이 한복을 입고 육법공양을 올렸다.

이어 한마음으로 통일발원문을 낭독했다. "통일을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하나니 젊은이다운 푸른 기백과 불퇴전의 용기로 이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동량이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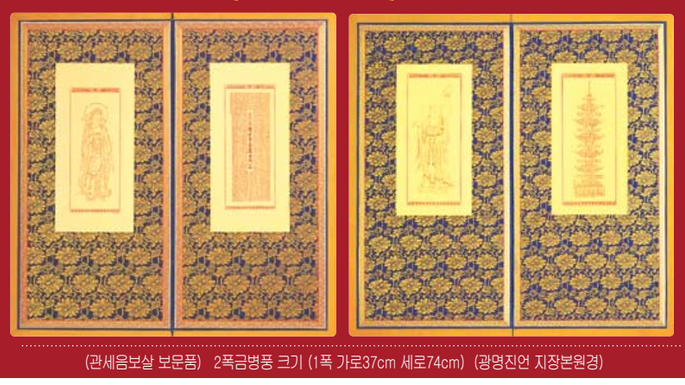
이날 서울지구 불자들은 북녘 땅까지 부처님의 법륜이 하루 빨리 굴러가기를 기원하며 임진각 평화의 종 타종식을 가졌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교육 조교인 동희 스님(동국대 국악과 겸임교수)의 통일기원 범패공연과 봉은사청년회의 '그날이 오면' 축가공연 등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행사 마지막은 풍물놀이 한마당으로 신명나게 어우러지며 이 땅에 평화통일의 날이 오기를 기원했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경,금책,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영가천도 소장용 호신용 불사 상량식 복장의식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여래종, 법우 스님 사리친견 행렬 줄이어

11월 14일 옥천 대약사사에 사리탑 제막



◇9월 27일 열반한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스님의 법구에서 은사리(○부분)를 비롯한 70여과의 사리가 나왔다.



◇ 목탁 · 달마 · 코끼리의 형상을 한 법우스님의 사리



◇ 10월1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봉행된 법우스님의 다비식

"큰스님의 사리는 불자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 스님의 법구에서 은사리를 비롯해 오색영롱한 사리 70여 과가 발견됐다. 법우 스님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실천불교'의 길을 평생 걸어왔기에 이번 사리 출토는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후에도 수많은 사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불자의 환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래종(종정 인왕)은 스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대승정 법계를 내리는 한편 11월 14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사리탑 제막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여래종 대승정 법우 스님의 법구에서 사리 70여과 출토



◇열반하신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스님

"큰스님의 거룩한 뜻이 다양한 모양의 사리로 출토되는 것 같습니다."

9월 27일 열반해 10월 1일 여래종(종정 인왕) 총본산 옥천 대약사사에서 다비식이 봉행된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월봉당 법우 대승정의 법구에서 70여과의 사리들이 출토돼 화제를 낳고 있다. 특히 일반사리에서 보기 힘든 은사리를 비롯해 목탁 · 달마 · 코끼리 등 다양한 형상을 가진 사리들이 나와 친견한 불자들은 스님의 높은 법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감탄하고 있다.

법우 스님이 1980년 창건해 입적 직전까지 주석했던 평택 팽성읍 용호사 신도회(회장 이상준)는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49재일인 11월 14일까지 사리친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0월 10일 스님의 2재에 참가한 신도들은 사리를 친견하고 "평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스님이 불자들에게 이 같은 선물을 주셨다"며 "오색찬란한 사리로 환생한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봉사하고 수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래종은 11월 14일 49재일에 맞춰 옥천 대약사사에 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할 계획이다.(031)691-6272



◇1980년 법우스님께서 창건한 평택 팽성읍 안정리 **용호사**



◇법우스님 사리를 친견하는 불자들

실천불교 주창한 법우 스님

"형식과 권위를 타파하고 중생들이 사는 속세에서 그들과 더불어 지내는 종교인."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서 포교와 수행을 함께 펼쳐온 법우 스님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말이다.

법우 스님은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불교의 자비사상을 실천해 일반신도와 쉽게 접할 수 있는 포교를 하자고 늘 주장했다. 스님은 이런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몸소 고물을 수집해 판매한 금액으로 장학 사업을 벌이고, 불우이웃과 고아원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법우 스님은 복지사업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스님은 여래종 4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종단사업으로 금강유원지 뒤쪽에 현인복지마을 건립을 추진했다. 매해 용호사에서 정기적으로 노인과 불우청소년을 위한 생활위로자금 전달법회를 개최했으며, 여래종 합창단과 신도들을 이끌고 선장리 정애양로원을 방문해 음성공양을 하는 등 위문행사를 갖기도 했다.

법우 스님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정식 혼인을 못 한 볼자들을 위한 결혼식을 주선하고 직접 주례를 서기도 했다. 또한 몸 속에 큰 병을 가진 이후에도 평택 심장재단 고문으로 활동하며 심장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열반 직전까지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군포교도 법우 스님이 관심을 가진 분야였다. 법우 스님은 종단차원에서 최전방 15사단 OP에 평화기원점등식을 열었으며, 평택 미군부대 내 보광사를 수시로 방문해 법회를 열어주고 각종 지원품을 전달했다.

이런 스님의 노력은 해외 불교국가까지 알려졌다. 여래종과 스리랑카 아마라푸라종이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문화교류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받아 법우 스님은 1989년 3월 외국인 스님 최초로 아마라푸라종 승정에 추대됐다.

법우 스님은 이후에도 스리랑카에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을 기념한 인왕도서관을 건립하고 최근까지 미얀마 바간의 불탑복원을 위한 모금 사업 등을 벌였다. 또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펼쳤다. 용호사 신도인 스리랑카인 비아니 씨는 "스님이 외국인인 저를 딸처럼 귀여워해주셨다"며 지갑 속에 넣어둔 스님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용호사는 평택지역 200여 스리랑카 불자들의 모임 장소로도 이용돼고 있다.

스님의 어머님이 진관사에서 출가한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는 스님은 스스로 이판사판 사판승이라며 항상 겸양의 덕을 내보였다. 스님이 말하는 '실천불교'와 '생활불교'도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것일 뿐 어떤 다른 의미도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용호사 신도들은 증언했다.

용호사 신도들은 "큰 스님이 실천하는 것만이 해탈과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라는 가르침을 늘 내렸다"며 "노인복지 활동을 펼치려고 해운복지회을 만들었는데 활동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법우 스님 다비식 종단장으로 엄수

대승불교여래종 총무원장 월봉당 법우대종사의 영결식은 10월 1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단장으로 거행됐다. 세계불교승왕청 최고위원 만오, 철산, 해광 스님 등이 참석한 다비식에서 장의위원장 법룡 스님은 "법우대종사가 한국과 스리랑카 교류를 통한 불교중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미얀마 아마라프라 종단과의 자매결연과 고아원후원 및 세계유산 바간 불탑복원에도 힘썼다"고 기렸다.

10월 2일에는 수습된 사리가 공개됐다. 혜안 스님은 "스님의 법신이 오색찬란한 무지개 광채를 띤 수십과 사리로 출현했다"며 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들에게 공개했다.

법우 스님 수행이력

9월 27일 입적한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 스님은 1941년 11월 25일 충청남도 천안 구성동에서 출생했다. 스님의 아버지는 김종철, 어머니는 최기례. 스님은 관악산 법륜사에서 출가해 인왕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인왕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불문에 들어온 후 스님은 불교학 공부에도 매진했다. 불교대정법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민속연구원을 수료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 불교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었다.

법우 스님은 종단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 여래종 포교부장을 시작으로 호법원장, 감찰원장으로 활동했고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소임을 4대째 맡았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환경분과의장, 국제분과위원을 역임했으며 종단협 이사로서도 활동을 펼쳤다.

지역불교계에도 스님의 발자취는 뚜렷하다. 여래구도봉사단 지도위원장으로 불교자원봉사자들을 이끌었으며 평택사암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부처님 오신날 행사 등 여법하게 치루기 위해 힘을 쏟았다. 스리랑카 승정에도 추대됐으며 세계불교승왕청 최고위원을 맡아 해외불교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애썼다.

여래종 성남 약사사

남한산성 만덕산 약사사는 원래 여래종 종정 석인왕 스님이 옛 사찰 한흥사를 재건한 것이다. 한흥사는 신라 원금성사가 경찬한 묘법의 현의와 고려재판법사가 흥전한 법좌를 계승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여 백성을 제도하고 국가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 창건됐다.

남한산성에는 명종 10년 을묘왜변 당시 한흥사를 위시로 19곳 사찰이 있었으며 3500여 의승군의 본거지인 군영이 자리잡고 있었다.

승군들은 불명을 외우고 선을 닦는 수행과 무술을 연마하는 함께하며 산성을 수비했다. 현재의 약사사는 한흥사를 개명한 것은 1968년 동방교주 약사여래불을 봉안한 후 약사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는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이 상주하고 승려의 교육장 수행처로 이용되고 있다.(031)734-3205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는 법우스님과 불자들



◇여래종이 복원한 미얀마 바간의 불탑



◇한-스리랑카 불교 교류 행사 모습



◇스리랑카에 세워진 여래종 인왕도서관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열린건강교실
(한국생활익지공협회)
● 생활기공수련비디오 테이프 / CD / DVD - 국내최초
● 가격 : 1만원(무료건강상담)
● 1주일 무료체험기간 운영중
대구 053)625-3118번
www.gigong.ne.kr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각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정	천도재	수륙재	각시식	사물	바라나비춤	경전
안	49재					
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세계 어디에도 없는 눈을 위한 신 개발품. 눈 생각
섭취하고 반응없을시 100%환불
02)2631-2205,1305
대리점 모집

행 자 모 집
(엘리트스님 양성 목표)
참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출가의 연을 갖고자 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문의 053)745-3334
대한불교조계종 삼존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신명의식
011-850-0176

세계결혼기관
● 국내 : 초혼, 재혼
● 국제 : 필리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지사모집 시 · 군
0502-555-4242

불교(전통)의식 무료강의

목탁 · 요령	도량석 · 거불	장례의식 (시달림)	49재 천도재 의식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2시 30분
● 상임법사 : 남웅스님 합장
02)718-9090
016-437-1802
(재)불교진흥원 봉사단
지하철 5호선 4번출구 (불교방송)마포 디보빌딩 2층

역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저 김창규 원장 강의
적중률 높은 학설로 누구나 쉽게 단기간 완성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신명의식
011-850-0176

사찰운영(동업,주주)모심
● 사찰위치 : 경주
● 규모 : 토지3500평,건물 300평 (소자본으로 힘을 모아 사찰운영 같이 할 분)
처사님 보살님 동참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051)803-5143

- 산세수려한 산사에서 천일기도 하실 스님 모십니다
- 행자 모집합니다
011-696-8500

부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4555-298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31)764-8381

사찰사무장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상주가능 출퇴근도 가능
031)335-2576
011-270-267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63세까지)
▷경기도
010-7160-273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3-3004
02)359-7766

함께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011-9571-6479

강원도 원주에 자리잡고 있는 보연사가 2005년 9월 15일 오후 2시 40분에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불사를 받고자 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보연사 201061-01-002545 우체국
010-2369-282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전북 지방)
016-779-2237

조계종 소백산 고찰 내원암에서 자기 수행기도 할 비구스님과 은사를 섬길 건당상좌와 40-50대 공양주를 구함
경북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5)546-741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남양주
40대 중반에서 60대
031)571-5424
017-681-9858

가족을 구합니다
결혼상대자를 구합니다
본인은 30세 여자인데 상대자 조건은 30~40대 적당 술을 못하는 남자
010-2205-3050

49세된 퇴직공무원으로서 작은 사찰을 같이 운영할 도반 비구니 스님이나 신심있는 보살님을 찾습니다
017-566-7227

구형코란도나 자가용 보시해줄 인연을 기다립니다
스님이 산길 차가없어 불편하여 부탁드립니다
010-3083-332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서구 위치
053)523-4144

가족과 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한국 민속촌 앞)
011-244-026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80만원
(경기 파주)
010-3070-353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 평수 : 1086평(요사채, 법당) 꼭 필요하신분만 역락요망
● 심야보일러 시설완비
● 부처님 모셔져있음,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1-577-5713

토굴안내
● 위치 : 마산시 외곽
● 법당1, 방2, 부엌1, 마당 - 전체 50평
● 가액 : 권리금 400만원 (도지세 1년 80만원)
054)956-7706
(오전7시-오전9시 전화요망)

사찰자리안내
● 위치 : 수원시 남문 로데오거리
● 5천만원/월40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 2층 20평
● 사찰 입주 예정 화성유네스코 5천만원 보상 구역
● 현재 사주카페 운영중
011-7459-117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남부민1동
● 평수: 약 399평
● 가액: 3억 2천
● 법당 15평, 방4개, 산신각, 용왕각, 화장실, 종각등 시설완비
도로에서 50m로 전망 좋은 곳 입니다.
011-580-1407

토굴안내
● 위치 : 영천시 외곽 임법당, 방5개
● 가액 : 전세 (500만원에 월 10만원), 양도(2천5백만원)
010-8582-0551
011-427-295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초동면
● 신축사찰 235평, 법당 15평(기와),
● 요사채 18평, 배밭과 전망 좋은 신축사찰.
011-879-7551

포교원안내
● 위치 : 광명사거리 3번출구 20m
● 평수: 70평
● 임대보증금+시설비 4천5백만원(절충가능)
011-301-9627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시장 뒷길
● 평수: 약 60평 2층 방3, 3층방 1개
● 법당, 엠프 에어컨 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51)554-2406
011-843-2404

중국중의침구학강좌
중국자격증 학위취득을 위한 무료 세미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면 침구계(3년) 중의계(5년) 결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WTO개방에 대비하고 영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서비스와 해외이민시 병,의원 설립하여 창업을 위한 연수강좌 미국의 한의대(3년~4년)편입 할 수 있으며 NCCAOM고시에 응시할 자격 있습니다.
● 개강: 매주(화,목) 오전 11시 설명회 입회 (직장인 의료인: 매주(일) 오후2시)
● 제주 분원: 매주(토) 오후 2시
● 중국 연수: 수시(4박 5일) 정기(년 8차)
과목: 체침(전통침), 뜸, 부항, 이침, 양도락기, 건강(약용)식물관리, 활법, 피부관리, 비만침법, 미용침법, 식이요법
● 기본세미나: 16주 매주1회 11시~17시
중국 연수유학 전문 중국문화원
02)456-4248, 456-4249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출구

수능시험합격부적패션 출시
"경명주사"로 특수염색자수 하여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며 행운을 주는 패션제품
•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 제품 : 팬티, 손수건, 양말, 차량용 복주머니
선물용포장 017-533-1356 [특허출원]
유통사업관심계신 분 - 전화상담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자 [예비스님, 남 · 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남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탈종공고

● 주 지 : 명 진
● 사찰명 : 본원사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3-17
● 사찰명 : 자비사 포교원
● 소재지 : 경기 광명시 철산 4동 467-68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대한불교본원종에서 탈종을 공고함

대한불교본원종 총무원장 법하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무량사 1000일기도와 1000불 봉안 발원문

시방삼세 두루하신 부처님, 제 간절한 서원을 자비로써 가피하시고 증명하옵소서.

질병과 가난, 가정불화, 자녀문제, 사업관계, 직장관계, 불의의 사고 등 얽힌 업연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하여 동참 재자들과 업장소멸 참회정진 아미타 1000일 기도와 1000분의 부처님을 모셔 부처님의 가피로 현생에서 소원 성취되어 행복하고 회향공덕으로 선망부모, 조상님, 스승님, 친인척 인연있는 모든 영가 나와 가족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력의 배에 의지하여 극락왕생 성불을 발원합니다.

기도 동참자 분들께는 기도비가 완납되는 대로 한 분의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부처님으로 모셔지며 1000분의 동참 재자가 모이면 저절로 천불전은 완성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무량사에서 각 원 합장

■1000일기도 기간
입재식 : 2005년 11월 2일(음력 10월 초하루)
회향식 : 2008년 7월 1일
■1000일기도 동참금
월 2~3만원(총 72만원, 월납·분납·일시납 가능)
■동참 계좌번호
농협 601111-52-396120 예금주 : 최호석(각원)

뜻은 간절하나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도 동참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74-1번지 무량사
061)381-1151, 010-6734-7779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서울, 경기, 경남, 전남, 충남지역(시가 50억 전후)
매매물건 보유, 꼭 필요 하신분만 직접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며 대리상담은 사절합니다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부산큰사찰 급 구함
2. 대구목조사찰 500평-16억
3. 칠곡사찰 500평-1억3천5백
4. 경북관광사찰-12억
5. 평창3만평사찰-7억
6. 종로구 여법한사찰 30억
◆ 1억~10억 사찰, 사찰터 많음
※ 직원, 공양주, 기도스님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급)안내

● 위치: 양산시 웅상읍(일명 서창)
● 대지: 60평(평당 200만원 이상)
건물: 법당 30평, 요사 32평
칠성각 5평(신축 단청필)
● 가액: 2억6천(은행 9천포함)
● 특징: 부산시내버스 5개노선
울산시내버스 2개노선
신도시 요충지

011-868-5997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청주관광호텔앞
● 평수: 45평,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초불, 고급온돌
탱화 3점,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
● 몸만 오셔서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6-261-2068
043)268-4242

도심포교당안내

● 위치: 밀양시 교동
시청주변
● 대지: 310평
● 건물 3동, 3층건물 1동
단청 슬라브 기와 1동
별채 1동
● 가액: 6억 5천

010-4876-5535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영월
● 부지 : 만평
● 법당 : 25평
● 요사 : 100평
● 가액 : 6억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 위치: 상계역 2분거리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내 위치
● 2,3층사용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2층만 사용시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2층 40평 3층 20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시설완비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약간

02)952-8131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부근
● 땅 2,312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30평
행랑채, 차고, 물이 솟아 오름
● 가액 : 상담 후 결정

033)562-7053
011-9793-7052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 40평
● 전세금: 보증금 3천만 / 월 10만
시설비: 절충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51)317-0011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경계
● 건물(조립식)
대지 200평, 법당 25평
요사채 10평,
부속창고 20~30평
총 1600평
● 심야보일러 130m암반수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6-9559-888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거재동
● 부지: 천평
● 법당: 토목 공사완료
● 요사: 40평
● 양도가: 5억5천
● 산세 좋으며 바다바로앞임

● 위치: 경기도 이천
● 부지: 450평
● 법당: 30평
● 요새: 30평
● 양도가: 6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부근
천안시내에서 15분거리
● 평수: 대지 62평,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가액 : 6천 3백만원

011-209-5506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30평, 주지실, 사무실,
총 방5개, 참선방 4칸,주방, 욕실,
화장실 3개(실내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376평, 전: 156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전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
(지하철 광안역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 3층, 4층
3층 : 요사 30평(방4개, 주방)
다용도실 40평 (시민선방, 요가,
차(茶)실, 기타 다양하게
사용가능)
● 4층 : 법당 40평 (최고시설)

017-540-0568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옥천(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목조)
부속건물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
촌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완벽하게 가꾸어졌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근교
● 대지: 3천평
● 법당: 20평
● 요사: 20평
● 가액: 2억
● 산세좋은 수행도량 암자
차량진입 불사가능

● 위치: 밀양댐부근
● 대지: 1,000평
● 법당: 30평
● 요사: 25평
● 가액: 5억
● 산세 계곡 좋은 수행도량
여법한 단청법당

● 위치: 부산
● 대지: 2천평
● 법당: 30평
● 요사: 50평
● 가액: 15억
● 여법한 도심사찰
산아래 남향 전망만점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길부동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월천역에서 5분거리
● 평수 : 상가건물 53평,옥상 55평 사용가능
● 시설 : 삼존불 외 집기일체
주방, 화장실, 응접실, 방 2개
시설A급, 시장입구 주차장완비
● 아파트 주택 밀접지역.위치좋음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한 분 연락바람

017-508-2675

사찰 안내

●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9-1번지
● 실내평수 60평, 큰법당1,
큰방2, 거실1, 공양간1, 창고2,
화장실2, 옥상 60평 독점
● 가액: 1000만원에 월 60만원
또는 1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개인사정급매

010-7126-8340
032)519-1108

사찰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 부근3층건물의 2층
● 법당 23평, 전체 43평 방3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7188-5612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구성면
● 면적: 2만평
● 산세가 수려하고
둘로둘려싸인 팔각정
천하절경명산으로
소문난 명승고적지
● 가액: 2억6천만원

054)433-3533
011-9570-3533

사찰안내

● 위치 : 동해안 산세 수려한 명산자락임
● 부지: 종교 부지를 포함해서 1300평임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목조 주삼포건물
회관건물: 1층황토방겸, 공양간 2층 회관
요사채 현대식 스라브건물 주차장 완비
포장된 진입로 2곳 연수원 기도원 적합
● 가액: 답사 후 절충바람 장기 전세 가능

010-3660-286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 부지: 250평(종교용지)
● 법당: 35평(목조단청)
● 요사: 60평
● 기타: 산신각(목조), 석탑, 석등
● 가액: 7억9천만원
● 특징: 전통도심사찰임

● 위치: 경남 사천시 소재
● 부지: 10000평
● 법당: 30평
● 요사: 50평
● 기타 산신각등
● 가액: 2억9천만원
● 특징: 계곡과 산새가 어우러진 청정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군위 우보
● 평수 169평
● 가액: 3천8백만원
● 배산임수 명당절터
마을맨 끝집

011-9585-4908
054)383-8553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 평수: 860평
건평: 30평
● 조경완벽 앞에
바다 뒤는 산
● 가액: 1억3천만원

010-4571-012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인천지역
● 평수: 30평, 3층건물 3층
● 옥상 50평 사용가능
법당, 방, 베란다, 후원 완벽함
● 주변에 절이 없으며
약 10만세대 입주예정
포구에서는 배 300척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됨

010-7181-7569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0평
● 가액 8천5백만원(절충가)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가액 : 500만원에 월35만원(절충가)

010-4841-3499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042)274-0108

사 찰 안 내

포교당(굿당)
● 위치:지리산 요지
(산청군)
● 건물 300평 매매
● 가액:2억6천3백

017-592-3902

토굴(급)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 대지400평, 등기 200평
법당20평, 요사채 100평
(방2, 사랑채1)
● 집기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절충가능)

031-531-6918
010-7474-01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 2층 법당 44평
3층 후원 41평
총 85평
● 가액: 전세 2억
시설비, 권리금 없음

011-9912-757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 대지 : 300평
건물 : 법당1동, 요사채2동
다용도 40평
● 특징 : 남산 제1봉, 등산로 입구
● 가액 : 보증금 300만원,월10만원
비품시설 8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010-5514-2412
055)931-7280

토굴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 대지 200평(텃밭 포함)
건물 3채, 45평(임법당),
요사채, 후원(창고)
● 가액: 4천만원
● 기도와 수행에 뜻을 두신분

017-401-4939
063)631-8439

포교원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내
3층건물중 3층
● 옥상 및 휴게실 사용
● 평수50평 법당, 상담실,
삼성각, 대중방 시설완비
● 가액: 전세 2천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679-10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내.
대구, 왜관에서 15분 거리
● 대지(논 같이있음)416평-실제사용600여평
● 대웅전,삼존불,요사채3동 화장실,세면실
주차장 완비
난방시설 : 심야전기보일러 36평2개
● 중계업자 일체사양, 직접운영하실
스님만 전화요망 ※스님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5천만원

010-3542-3203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부근
● 평수 : 대지 300평,
건물 60평
● 잔디정원, 고급주택형,
● 교통은 시내에서 1분거리
● 가액 : 3억(절충가능)

011-411-0503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 가옥: 신축 황토기와집
● 가액: 5억5천만원(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집
주인이 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사찰안내

● 위치: 경주시 현곡면 상구1리
● 2층 24평 법당
1층 요사채
별도 요사채 1동, 산신각
● 총평수 120평
● 가액: 9500만원

011-544-977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108평 건평 42평
●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시합니다
● 가액: 6900만원
시설 완벽

018-683-3355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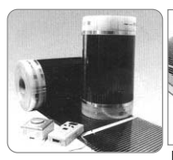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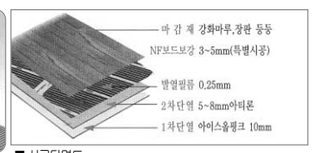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 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
● 특징 : 남향, 전망좋음

010-3542-320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중구 동인동
● 건물: 한옥31평(주택 사용가능)
● 가액: 5700만원
(3000만원 융자)
인수금 2700만원
● 답사후 가액 절충可

053)625-3372
016-383-7255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 평수 60평(엘리베이터 有)
● 내장 한옥집, 게르마늄
맥반석 온돌방 5개(법당 20평)
● 가액: 상담후가격결정

011-9193-2351
0502-888-0119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내
● 2층건물에 2층
22평 법당, 후원
옥상 9평 방2개 세면장
● 가액: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2)292-3131
010-9858-1714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상인동
2층 총 70평
● 법당, 방2개, 식당, 화장실
시설비 2300만원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011-814-9010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도 여주 전동면
덕평 2리
● 사찰부지: 1270평 대지 100평
건물 법당 16평 요사 53평
● 심야전기 130m 지하약수
대도로에서 400m
● 가액: 2억6천만원

031)881-0968
011-739-0968

사찰 겸 포교당 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연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1개,큰방2개,거실,욕실,
도시가스(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법단2단 목조각
● 가액: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주차가능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
(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4억3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
(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일산 신도시
● 평수: 약 120평
● 시설: 법당 60평 A급(앰프시설완비)
요사 60평(주지실 종무실, 총무실,
공양간, 대중방, 욕실, 화장실2,
방6개 등)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스님 건강 문제로 급 양도함
● 현재 불자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스님을 원함

011-369-6793

토굴(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33
● 대지: 260평 건평 30평외
부속건물 2동, 인법당외 방4개
기와지붕슬라브, 지하수
아미타불, 후불탱, 신중탱, 칠성탱
● 차량 주차可, 연못, 텃밭, 경관수려
● 가액: 1억5천(신건축 3년)

041)834-0206
010-9408-0055
011-792-691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문현로터리
5층건물 중 3층
● 법당 20평, 방2개, 입식 주방
● 즉시 법회 가능
(지하철 5분거리, 위치 좋음)
● 가액 : 500만원에 월30만원
이사관계로 급히 안내,
보살님이 오셔도 좋습니다

019-513-2524

경주 남산 불법 묘지로 몸살

유적지내 1200여기 분포, 매년 100여기 늘어

절터 · 석탑 주변에 집중 … 유구 훼손 우려

신라인의 불심이 깃든 불국토로 사랑받는 세계문화유산 경주남산이 민묘(民墓)로 뒤덮여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남산에 현재 2만여 기의 민묘가 들어서 있고, 그 가운데 유적지 내에 분포한 무덤만도 1206기나 된다"며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국립공원이며 사적 제311호로 지정돼 있는 남산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법행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적지 내 현상변경은 금지돼 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민묘는 해방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근래에도 매년 100여기씩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민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환대 경주문화유적답사회장은 "무덤은 이미 경주남산의 익숙한 풍경이 됐다"며 "특히 배리삼존불 인근 지역은 공동묘지처럼 보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봉분이 오래돼 가라앉아서 외관상 무덤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아 사실상 통계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경주남산 장창곡 삼화령 미륵삼존불 출토지에 만들어진 민묘. 사진제공=박형준 의원실

▌경관뿐 아니라 문화재 훼손 우려 커

박 의원에 의하면 경주남산 민묘의 전체 면적은 8.4㎢에 달한다. 경주 남산의 2%에 달하는 면적으로, 경주남산의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묘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이다. 경주남산이 명산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좋은 터'는 옛 절터와 일치하기 마련. 중요한 사적인 절터나 석탑 주변에 민묘가 집중 분포돼 있다.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1~2m 깊이로 땅을 파헤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묘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구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조계종문화유산발굴단(단장 탁연) 한 관계자는 "경주 남산처럼 문화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했던 곳은 표토만 걷어내도 유구가 나올 수 있다"며 "시신을 매장하는 과정에서 유구가 파손될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간 100여기에 달하는 새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굴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경주시 한 관계자는 "지금의 인력과 예산으로 남산의 넓은 지역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

경주남산의 민묘 문제에 대한 해법은 기존 분묘를 이장하고,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새 묘지가 조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국 많은 비용이 들어, 결국은 예산문제로 귀결된다.

경주남산에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달해 도유림보다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유지의 민묘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통해 사유림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도유림에 있는 민묘의 경우에도 이장이 쉽지않기는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이장 결정이 나더라도 무덤 주인공의 후손들이 스스로 이장하지 않는 한, 1기당 300~500만원에 달하는 이장 경비를 경주시가 떠안게 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야간 암매장을 막는 것도 문제다. 박형준 의원에 따르면 경주사적관리인원은 총 20여명. 이 가운데 남산 전담인원은 환경미화원 4명과 순찰직원 3명뿐이어서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불가능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윤형원 학예연구실장은 "조상 묘에 대한 민족적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경주남산의 분묘문제를 짧은 시일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금강산 신계사 상징 제 모습 되찾다

지난해 해체한 삼층석탑

보존처리 거쳐 조립완료

전쟁으로 폐허가 된 금강산 신계사 터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삼층석탑의 해체 · 보수가 완료돼 안정을 되찾았다.

금강산신계사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종성 · 이하 복원추진위)는 2004년 8월 해체한 신계사삼층석탑을 지난 9월 29일 조립에 착수, 10월 5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해체 · 보수는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해체 전 원형을 유지하여 보수하되, 부재가 결실돼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계사 주변의 석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모든 공정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김홍식 전문위원의 감독 하에 진행됐으며, 총무원 사회부와 문화부가 기록을 맡았다.

신계사삼층석탑은 나말여초 건립된 탑으로, 전쟁과 긴 세월의 풍상으로 상륜부가 결실되고 옥개석이 파손됐으며, 기단의 갑석이 내려앉는 등 붕괴위험에 처해 있었다.





신계사 삼층석탑 수리전(왼쪽)과 수리후 모습.

이에 신계사 복원불사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체돼, 탑지발굴 · 보존처리 · 석탑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어느정도 제 모습을 되찾게 됐다.

복원추진위는 "11월초 추가로 보전처리를 실시하고 남북관계자 협의를 통해 파손이 심한 부재에 대한 추가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계사삼층석탑은 하층기단에 8위의 비천상이, 상층기단에는 팔부중상이 조각돼 있는 전형적인 중층기단의 삼층석탑으로, 9세기 유행한 양식을 띠고 있다. 발굴조사결과, 이 탑은 조선시대 후기 현재의 자리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8>

16G 낸드플래시

광활한 우주만큼 복잡한 세포세계

간단해 보이는 전자 역시 알쏭달쏭

최근 한국의 반도체 회사에서 16G(기가) 낸드플래시(NAND Flash)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1G가 10의 약 9승, 즉 10억 제곱을 나타내므로 손톱크기의 반도체 칩에 160억 개의 비트(1혹은 0) 정보를 기억시킬 수 있는 셈이다. 한 개의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8개의 비트를 사용하므로 대략 20억 개의 글자를 저장할 수 있다. 신문 한 장이 약 만자를 담을 수 있다면, 신문 약 20만장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참으로 놀라운 저장 능력이 아닐 수 없다.

DRAM과 같은 기억 칩과는 다르게,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을 꺼도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다. 따라서 배터리가 다 닳아도 정보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최근 디지털카메라나 MP3플레이어와 같은 음악저장 매체가 유행하면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낸드는 기억시키는 회로를 배열하는 방법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플래시는 정보를 지울 때, 마치 플래시 카메라를 터뜨리듯이 한 번에 다 지워버린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금강경>에는 '항하사와 같은 수만큼 많은 삼천 대천세계'라는 표현이 나온다. 삼천 대천세계가 우주를 표현한 것이므로, 갠지스 강에 있는 모래 수만큼 많은 우주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존재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있다.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먼지들을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그 먼지는 우주의 별 보다도 많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분자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분자는 더 작은 원자, 원자는 전자와 핵, 그리고 핵 또한 수 많은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립자가 보여주는 자취일 뿐이다. 수 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신호를 전달하고, 외부의 병원균에 대응하는 세포가 우주라고 할 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세포들 간의 영향을 미치는 분자수준의 생화학적 현상이 우주보다도 더 복잡하고 오묘하다는 데 놀라고 있다. 마치 먼지와 같은 항하사에 우주가 있는 것처럼.

낸드플래시 기억장치 또한 하나의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를 사용한다. 전자를 트랜지스터에 저장하면,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므로 이 변화 정도를 외부로 읽어내는 것이다. 간단하게 보이는 전자 또한 정확하게 어떤 놈인지 알 수 없다. 과학자들은 그저 음전하를 가지는 단위 입자라는 것을 알 뿐이다. 100년 전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전자가 어떨 때는 파동과 같이 행동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알갱이와 같이 행동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존재를 이용해서 반도체 칩은 기억을 시키는 것이다.

가끔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고 연민에 빠지게 될 때, 번뇌라는 느낌 또한 우주보다도 복잡한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오묘한 이치를 이해하도록 하자. 번뇌가 곧 불성이라는 옛 마스터들의



그림 : 문병성

불기 2549(2005)년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낙성법회, 제2회 국제학술대회, 집중수련회 안내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는 강서구 가양동 법당 낙성법회와 제 2회 근본불교 국제학술대회 및 집중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낙성법회와 함께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와 집중수련회는 학문적인 연구와 실제적인 수행을 함께 마련하여,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호흡관 수행의 이론과 실천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아 래 -

1. 근본불교 수행도량 홍원사 가양동 법당 낙성법회

▣ 1부 낙성법회
2005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12시
▣ 2부 경로잔치 및 축하공연 ■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스님들로 구성된 악단)
▣ 3부 영 산 재 ■ 오후 4시 30분 ~ 8시 30분
주지 동주스님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지정 기념 법회

※ 금번 홍원사 모든 행사에는 객 스님의 여비 보시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제2회 근본불교 수행도량 국제학술대회

1)학술대회 주제 : 「입출식념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2)개최 일시 : 2005. 10. 30 (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30분
3)개최 장소 :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가양동)
4)학술대회 일정
오전(10시 - 12시)
기조법문 : 반테 구나라타나 스님(스리랑카)
특별 수행법문 : 파욱 사야도(미얀마) - 호흡관 수행법
오후(1시 - 6시 30분)
◇ 발표자 : 3명
발표 1: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 「입출식념경」에 나타난 수행법
발표 2: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교 교수) : 「입출식념경」 주석서에 대한 이해
발표 3:산티카로법사(Liberation Park 지도법사, 시카고) : 연기법에 비추어본 입출식념 수행법
◇ 논평자 : 3명
재연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감)
일중스님(델리대학박사과정)
임승택(경북대 교수)
◇ 종합토론
회향식 인사말 학술대회 운영위원장 (성오스님)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전 화 : 02-2658-3100 전송 : 02-2063-3344
홈페이지 : www.santisukha.org 한글도메인: 근본불교 홍원사

3. 입출식념(호흡관)을 중심으로 한 집중수련회 일정

※1차 스리랑카 반테 구나라타나 스님 지도(성오스님 수행진행)
2005년 10월 20일 (목) - 26일(수) (6박 7일)
※2차 미얀마 파욱 사야도 (지산스님 수행지도)
2005년 10월 30일(일) - 11월 3일(목) (4박 5일)
※3차 미국 산티카로 법사 (태국 붓다다사 스님의 제자)
2005년 11월 4일(금) - 11월 7일(월) (3박 4일)

◇ 참가인원 및 수련회비
1차-총 100명 (숙식 남녀 각 20명씩 포함) 출퇴근 10만원 (숙식자 20만원)
2차-총 100명 (숙식 남녀 각 20명씩 포함) 출퇴근 8만원 (숙식자 12만원)
3차-총 100명 (숙식 남녀 각 20명씩 포함) 출퇴근 6만원 (숙식자 10만원)

◇ 집중수련회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05년 9월 20일 - 10월 15일
▣ 수련회 접수 : (우)157-801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 전화 : 02-2658-3100 전송 : 02-2063-3344
참가회비 입금 계좌 제일은행 352-20-338066 예금주 : 이 조원

※수련회는 수련회비 입금 순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전화나 우편으로 참석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후,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수련회비를 송금하셔야 최종 접수됩니다.
온라인 송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신청 후 취소를 할 경우, 10월 15일까지 취소한 분에게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는 수련회비가 환불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주문



은해사 1196주년 개산대재 봉행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10월 8일 개산조 혜철 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를, 9일 창건 1196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제5회 전국불교음악제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삼보불교음악협회와 함께 10월 8일 청운교 백운교 앞 특설무대에서 제5회 전국불교음악제를 개최했다.



총지종 제66회 추계강공회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정사는 10월 18~20일 서울 총지사에서 내년 사업안 등을 심의하는 제66회 추계강공회를 개최한다.



승가원에 복지타운 건립금 전달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10월 4일 운문사 스님들과 함께 승가원에 자비복지타운 건립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학부모 위한 학업성취 특강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10월 19일과 11월 2일 오후 3시 30분 대웅전에서 '입시생 학부모를 위한 학업성취 특강'을 개최한다.



영남불교대학 약사여래불 점안식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0월 10일 3층 법당에서 약사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군위 불교교양대학 개강

군위불교교양대학장 범수 스님은 10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군위노인회관에서 3개월 과정 불교교양대학을 개강한다.(011)844-0108



진도 쌍계사 국화축제 및 전시회

진도 쌍계사 주지 진현 스님은 10월 29일 '쌍계사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국화전시회는 11월 20일까지 열린다.(061)542-1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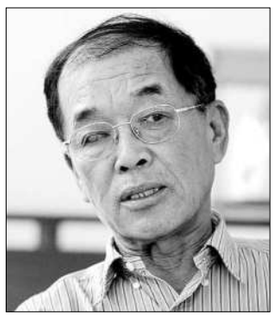
대광맹인불자회 창립 14돌 법회

대구 대광맹인불자회 이재달 회장은 10월 21일 오후 2시 동화사 통일약사대불전에서 창립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53)256-0114

이전 '천태종보'는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번지 운현궁 SK HUB 오피스텔 B동 307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공식적인 업무는 10월 17일부터 시작했다. '천태종보'는 또 11월부터 제호를 '금강불교신문'으로 변경한다.(02)723-1548

"밀랍주조공법으로 원형 복원 노력"

낙산사 동종 복원 맡은 원광식 주철장



"낙산사 동종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덕대왕신종 복원 경험이 있는 성종사 원광식 대표(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 사진)가 지난 4월 화마로 소실된 낙산사 동종을 복원한다.

원 대표가 강원도 양양군으로부터 동종 복원 담당으로 선정된 것은 9월 23일. 실측 자료와 탁본 등을 수집해 첫 자문회의를 준비했다. 10월 12일 열린 자문회의에는 원광식 대표 외에 낙산사 동종의 탁본을 뜬 직지사 흥선 스님, 보존처리 전문가,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청 · 양양군 관계자, 음향학 · 주물 · 미술 전공 교수 등 10여명의 전문가가 동참해 낙산사 동종 복원에 대해 논의했다.

원 대표는 "첫 자문회의에서 전통 주조 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낙산사 동종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며 "복원을 하는 종은 모양, 문양 등을 기존의 동종과 똑같이 하면서 구성 성분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탄 자국이나 이동하면서 긁힌 자국 등은 복원에서 제외됐다. 다음 자문회의는 실측 자료와 탁본 등을 토대로 2차원, 3차원 도면 작업을 마친 연말이나 내년 초 개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자문회의에서 도면 수정을 거쳐 바로 동종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는 원광식 대표는 "내년 5월 30일 완성을 목표로 일정이 촉박하지만 제대로 된 동종을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열정을 드러냈다. **강지연 기자**

몽골에 대불 건립 세계평화훈장 받아

금강선원 이사장 활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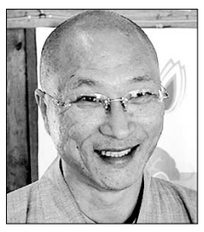
"부끄럽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몽골 정부에서 큰 상을 주셨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 불교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몽골 국립공원 내 쟈이산에 대불을 봉안, 한국과 몽골 불교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10월 5일 몽골 정부로부터 세계평화훈장을 받은 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 활안 스님(사진)은 몽골불교 중흥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활안 스님이 몽골 국립공원에 세운 대불은 높이 18m로, 이 대불 안에는 몽골 전통 대강경을 비롯해 많은 몽골 불교 유산이 소장돼 있다. 지난 9월 6일 몽골 국회는 이곳에 소장된 몽골 대장경을 문화재로 지정했다. **한명우 기자**

작년엔 골수 · 장기기증 올핸 시신기증 서약

선암사 사무장 지홍 스님



"중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불법을 실천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오히려 고마울 따름입니다"

10월 10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자비희사의 날' 행사에서 사후 시신기증을 서약한 지홍 스님(선암사 사무장 · 사진)은 "수행자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남에게 알려질까 손사래를 쳤다. 지난해 이곳 선암사에서 출가한 지홍 스님은 "28기 수계산림 내내 '놓고 또 놓자'를 화두로 행자생활을 하던 중 골수 및 장기기증을 하게 됐다"며 "금년에 시신기증이 추가되어 초발심으로 돌아가 함께 동참하게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홍 스님이 약속한 골수 및 장기기증은 '생존시 장기를 나누겠다'는 서약으로 쉽지않은 결정이다. 속가 친척이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끝내 사망한 것이 출가인연이었다는 스님은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은 불자의 큰 실천행으로 다같이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마음의 평화 위해 출가했어요"

태고종 스님 된 하버드대 출신 대일 스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10월 14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제29기 합동득도수계산림 수계식에서 계를 받은 대일 스님(데이비드 쥬니가 · 사진).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대일 스님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불교상담심리를 전공하고, 텍사스 오스틴의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심리상담을 해주고 있다.

대일 스님은 "이번 행자교육을 통해 영적인 변화를 느끼는 놀라운 경험에 스스로 감동했다"며 "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동국대 일산병원 아미타불 점안법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지하 1층 미타전 아미타불 봉안식과 5층 약사전 후불탱화 점안식이 10월 10일 봉행됐다.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을 증명법사로, 고양시 장안사 스님들이 집전한 이날 법회에는 이석현 일산병원장과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입원 환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언론사불자련 마곡사서 템플스테이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이연재)는 10월 8~9일 공주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 행사를 열었다. KBS와 MBC 불교연구회, 경향신문 불자회의 50여 참가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아침 예불을 비롯해 산사에서의 일상을 통해 보다 나은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청불회 제선 스님 법사로 정기법회



청와대불자회(회장 김병준)는 10월 12일 본사 법당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열었다. 법사로 초청된 경주 천주암 주지 제선 스님은 "마음 가운데 진심과 망심이 함께 존재하는데, 망심을 놓고 진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림 스님 '소통 · 참여…' 전시회 개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기금 마련을 위한 '소통 · 참여 · 그리고 나눔…' 전시회가 10월 12일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개막됐다. 실천승가회 의장 효림 스님 등이 마련한 전시회의 수익금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청원 석문사 제2회 경로잔치



청원 호국불교효예종 석문사(주지 혜전)는 10월 9일 남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네 어른들을 초청해 '제2회 석문사 경로잔치'를 열었다. 500여명의 지역 노인들이 참석한 경로잔치에서 혜전 스님은 "오늘 하루라도 바쁜 농사일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웅전 확장 중건 대작불사 모연문

가을 단풍색이 아름답군요.
모든 불자님 성불합시다.
이곳 왕룡사원이 있는 산은 형산이라고 하며 법당 뒤 바위는 용의 머리이고 그 용의 머리 숨골에 산신각을 모셨습니다.
포항 쪽 동해안의 최고 명산으로 천 년 전부터 기도를 하면 소원을 이루어 집니다.
법당이 10평정도로 협소하고 세월의 풍랑 속에 많이 훼손되어 37평으로 확장 대작불사를 몇 년 전부터 시작하여 드디어 주측돌도 놓고 목재를 다듬었지만 재정이 부족하여 대작불사 모연을 하고자 합니다. 대명산 천년기도도량에 보시하신다면 크나큰 공덕이 될것으로 믿고 권하옵니다. 십시일반으로 만원, 이만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성을 바친다면 불자님들은 무량한 공덕의 인연을 심게 되시고 당사 법당의 불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래 통장번호로 입금 하시면 됩니다.
농 협 721082-52-143499
우 체 국 702373-02-003980
조흥은행 804-06-610190
◇예금주 : 윤시연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149-1
왕룡사원 원장 구암 윤시연 · 신도회 화장 대승 전달선 합장

제6회 꿈과 의식 연구생모집

꿈이 꾸는 마음(6, 7, 8의식)을 불교적 해석과 꿈의 상징언어를 해석하여 심리분석은 물론 미래예지의 신비한 비밀 원리를 강의와 연구 토론 합니다.

● **일 시 :** 제6회 개강 2005년 10월 27일 (양력) 목요일 오후 2시
<강의 :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강의>
<현재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2회 연구반 강의중>

● **강 사 :** 현오스님(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전생 저자)

● **장 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193-21 지하철 3호선 매봉역 1번출구
● **참가비용 :** 교재포함 13회 참가비 12만원
● **동참문의 :** 02)576-1462

대 지 불 교 심 리 학 연 구 소



불자 세상보기

김 의 석
동국대 의대 교수

조류독감 공포, 해답은?

2004년 초에 국내 축산농가에서 조류독감이 유행하였을 때에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조류독감은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공언하였던 정부가 조류독감주의보를 발령하면서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유행할 경우에 우리나라 인구의 30%인 1,500만 명이 감염되고 그 중 44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조류독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독감은 예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왔다.

1173년에 유럽에서 독감이 유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1918년에 전 세계적으로 2,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독감의 원인바이러스를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후 10년 내지 40년의 주기로 세계적인 독감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마지막 대유행은 1977년에 있었다. 이런 대유행 사이에도 소유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국내에서도 매년 겨울철이면 독감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로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밝혀져 있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황인종 중 한국인과 일본인이 다르듯이 매년 조금씩 변화하면서 끊이지 않고 독감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이 독감에 걸리거나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게 되어서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성격이 약간 변해도 아주 큰 유행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종이 바뀔 정도의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대유행과 함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조류독감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새들에게 유행하는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34명이 조류독감에 걸려서 그 중 23명이 사망하였다. 조류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닭이나 오리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등 가금류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 따라서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일반인들이 음식 등을 통해서 조류독감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내에서도 2004년 초에 조류독감이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나 사람이 감염된 경우는 공식적으로 없었다. 조류독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점은 우리가 닭고기를 먹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1918년에 세계적으로 큰 재앙을 가져왔던 스페인독감처럼 인류를 위협할 돌연변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조류독감주의보가 발령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반인들은 외출 후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지키면 충분하다. 대중매체를 통해 조류독감 유행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그 지역에서 가금류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재 접종 중인 독감예방접종이 조류독감을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 의료 종사자의 경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다. 겨울철에 독감과 조류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게 될 때에 두 질환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만나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조류독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공연히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기피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많은 돈이 드는 일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조류독감 백신개발, 예방 및 치료 약제 확보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청정선거'를 기대한다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다르다. 종회 계파를 초월하여 화합 속에서 선거를 치르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벌어지던 과열, 혼탁의 분위기가 종단의 위상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엄정한 시각에서 보면 승가에서 화합을 말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승가란 말 자체가 화합중(和合衆) · 화합승(和合僧)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화합은 승가 본연의 모습이다. 조계종은 지금 그 잃어버린 과거를 미래상으로 그려가고 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합의 추대' 움직임이 활발한 것도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추대와 경선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식일까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일 정도다. 과연 무엇이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양자택일이 핵심 과제일 수는 없다. 미리 결론 삼아 말하자면, 어떤 방식이든 부처님 법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으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합의는 야합과 근친관계이기 쉽고, 경선도 합법적 배타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갈등의 소지는 안고 있다.

중요한건 선거 과정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화합과 청정이라는 승가 본연의 모습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다. 세속적 의미의 공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제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실 종단의 중진급 스님이면 누구나 총무원장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를 목표지향으로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 목표는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원적(圓寂)이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 장기 기증과 보험의 수혜자가 조계종 복지재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의 국민적 감동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상의 아픔에 가장 민감하고 또한 의연한 그런 어른을 갈망하고 있다.

앞으로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시대의 사표여야 한다.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여야 하고 희망의 메신저여야 한다. 누가 되든지 이런 일을 할 어른을 모신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한다면, 종단화합은 물론이요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윤제학(아동문학가)

이렇게 들었다 침묵

"형벌을 통해 범죄를 막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농사와 가축 기르기에 열심인 자에게는 씨앗과 사료를 지급해야 하고, 상업에 열심인 자에게는 자금을 지급하고, 관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에 합당한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 〈아함경〉

'6 · 25 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조계종 종립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기고문 중 일부 표현이 석 달째 우리 사회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 7월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6 · 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정 · 재계로 이념적 논쟁이 불이 붙었다.

특히 김상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과 시장경제 이념이 뿌리내리기 위해 앞으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대학수업 내용 등을 참고하도록 경제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강 교수를 면직시키고 싶지만 현행 교육법상으로 걸려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이 문제는 다시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하지만 지난 석 달 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불교계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불교계 대학의 한 교수가 학자적 소신 때문에 철창에 갇힐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동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파키스탄 지진피해에 관심을

파키스탄 동북부 인도 국경 인근에서 10월 8일 오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 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엄청난 자연재난을 당한 파키스탄으로부터 전해지는 피해규모에 입을 다물 수 없다.

이러한 때에 종교계가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파키스탄 돕기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정토회가 먼저 11일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을 급파해 파키스탄 피해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 사업을 시작한것과, 잇따라 조계종도 선발대를 보내 구호활동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종교와 이념의 경계를 넘어선 국제사회의 원조는 세계적 · 보편적 흐름이 됐다. 각국이 재난 구조와 복구 지원에 국경을 초월해 나서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대승보살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면서, 지구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파키스탄 지진피해자들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사)한국제이티에스 김경희(한국JTS 사무국장)

승려교육은 '선교육 후득도'로

'현대불교' 547호 특집 '불자청정성' 기사 가운데 교육문제를 짚은 기사를 보면서 상당한 공감을 했다.

현재와 같은 한국불교의 절충식 '선득도 후교육' 체계는 문제점이 참으로 많다. 먼저 계를 주고 나중에 계를 주는 일은 부처님 당시에는 가능했던 일이다. 왜냐면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방법을 답습하는 제도는 시대적인 착오다. 다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은 철저한 교육 후에 성직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최소 6~8년 교육기간을 거친다.

이에 비해 조계종 6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 일단 스님이란 호칭을 받는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소한 6년 정도는 마치고 스님 호칭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세상과 동떨어져 중생을 구제할 힘을 갖추지 못하면 타 종교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조계종 승려(붓다뉴스)

'짠지' 포교 그만 하길…

얼마 전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대구 팔공산으로 참배기도를 갔다. 간만에 속진을 씻을 겸 바로 아래 있는 사찰의 요사에 잠자리를 마련해 한 참을 곤하게 자는데, 누군가 불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험한 소리로 고성을 질러 잠을 설쳤다. 소리를 들어보니 신도들이 잠을 자는 객방에 불을 안 넣어 주는 사중을 향한 화풀이였다.

한참 후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아침 공양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찬으로 나온 짠지가 그냥 짠지가 아니라 소태덩어리였다. 짠지와 실망을 반찬 삼아 밥 한 그릇을 먹으며 간밤에 방에 불 안 넣어준다며 난리친 옆방 일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절의 인심이 어딘가 모르게 검약이 아닌 인색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그 절은 한국에서도 가장 많은 불자들이 찾는다는 명찰인데도 말이다.

지금은 유교가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시대도 아닌데 불자들이 탄식 같은 이런 소리를 신문 기고란에 기고를 해야 하는가 하는 망설임도 있었다. 현대 사회는 구휼대상의 백성도 없고 경제발전의 힘을 얻어 밥술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 자체를 따지는 시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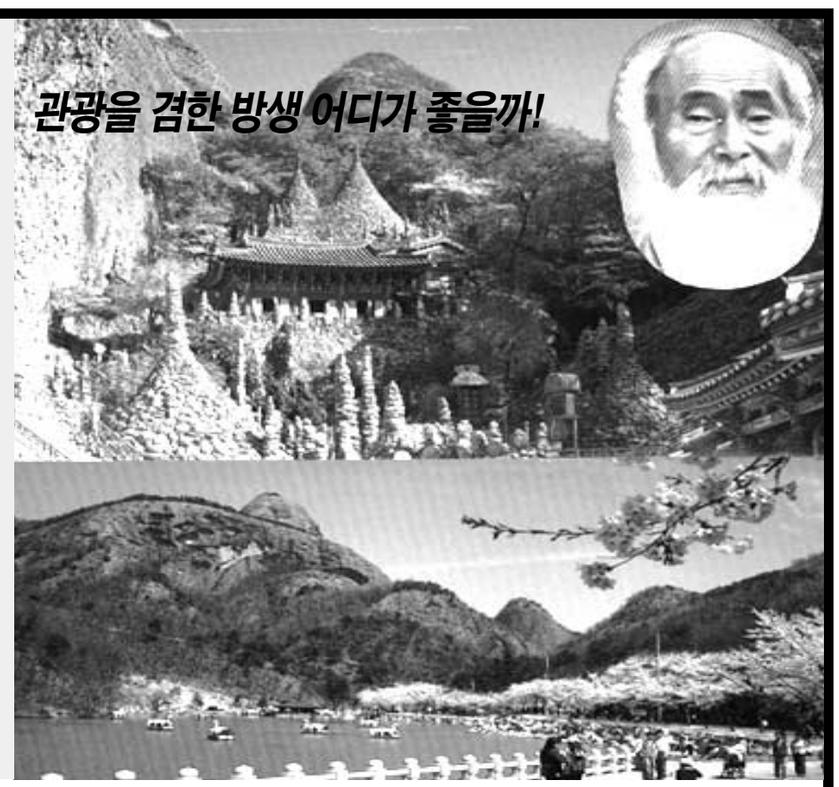
이제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사찰 운영이 따랐으면 한다. 이웃종교인 기독교도 선교를 할 때만큼은 아낌없이 돈을 쓴다. 불교는 보시를 들고 찾아오는 불자들에게조차 '무(無)대접'이라는 말이 생각나 불자로서 씁쓸한 마음이 앞섰다.

불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사찰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극기훈련(?) 같은 현실을 그대로 고집할지 안타깝다.

리우상(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현대'만평 심 민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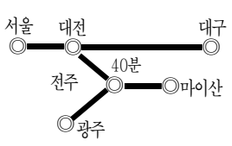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2005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4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4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005년 12월 4일(일) 오후 1시 ~ 오후 6시
(필기시험 및 면접)

· 2005년 10월 20일(목) ~ 11월 10일(목)

· 종로행정고시학원(서울 종로구 조계사입구, 제일은행 본점 뒷편)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첩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진 4매(반명함판)

· 응시료 60,000원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학교별 일괄접수

· 서류전형 →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2006년 1월 10일(개별및 학교별 통지)

연합회 사무국 TEL 02)734-9595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

Festival

희망의 빛으로, 아름다운 연주로 –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불꽃도, 아름다운 음악도 모두가 함께 나눌 때 더 큰 희망이 됩니다.
포스코는 음악회 개최, 갤러리 운영, 불빛 축제 등을 통해
모두가 밝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매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불빛 축제 개최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발
근년새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대학 순회 공연


미술관 운영
포스코센터 미술관, 포항 포스코 갤러리 운영


포스코 음악회
90년부터 매월 지역주민 대상 음악회 개최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20년간 피를 나누는 일을 최우선으로 살아온 손홍식씨. 오늘도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성분헌혈을 위해 헌혈대에 누웠다.

국내 최다 헌혈 기록 보유자

손홍식

향기 도반의

헌혈로 남도 돕고 건강도 챙깁니다

22년간 460여회 헌혈, 국내 최다
건강한 피 위해 담배 '일체 사절'
카운슬링 자격증 따고 홍보에 앞장
장기기증도 참여 생명나눔 생활화

"헌혈은 이웃사랑을 위한 국민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건강한 이 나라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한적십자 창설 100주년이 되는 10월 27일을 앞두고 만난 손홍식씨(56). 22년 동안 460회가 넘게 헌혈한 우리나라 최다 헌혈 기록 보유자다. 올해 6월, 30년간의 통계청 공직생활에서 정년퇴임한 후 자칭 헌혈 홍보대사로 나선 손씨가 헌혈을 시작한 것은 만 34세가 되던 해였다. "나는 건강하니까 누군가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나 자신을 나누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첫 헌혈 이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가볍게 생각했던 헌혈은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면 내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두 달에 한 번 가능했던 헌혈을 10회 정도 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정기적으로 하는 헌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성분헌혈 기법이 도입된 후 손씨는 좀더 자주 할 수 있는 성분헌혈을 시작했다. 성분헌혈은 일반 헌혈과 달리 혈액 가운데 혈소판 또는 혈장만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혈액은 생명입니다. 내가 나눠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다는 절박함으로 헌혈합니다. 거기다 혈액은 35일이 지나면 폐기처분됩니다. 지속적으로 헌혈하지 않으면 언제나 혈액 부족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손씨가 격주로 해온 헌혈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인의식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쌓아온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실천행이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보니 어느덧 460회가 넘게 주사바늘에 찔려 혈액을 나눠준 그의 혈관은 딱딱하게 굳었다. 헌혈할 때마다 주사바늘 찔린 곳을 찾는데도 한참 걸린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모든 생활의 중심을 '헌혈'에 맞췄다.

좀더 건강한 피를 나눠주기 위해 건강유지에도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기운동을 하며 신체의 균형을 잡았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었다.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 균형이 깨져 혈액이 묽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몸을 만들어 2주에 한 번 헌혈하는 날이 되면 손씨는 만사를 제쳐놓고 헌혈로 하루를 시작한다.

"헌혈하면 피를 뽑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기 건강 측정의 척도 역할을 합니다. 헌혈하면 간 기능 수치 혈압 맥박 등 기본 건강검진이 다 되지요. 남도 돕고 내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늘 혈액이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이 손씨는 안타깝다. 그래서 더더욱 헌혈 홍보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 '헌혈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연을 한다. 초 · 중 · 고등학교, 각종 관공서, 사회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강연했다. 헌혈의 중요성을 좀더 다양하게 알리기 위해 청소년 카운슬링 자격증도 획득했다.

'나'를 묵묵히 나눠온 이런 손씨의 삶은 사회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94년 하반기에 '신한국인' 패, 98년 한국전력과 MBC가 주관하는 '좋은 한국인' 대상의 본상, 2003년 '광주시민대상'의 사회봉사 부문, 목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헌혈체험 수기 공모에도 두 번이나 당선됐다. 이런 수상경력도 손씨에게는 자랑거리 이전에 단지 '헌혈 홍보 수단'일 뿐이다.

평소 손씨는 명상을 통해 자신을 컨트롤한다. 헌혈을 하는 30여분동안에도 영락없이 명상에 빠져든다. 헌혈을 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추스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손씨에게 헌혈은 나눔이자 자기 성찰의 기회이다.

손홍식씨가 실천한 나눔은 헌혈뿐이 아니다. 94년에는 신장을 기증했다. 장기 기증자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병원 직원들한테도 모자란 사람 취급받았어요. 장기매매는 아닌지 의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 남에게 자신의 신장을 한쪽 떼어 내줬다. 자신의 생명을 나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린 것이다.

처음 가족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는 부인이 이혼을 거론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장기기증단체에서 오는 우편물은 다 숨길 정도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누고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보호자 사인도 부인이 해주지 않아 스스로 했다. 나중에서야 초등학교 6학년이던 막내아들이 엄마를 설득해 장기기증에 대해 이해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2002년 간 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는 부인도 수긍했다. 기증수술 후 큰 딸은 묵묵히 간병을 자청했다. 서울 아산병원 장기이식팀에서 정해준 간경화로 위독했던 중년여인에게 간을 기증했다. 당시 그녀는 사위와 손씨에게 반반씩 간을 기증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금도 가끔 충주에 사는 수혜자를 만난다. 60대가 된 그녀는 만날 때 마다 손씨의 두 손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인다.

투병으로 까맣게 메말랐던 그녀가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손씨는 즐거워한다.

"골수는 맞을 확률이 2만분의 1이라고 하네요. 맞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기증 못했습니다. 올해가 골수이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인데 제 평생 골수이식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정의한 손홍식씨는 "'헌혈'과 함께 한 나의 인생은 성공작"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불교를 잘 아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현불

현불 프리미엄 불교 성지 순례 | 중국 – 4대 성지를 찾아서…

제1탄 관음성지
항주, 녕파, 천태산, 보타산 5일
11월 7일 출발 | 접수마감 : 10월 31일
동참금 : 80만원
비자비용별도

■ 전일정 특급호텔 투숙
■ 불교를 잘 아는 현대 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의 수준높은 불교성지 순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불교4대성지순례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항주 도착 국청사,지성산,지공원참배 녕파 도착
제2일 보타산 보제사, 법우사, 혜제사, 관음대불(법회), 법음동, 자죽림
제3일 낙가산 보타산 녕파 도착 천동사 참배
제4일 아유왕사 참배 항주 이동 서호 유람, 영은사, 육화탑견학
제5일 항주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육화탑 영은사 서호 영은사입구

현불 프리미엄 불교 성지 순례 | 부처님의 땅, 인도 –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불교를 잘 아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수준높은 인도 불교 성지순례
'프리미엄 인도 12'

인도 불교 성지순례
부처님의 발자취 인도 12일

11월 28일 출발 | 접수마감 : 11월 15일
동참금 : 230만원
비자비용별도

■ 전일정 특급호텔 투숙
■ 불교를 잘 아는 현대 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의 수준높은 불교성지 순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델리 도착
제2일 간디 화장터, 자마마스지드(회교사원) 시크교사원, 인도문, 인도정부빌딩
제3일 갠지스강 보팅 녹야원 싸르나트박물관 중국사원
제4일 부다가야 금강보좌 니런전하
제5일 나란다 대학, 라지기르 도착 왕사성, 영취산 영산회상, 죽림정사
제6일 유마경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바이샬리 순례
제7일 부처님의 열반지 쿠쉬나가르 열반지 순례 열반지, 다비터
제8일 부처님 성장지 카필라성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네팔 관광 | 마야데비사원, 구룸못 순례, 아숙칼러 순례
제9일 사헤트/마헤트 방문 앙굴리 마라터, 간다쿠티/ 보리수 참배
제10일 아그라 타지마할, 더얄박사원
제11일 델리투어 연꽃사원 차탈푸르 흰두교사원,쿠틉탑
제12일 델리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타지마할 아그라 성 싸르나트 마메크탑 부다가야 대탑 쿠쉬나가르 열반당

현불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HE HYUNDAE BULKYO TRAVEL TEA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접수처 : TEL 02)2004-8295~6 | 사업팀 최언규(원각) 팀장 : 018-366-1002
협력사 미문여행사 02)722-8111

화두 참구 믿음이 가장 중요

하와이 무량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 (2)

주제:간화선의 기초수행-발심과 화두참구

법주:현산 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 **현산 스님은** 1961년 도천 스님(현 화엄사 조실)을 은사로 출가, 64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부산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출가후 작은 암자의 주지도 단 한차례 지낸 적 없이 45년간 수좌로서 지내온 현산 스님은 당대 선지식인 동산 · 경봉 · 전강 · 금오 스님등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97년부터 화엄사 선등선원장을 맡고 있으며, 은사 도천 스님의 선농일치(禪農一致) 가르침을 이어받아 직접 목장갑을 끼고 절 살림살이를 돌보고 있다. 현재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내면의 진면목 찾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
간화선은 밖에서 구할 수 없는 마음의 도리

올 가을 하와이의 불자들은 행복하다. 바쁜 생활 속에서 '나'를 들여다 볼 여가를 얻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산다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다. 욕망과 번뇌가 있는 한 고통과 괴로움도 있기 마련. 하와이의 불자들은 무량사(주지 도현)가 현대불교신문과 공동주최하는 하와이 간화선 대법회에서 자신의 '지금 여기'를 들여다 보고 있다.

와이키키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하와이 보타산 무량사. 현지시각으로 10월 2일 오전 10시(한국시각 10월 3일 오전 5시)부터 설법전에서 '무량사 창건 30주년 · 문화원 준공기념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가 열렸다.

무엇이 보고 듣는가?

법주는 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 법문 주제는 '간화선의 기초수행-발심과 화두참구'다. 간간히 비가 내리는 일기에도 불구하고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과 수좌 무문 스님을 비롯해 신도회장 전이순 보살, 신도회 부녀회장 신영자 보살 등 사부대중이 설법전을 가득 메웠다

법석에 오른 현산 스님은 눈을 지긋이 감고 침묵했다. 좌중도 조용했다. 침묵과 고요.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간절한 발심구법의 시간이고 가장 열정적인 설법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당안은 엄숙했다. 이윽고 현산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다가 '쾅' 하고 한번 내리친다.

"무엇이 보고 듣습니까? 바로 이 보고 듣는 이 놈의 진면목을 깨닫는 것이 간화선의 핵심입니다."

법문은 침묵과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조용한 행동과 주장자를 내리치는 동작으로 시작됐다. 좌중은 더욱 숙연해졌다.

"화두 참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본래 진면목을 깨닫는 도리를 믿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것입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는 않지만 현산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법회에 동참한 오드리와 루오이부부의 눈동자에는 총기가 가득하다. 법당안에서는 이들 부부를 포함해 5명의 현지인이 현산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발원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다.

"간화선 법문이 아직까지 일반 대중에게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참나를 찾는 이 법을 잘 몰라도 듣다 보면 법의 종자가 쌓이고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진면목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임을 믿고 행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산 스님의 법문은 하와이 불자들의 '눈 높이'에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신심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은 도의 어머니'임을 강조하며 간화선 수행의 뿌리도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현산 스님은 꾸준한 정진을 당부했다.

현산 스님은 육조 혜능 스님과 남악 회양 스님의 일화를 통해 전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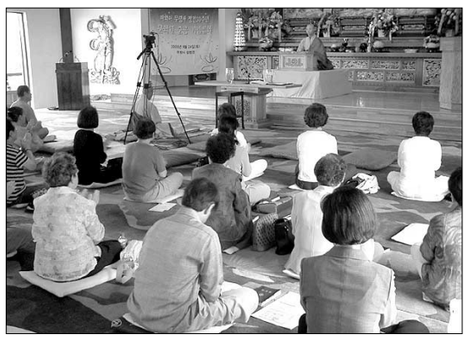
"회양 스님이 자신의 경지를 스승에게 보이기 위해 혜능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혜능 스님이 '어째서 왔느냐?'고 물으니 회양 스님이 '도를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혜능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라고 물었는데 그만 회양 스님은 말문이 콱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8년을 수행정진하고 다시 스승을 찾아 갔습니다. 회양 스님은 '가령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간화선이란 절대 밖에서 구할 수 없는 마음의 도리인 셈 입니다."

내 마음의 지혜를 보라

한마디 답을 구하기 위해 8년을 각고정진한 회양 스님의 수행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산 스님의 고구정녕한 가르침이다. 그 한마디 대답이야말로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꿰뚫는 열쇠이므로 열쇠를 찾기까지는 오직 열쇠생각만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화두이기 때문이다.

법회에 동참한 교포 신도들은 현산 스님이 선사들의 일화를 예를 들며 간화선의 도리를 쉽게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회심의 미소를 내보였다. 92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회에 동참한 문 묘각성 보살은 "한국의 큰 스님을 이곳 하와이에서 뵙는 것도 큰 복인데 이렇게 자상한 법문을 들으니 그저 즐겁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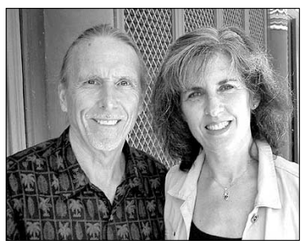
현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마조 스님 일화 등을 소개하며 본래 진면목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밖에서 법을 구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무한 지혜와 복덕이 구족되어 있음을 바로 보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글 · 사진/하와이=김두식 기자



100여 불자들이 현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인터뷰 / 루오이 · 오드리 부부

"특별한 에너지로 마음이 꽉 차는 느낌"



한국에서 1968년 군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루오이(RUOY · 사진 왼쪽)씨는 부인 오드리(AUDREY)씨와 함께 이번 간화선 법회에 동참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무량사에서 열리는 위빠사나 교실에서 명상을 배우고 있는 이들 부부는 한국의 간화선을 잘 모르지만 큰스님이 오신다기에 법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현지 사정으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들 부부는 법회가 진행된 2시간 동안 정좌를 현산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루오이씨는 "비록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목탁을 치며 예불을 올리는 모습에서 마음에 평온함을 느꼈다"며 "특히 큰 스님이 법문할 때는 어떤 특별한 에너지로 인해 마음이 꽉 차는 것 같았으며 정신이 맑아졌다"고 법회 동참 소감을 밝혔다.

부인 오드리씨도 "한국 불교는 자연 친화적이고 내면의 마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같다"며 "큰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소리를 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와 모습에서 내면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모저모

간화선법회 시간 오후에서 오전 10시로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였던 간화선 법회시간이 현지 사정으로 인해 두 번째 법회부터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무량사 신도들이 대부분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관계로 오후에 사찰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득이 법회 시간을 변경하고 현지 라디오 방송, 유선텔레비전 방송, 한국일보 하와이판, 중앙일보 하와이판 등에 광고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무량사 신도"

◯…간화선 법회가 열린 설법전은 3분의 2 정도의 공간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어 신발을 벗고 올라가 가부좌로 정좌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공간은 신발을 신은 채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이가 많은 보살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인 셈이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맨 뒷 의자에는 노보살들로 가득했다. 그 가운데 법복을 가지런히 입고 있는 박선행화, 문묘각성, 천문수화 보살.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일요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보살은 30년 동안 진행되어온 무량사 불사를 위해 자원 봉사로 작업 인부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김장담그기 등 사중의 큰 행사에 빠짐없이 동참해 신도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

하와이 한국성당 신부님도 한자리

◯…현산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하와이 한국 성당 최시몬 신부도 신도 박마리아와 함께 법회에 참석했다. 최시몬 신부는 법회가 끝이 난후 현산 스님을 직접 찾아가 법문을 잘 들었다는 인사를 하고 무량사를 떠났다. 최시몬 신부는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과 김정국 사무장조차도 최시몬 신부의 참석을 알지 못할 정도로 표시나지 않게 다녀갔다.

신비한 손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미국병원으로보급중)

天一氣功研究會는

13년전에(1993년)설립되어 파워봉, 신선대 등을 전국선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보급하여 오고 있으며 수만명의 사용자 및 수련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은 기공 수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일기공연구회

소 백 산 수 련 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 637-9810(경북영주수련원)

●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4일코스

50기 - 10월 20일 오후2시 ~ 23일 12시
51기 - 11월 24일 오후2시 ~ 27일 12시
52기 - 12월 8일 오후2시 ~ 11일 12시

※ 매월 선착순 20명 마감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요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곧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 수련을 마친 스님들 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단계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천도재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빙의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 氣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악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료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⑮ - 대구 동화사 비로암 보광시민선방

거룡 품에서 가부좌 틀다

대구 동화사 초입의 비로암. 범천(梵天)을 누빈 '용'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세수 아흔 둘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범룡(梵龍) 스님은 '문' 없는 조실 방문을 열고, '말'없이 말했다. "이 놈들, 이 놈들!" 토요철야참선정진에 들어간 재가선객들의 머리털이 쭈뼛 섰다. 천리만리 도망간 화두를 다시 붙잡아 들었다.



재가선객들이 10월1일 대구 동화사 비로암 보광시민선원에서 선원장 수련 스님의 지도로 토요철야참선용맹정진을 하고 있다.

 # 화두로 심신을 달궈라

한국불교계의 최고령 선지식인 범룡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동화사 비로암의 보광시민선원. '거룡(巨龍)'의 품에서 30여 재가선객들이 화두를 들고 있었다. 정진의 칼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밀려오는 망상들을 가차 없이 베어내고 있었다.

'몸과 마음을 화두로 혹독히 달궈야 비로소 자기공부가 된다'는 범룡 스님의 경책. 선방 안을 매섭게 휘감았다.

10월 2일 새벽 2시. 토요철야참선 용맹정진의 열기는 한껏 올라 있었다. 전날 1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한 정진은 '50분 참선-10분 포행'을 번갈아가며 가열차게 이어졌다.

"말이 필요 없는 공부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화두참구지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선원장 수련 스님이 말을 툭 던진다. 여지없이 구부러진 재가선객들의 등줄기가 곧게 펴졌다. 다리의 통증도 순간 사라졌고, 무겁게 가라앉은 눈꺼풀은 이내 가벼워졌다. 그래서일까? 망상에 치인 화두는 곧장 오롯해졌다. 그렇게 50분이 지나자 입승 거사의 죽비 삼성(三聲)이 재가선객들의 치열함을 잠깐 멈춰 세웠다.

 # '근본' 깨달으니 어딜 가나 자유

침묵을 깨고 대중들에게 "무엇 때문에 사무치게 철야용맹정진의 가부좌를 틀었느냐"고 어렵게 물었다. 화두참구 2년째라는 이두선 씨(66 · 대구 칠성동)부터 말문을 열었다.

"사실 '공부하라'는 말뜻조차 몰랐어요. 단지 불보살님들의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를 했지요. 그러다 '부르는 그 놈을 찾으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화두참구에 끌렸어요. 빼도 박지도 못하면서 의심이 나더군요.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철야정진을 하게 됐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지만, 용맹정진을 하면서 화두를 꿋꿋이 잡는 힘을 기르게 됐죠."

50년 넘게 전국의 선원을 돌며 장판 때를 묻혔다는 홍송근(72 · 대구 만천동) 씨는 화두참구를 통해 망상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생활 속에서 망상이 아무리 들어와도, 잠깐 들어있다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정진하다가 너무 힘들어 범룡 스님에게 '어렵다'고 말하면, 스님은 '다 쉬우면 다 성불하지. 부처님 사신 대로 살면 되니까, 다른 생각 말로 화두만 열심히 잡으라'라는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군더더기 없이 화두공부의 필요성과 방법을 가르쳐주셨던 거죠."

 #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수련 스님은 지난 1999년 보광시민선원의 문을 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지(正智) · 정견(正見)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른 불교'란 믿음 때문이었다.

"정지 · 정견은 팔정도에 입각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자가 언제 어디서든 '인과(因果)의 두려움'을 깨닫고, 보살로서 대자비심을 얻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정지 · 정견입니다. 열반과 해탈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보광시민선원에서는 '부처님 정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강조한다. 매일 새벽 3시~5시, 8시~11시, 오후 2시~4시 등으로 나눠 자율적으로 정진을 한다.

특히 선원은 토요 철야참선정진을 중요시 한다. 수련 스님은 "대중의 위신력은 자신의 업을 녹일 수 있다"며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승인 만큼 대중이 일주일에 한번 모여 정진하는 철야참선은 자기 공부에 점검이 된다"고 설명했다.

 # 경전과 선어록 강의 병행

선원 수행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참선정진 이외, <화엄경> <서장> 등의 경전과 선어록 강의도 병행한다는 점이다. 먼저 <화엄경>의 경우, 참선 전에는 <화엄경> 1권씩을 반드시 독송한다.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깨달음을 설한 내용을 담은 <화엄경> 독송이 재가선객들에게 환희심은 물론 신심을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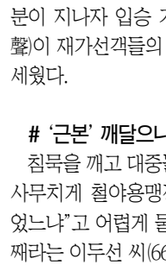
<서장> 강의도 재가불자들에게 선에 대한 안목을 틔워 주고 있다. 수련 스님이 지도하는 <서장> 강의는 선 수행에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공부법을 알려줌으로써, 재가불자들에게 마음공부를 지어가는 데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선원은 이 같은 경전과 선어록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서장> 공부가 끝나는 대로 <증도가> <육조단경> <전등록> 등의 선어록강의를 마련할 예정. 또 <화엄경> 독송시간을 늘려 재가선객들의 신심을 더욱 증장시킬 방침이다. (053)982-0223

글 · 사진/대구=김철우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일문일답 / 범룡 스님



범룡 스님(사진)과의 친견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됐다. 군더더기 없는 말씀. 고갱이만 내보였다.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화두참구하기가 힘든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돼. 지극지성으로 하면 되지."

"화두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가자든 재가자든 화두를 놓치는 시간이 있지. 그래도 지극지성으로 화두 참구할 뿐이야. 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

"화두를 들다가도 잊고 자주 놓치다보면, 퇴굴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저 잘 할 뿐이야."

"공부자세는요?"

"자기가 하려는 마음을 크게 단단히 먹어야 돼. 남이 하는 것 보면 쉬워 보여도 막상 자기가 해보면 모두 어렵지. 참선수행자는 화두참구를, 염불수행자는 부처님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외야 해. 그처럼 재가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9> 황룡 선사는 불난 집에 그대로 머물다

불과 십오륙 여년 전만 해도 당우 한 채에 아궁이는 여러개였다. 장작이 벌겋게 타고 있는 해질 무렵의 아궁이는 넉넉함 그 자체다. 동시에 그 불은 경계 대상의 1순위다. 야순(夜巡) 소임자들은 해가 지면 두부장수처럼 종을 흔들며 경내를 도는데 그때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궁이 불이었다. 아궁이 크기와 숫자는 그 절 살림살이와 규모의 척도이기도 했다. 대중이 함께 머무는 큰방 아궁이가 얼마나 컸던지 '지게채 장작을 지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어느 절에서나 들을 수 있는 흔한 이야기였다. 조금 더 격조 있는 말로는 '우리 절 방구들은 얼마나 잘 놓았는지 한번 불을 때면 한 철 내내 따뜻했다'는 것이다. 야무진 살림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나저나 목조건물인 사찰은 불이 가장 큰 재난이다. 고암상언(1899~1988) 선사 영결식날 대중들이 모두 다

절에 불 났는데 미동도 않고 좌선 선정에 든 한암 선사, 상원사 지켜내

비장으로 가버려 절을 비운 사이에 물 끓이는 가마솥이 걸려있던 아궁이 불이 밖으로 넘어 나왔던 모양이다. 다행히도 남아 있던 눈 밝은 학인에 의해 발견돼 부랴부랴 곁에 있던 수각의 물을 부어 끌 수 있어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하마터면 가야산 양쪽에서 동시에 불을 피울 뻔 했다.

임제종의 황룡혜남(1002~1069) 선사는 불 때문에 낭패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산 귀종사에 머물 때 일이다. 어느 날 밤 절에 불이 나서 대중이 야단이었다. 그런데 선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동도 않고 그대로 태연히 앉아 있었다. 옆에 있던 스님이 선사의 팔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면서 불길 피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런데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꾸짖었다. 화광삼매를 깨뜨린 것은 물론 사찰 주인으로서 이 집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사의 속뜻을 알아차린 그 스님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이후 스님께서는 스승 석상자명(986~1040) 선사의 큰 법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말에 할 수 없이 천천히 옷을 고쳐 입고 일어서니 불길은 이미 자리밑까지 와 있었다. 불을 피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법(禪法)이 끊어질 것을 염려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세간 법은 그게 아니었다. 이 일로 인해 관가에 불려가 고초를 치르게 된다.

두 달 뒤 풀려났는데 수염과 머리카락도 깎지 않고 뼈와 가죽만이 앙상한 채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마중을 나왔던 사제가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멘 채 말했다.

"총림의 주지인 사형께서 어쩌다가 이렇게 형색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황룡 선사는 단호하게 호령했다.

"이 속된 놈아!"

사제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서 사형에게 절을 올렸다. 혜명(慧命) 때문에 신명(身命)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도 모르고 체면만을 살피는 사제에게 한 할(喝)을 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아궁이나 법당이나 다비장이나 불(火)만 있으면 모두가 화광삼매처가 된다.

부안 월명암에는 선을 넘어버린 부목처사가 아궁이의 벌건 숯불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차서 그 안으로 처넣고는 아궁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소설 <만다라>에서는 죽은 지산 스님을 그의 도반 법운 스님이 함께 정진하던 토굴 방에 앉혀놓고 집과 함께 태워 그를 다비하는 장면이 압권이다. 각각 수업료(?)의 차이는 있어도 그 메시지는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태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암 선사는 한국전쟁 때 오대산 상원사 법당을 '작전상' 태우려는 군인들의 시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러자 선사는 대웅전 안에서 목숨을 걸고서 일체 동요 없는 좌선삼매로써 그들을 감화시킨 덕분에 법당을 구해낼 수 있었다. 화마(火魔)를 지키는 것도 선정(禪定)의 힘인 것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깨달음(도통)과 불치병 · 난치병 · 각종암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참선공지도자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 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 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무량한 功德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 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 체험, 빙의 · 해리 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 천도비법등 신비법 전수.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자비의 손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善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 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現 참선공 협회장
전수반 안내
10월 21일 16:00~21:00까지
(매주 금요일 12회 과정)
무료공개전수
10월 20일 16:00~19:00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자비손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 · 해리 치유법
칠차원 생명법
전생 치유법
내생 치유법
◆ 교육후 神임상최면사 자격증 · 神치유명상사 자격증 · 참선공 자격증 발급.
◆ 지도자 과정 전수후 사회활동 하실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卍신선암 神치유명상센터 神임상최면협회
● 전화 : 02)383-1319/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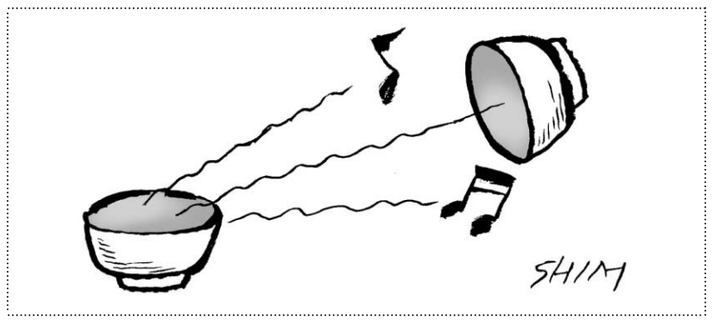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12강 여시(如是)란 무엇인가

노장과 불교는 왜 언어를 미워할까



야부의 글은 명문이지만, 그만큼 읽기가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맨 첫 구절 여시아문의 여시(如是)를 읊은 대목부터 보겠습니다.

원문

1. [如是]. 古人道, 喚作如如, 早是變了也. 且道, 變向甚麼處去. 咄. 不得亂走. 畢竟作麼生. 道火不曾燒劫口.
2. [如] 如. 靜夜長天一月孤.
3. [是] 是. 水不離波, 波是水. 鏡水塵風不到時, 應現無瑕照天地. 看看.

번역

보이는 대로 대강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1. <如是>. 옛 사람이 말했다. 여여(如如)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일은 변질되었다. 말해 보라. 대체 어디가 변질된 곳인가. 엑! 어지러이 쫓아 다니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불이야!"라고 말한다고 어디 입을 태워먹던가.
2. <如>여, 여(如)여. 고요한 밤 길게 걸린 하늘에, 달 하나가 외롭도다.
3. <是>여, 시(是)여. 바다는 파도를 떠나 있지 않으니, 파도가 곧 바다이다. 거울같은 맑은 물에 먼지바람 불지 않을때, 그때 한 점 흠 없이 천지를 비출 것이니, 보라, 보라.

해석과 부연

1. 미리 하나 짚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금강경>의 맨 첫 줄이자 현대불교신문사의 출판사 이름이기도 한 여시아문(如是我聞)을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라고 새깁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또 꺼내느냐고 핀잔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혜능도 여시(如是)를 "이와 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는 선사들도 있습니다. 선가는 여시(如是)가 앞으로 이어질 붓다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 바로 그 당체(當體)의 성격과 내용을 일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붓다의 말씀이 곧 진리 아니냐"고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야부는 여시(如是)를 이어질 <금강경>의 내용이 아니라 세계의 실상인 여여(如如), 나아가서 <대승기신론>의 진여(眞如)와 같은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함허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시(如是)에 대한 옛사람들의 해석은 다기다양하다. 지금 야부노인은 여(如)를 유무(有無)가 불이(不二)라는 뜻으로 새기고, 또 시(是)는 그 여(如)에 시비(是非)가 없다는 뜻으로 읽었다." 그렇습니다. 야부에게 여시(如是)는 이어지는 <금강경>의 말씀이 아니라 유무와 시비가 무색한 법계(法界)의 실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언해가 보통과는 달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가 아니라, "이와 같음을 내 듣자오니"라고 새긴 것도 저간의 곡절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염두에 두고서야 야부의 불가사의한 수수께끼같은 시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이 그렇듯이 진여체는 언설로도 그릴 수 없고, 생각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떤 언설도 실패하고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야부는 "이미 여여(如如)니 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진리를 향한 과녁으로부터 십만 팔천리 멀어졌다"라고 질러놓는 것입니다.

뭐, 이런 투의 말은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독자들은 불교가, 특히 대승과 선이 왜 그토록 진리를 말하는 언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것 좀 속시원히 가르쳐 주지 않고, 왜 자꾸만 감추는 거지!"라고 안타까와 하는 사람, "괜히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신비화해서 사람 입을 막으려는 수작이야"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다면서 왜 저토록 말이 많아!"라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불교의 언어혐오증(lingua-phobia)을 나름대로 변명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1부에서 제가 쓴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자아(我相)는 자기 욕망으로 객관적 세계의 자장을 뒤튼다는 것을…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렇게 에고(ego)가 뒤틀어 놓은 세상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자 한다는 것을… 그때 세계는 화평해 지고, 수행자는 가장 무서운 괴물인 자기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찾는다는 것을….

장자 제물론의 한 구절

언어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자아의 충실한 도구이고 노예입니다. 이 점을 통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자(莊子)는 인간의 언어는 바람소리와는 달리 무엇인가를 의도하고 있고 목적하고 있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도 객관적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2편 '제물론(齊物論)'의 일절을 들어봅시다.

"무릇 말이란 바람에 울리는 소리와는 다르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의도하고 있다. 의도에서 발한 말은 편견의 소산이므로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말은 있는 것일까. 그 말은 불가능한 환상인가. 그렇다면 우리들의 말은 새의 짹짹거림과 어디가 다른가. 둘 사이에 정녕 구분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길(道)은 어디에 가려져 참과 거짓이 있게 되었고 말(言)은 어디에 가려져 옳고 그름이 있게 되었나. 어디에 간들 길이 아닌 곳이 있으며 어디에 있은들 말이 못설 자리가 있으리오만, 길은 우리의 협소한 이해로 하여 가려졌고, 말은 우리의 부화(浮華)한 요설로 하여 가려졌다."

말이란 저번 강의를 패러디하자면, 채권을 적어놓는 장부이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보내는 집달리 혹은 해결사같은 것입니다. 채무는 보이지 않고, 해결사들은 목표물의 인정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수십억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색즉시공(色卽是空)! 이 말은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적어놓은 채권은 없으며, 세상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붓다도 오직 자신이 서 있을 땅 한뙈기의 자리만 임시로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언어는 세계를 자아화하는 도구입니다. 즉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와 욕망에 맞도록 요구하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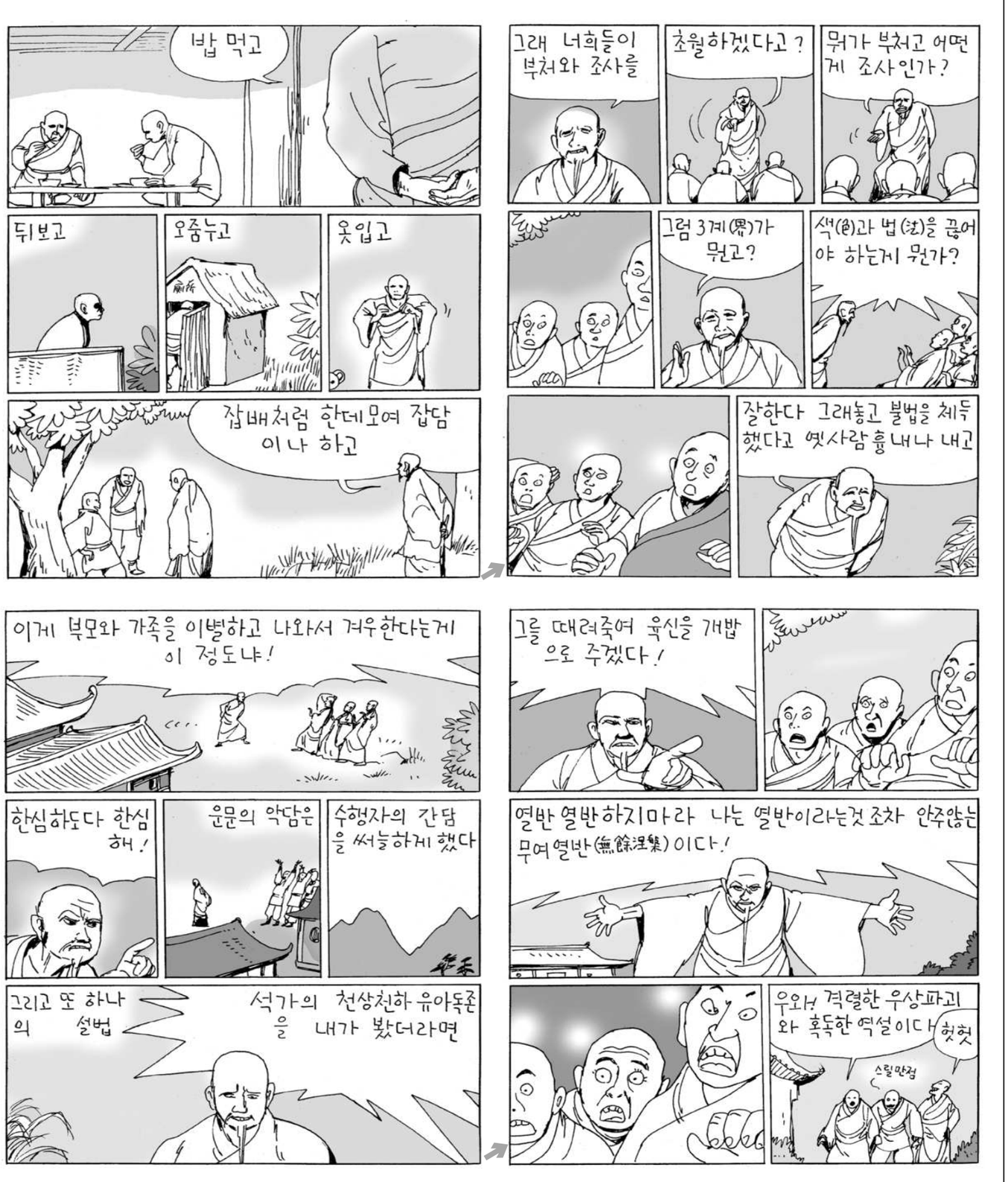
요구가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늘 위태롭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말이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자신을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하라고, 궁극적으로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언(默言) 수행의 근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늘 일깨웁니다. 보디스바하, 모든 것이 '거기 이미' 이루어져 있노라고…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다고. 이미 모든 것이 충분히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무엇을 더 달라고 징징대는 소리가 밉살스럽고 안타까웠던지 야부의 목소리는 좀 퉁명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如如)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이미 일은 변질되었다." 저는 이 개구즉착(開口卽錯)의 법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진리조차도 그렇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면, 여러분은 야부가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달과 거울, 그리고 먼지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⑧⑧ 운문문언 선사의 '우상파괴'

조태호



운문문언(雲門文偃, 864~949): 당말(唐末)스님. 절강성 가흥 출신으로 17세때 출가. 설봉의존(雪峰義存)의 법을 이음. <운문광진선사어록>이 전함.

네티즌 교리문답

아수라장이란?

문 시끌벅적하거나 전란(戰亂)이나 투쟁으로 끔찍이 흐트러진 현장을 "아수라장 같다" 또는 줄여서 "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란 말이 불교용어라고 들었는데, 그 본래 뜻은 무엇인가요? (야단법석)

답 1 : 맞습니다. 아수라장이란 아수라(阿修羅)의 심술이 만든 피해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전란이나 투쟁으로 끔찍한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수라란 천(天), 인(人), 아수라, 아귀(餓鬼), 축생(畜生), 지옥(地獄)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아수라는 화를 잘 내고 도전적이어서 전신(戰神)이라고도 합니다.

아수라는 전생에 바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몹시 우매하고 욕심이 많은 바라문이었다고 하지요. 어느 날 이 바라문은 광야에서 많은 수레에 물을 싣고 다니며 남에게 보시하던 중 불타고 있는 탑을 보았다고 합니다. 못된 무리들이 불탑(佛塔)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입니다. 바라문은 물수레를 모두 동원하여 그 불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 다음 생에서는 욕심(慾心)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

어리석은 그 바라문은 좋은 일을 하고도 좋게 회향하지 못하여 결국 아수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라는 불같이 성미가 급하고 욕심이 많고 우둔한 축생이 된 것입니다.(아수라는 아는 아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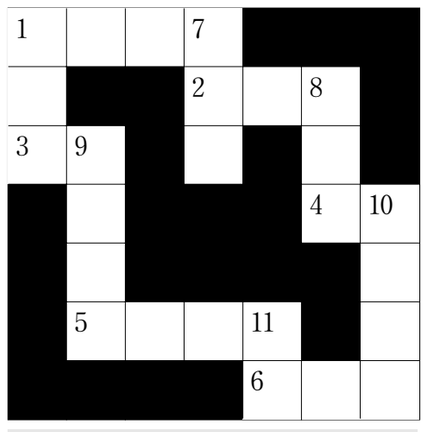
답 2 : 아수라의 거처는 수미산(須彌山) 아래 큰 바다 밑이라고 합니다. 아수라들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8만 4천 유순(由旬), 입 크기만 1천 유순이라 합니다.

인도인들은 정의의 상징인 하늘(天)과 악의 대표인 아수라의 싸움에서 수라가 이기면 재해가 많고 하늘이 이기면 풍요가 온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와 하늘의 싸움에서 하늘이 이기면 인간세상은 평화롭고 아수라가 이기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이 싸우는 동안 인간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아수라의 힘이 강해지고 하늘의 힘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상에 정법(正法)이 널리 퍼지면 하늘이 강해지고 아수라는 약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하늘과 아수라 중 누가 힘이 더 셀까요? 꼽씹어 볼 대목입니다.(정법맨)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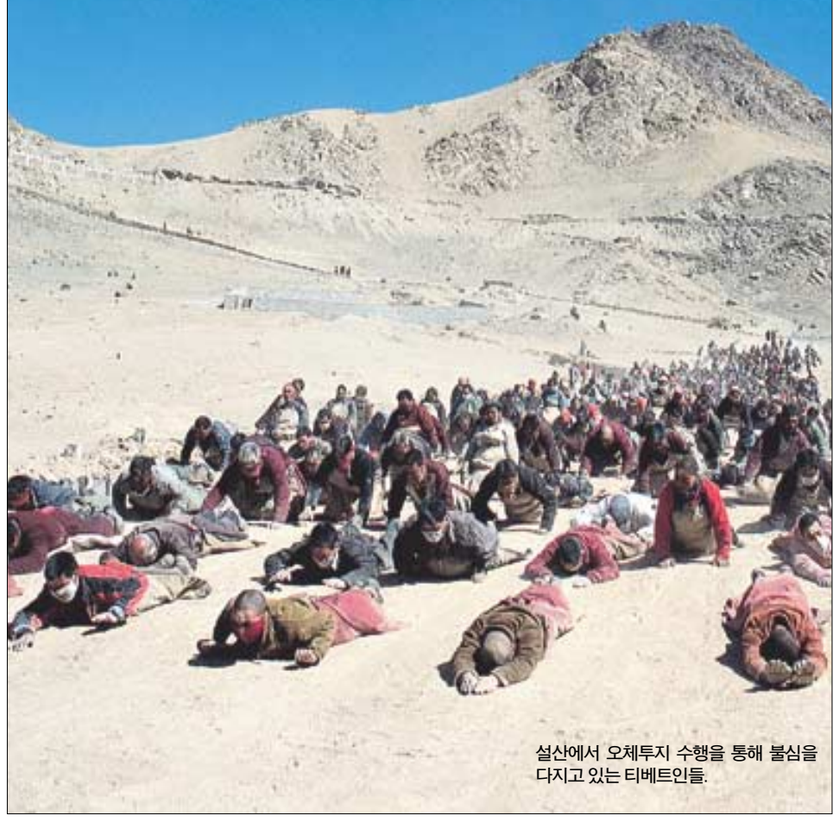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한해살이풀로 개꼬리풀이라고도 함 2. 낙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위에 세우는 금속 막대기 3. 불교 경전의 내용을 필사하는 일 4.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5. 매우 놀라운 일이나 새로운 것을 두고 이르는 말6. 계절에 관계없이 잎이 늘 푸른 나무.

세로 1. 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강천산에 있는 사찰로 도선국사가 창건함 7. 나뭇잎이나 풀잎 등을 입술로 불어서 피리처럼 소리를 냄 8. 액체 속에 섞인 작은 고체가 밑바닥에 가라앉은 것으로 앙금이라고도 함 9. 조선 성종 때 완성 된 최초의 법전 10.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술책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11. 조상(弔喪)하여 위문하는 일

자연과 함께 소박한 삶 행복은 지금 여기에

실연 아픔으로 달라이 라마 찾아 떠난 여행
맑고 순수한 자연과 사람들 만나 상처 치유



설산에서 오체투지 수행을 통해 불심을 다지고 있는 티베트인들.

인생을 살다보면 어둠 속을 걷는 듯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특히 가슴을 후벼파는 실연의 상처를 받았다면 인생에 혼자 내버려진 좌절감으로 더더욱 그렇다. 이 책의 지은이 다카노 데루코도 실연의 아픔을 견딜 수 없어 죽어버린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달라이 라마를 알기 전까지는….

이 책은 아무리 여행 에세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솔직하다. 지은이가 달라이 라마를 1년 가까이 애타게 만나고 싶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연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준 <달라이 라마 365일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책 때문이란다.

실연의 아픔 속에서 세상의 모든 일상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을 때 그녀는 우연히 서점에서 이 책을 만났다. 그리고 지은이는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무작정 면회를 신청하고는 곧바로 티베트, 인도로 길을 떠난다.

지은이의 눈에 비친 티베트인들은 '인상 좋은 사람들의 보고(寶庫)'라고 할 만큼 순수하고 사람 본연의 온정이 흘러넘친다. 해발 3,000미터 이상의 고원지대에서 살아가며 티베트 불교를 믿는 그들은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모두들 당연하다고 믿는다.

처음 보는 사이라도 다정한 미소를 건넬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다'며 태연스레 말한다. 티베트 지방을 돌아보는 여정 곳곳에서 지은이는 평범한 티베트인들이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과 행복의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만나는 사람 한사람, 한사람마다에게서 살아있는 달라이 라마를 만나고 또 그들의 사랑과 행복을 부르는 삶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서는 지은이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삶에 관한 무수한 물음에 대한 해답과 가르침을 얻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달라이 라마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티베트의 때묻지 않은 전통과 자연이 주는 감동, 티베트인들의 순수함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슴 속에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들을 보여 준다.

지은이의 티베트와 인도 다람살라 여행은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되긴 했지만, 여행의 시작부터 지은이만의 고집과 독특한 인생 바라보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스무 살 때부터 세계 30여개국을 여행해 온 지은이는 2000년 <갠지스강에서 버터플라이>를 출간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오지여행가로 이름났다. 일본의 한비야로도 불리는 그녀는 일본에서 제법 잘나가는 여행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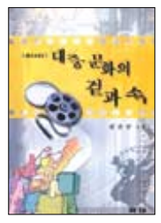
이런 그녀가 꿈에도 그리던 달라이 라마를 만난 것은 고작 20분. 하지만 스님다운 스님 탄파, 라다크의 의사 제완, 전혀 의사 같지 않은 제완의 삼촌 아무치, 고교 영어선생 카르마 등 지은이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 전 티베트와 인도 여행에서 알게 된 사람들 모두가 달라이 라마였다.

티베트의 순수한 전통과 자연 역시 지은이에겐 더없는 스승이었고 친구였다. 지은이가 말하려는 다람살라의 선물은 달라이 라마를 만나게 되는 하루를 그린 마지막 장과 달라이 라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달라이 라마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온전히 마친 사진 속 지은이는 말한다. "어떤 순간에도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지니며 오늘과 내일을 즐겁게 살고 싶다." 지은이는 결국 이 책에서 실연의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들과 직접 부딪치며 '스스로의 인생을 바꾸는 힘'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다람살라의 선물
다카노 데루코 지음 | 이수경 옮김
글로세움 펴냄 | 9천8백원

전문가 서평



대중문화의 겉과 속 2
강준만 지음 | 인물과 사상사 펴냄 | 9천원

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정치 · 사회 문제 비평가로 유명하지만, 대중문화에 관한 책도 여러 권 펴낸 학자이다. <대중문화의 겉과 속>은 그가 쓴 대중문화 이론서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책인데, 1994년 초판을 낸 뒤 1999년 전면개정판을 펴낸 바 있다. 이번 책은 먼저 나온 책의 속편이자 새로 나타난 대중문화 현상을 진단한 별도의 책이다. "대중문화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 대중문화를 다룬 책이 5년 묵었다면 그건 역사책이다"라는 지은이의 믿음은 따로 책을 낸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 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우선 대중문화를 보다 냉철히 이해함에 있어 선행돼야할 이론적인 부분의 설명이 쉽게 서술돼 있다는 점이다. 피에르 부르디에, 어빙 고프만, 장 보들리야르와 미셸 푸코등 20세기 후반에서 현재를 진단한 철학자, 사회학자들의 이론을 적절하게 선정했다.

또한 핵심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며, 그 언어의 기원 및 탄생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크게 두 개의 키워드로 분류해 낸다면 바로 소비와 인터넷 세계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인다면 소비 문화 측면에는 살짝 좌파적인 시선

명품 티내기와 감추기의 심리학

을(모든 재화의 불평등적 분배구조를 개탄하는 식의, 부르디외의 자본적 기준을 따른다)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는 그것이 낳은 부작용과 앞으로 생겨날 위해적 요소에 대한 불안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전 사회의 대중문화화'라고 할 정도로 대중문화가 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가 꼽는 것이 소비문화와 사이버문화의 창궐이다. 소비문화는 과거 산업자본주의를 대체한 소비자본주의의 자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문화의 특징을 개념화한 것이 이를테면, 어플루엔자(Affluenza)다. 풍요(Affluece)와 유행성 독감(Inffluenza)의 합성어인 어플루엔자는 풍요사회에 번진 유행성 소비열풍을 가리킨다.

이 신종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 상륙해 토착화한 것이 최근의 '명품 열풍'이다. 명품에 대한 열광은 사회학적으로 의미심장한 암시를 품고 있다.

일찍이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렌이 <유한계급론>에서 설파한 '베블렌 효과'를 '명품 열풍'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취향과 패션이 계급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상이 된 시대에 명품이야말로 이 표상으로 기능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베블렌은 "비싸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했는데, 유한계급이 '고가'의 사치품에 집착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말이다.

명품에 눈이 먼 사람들의 심리를 티내기(구별짓기)라는 부르디외의 개념으로 풀어볼 수도 있다. 사위계급이라는 티를 냄으로써 하위계급과 자신을 구별짓는 데 유용한 물건이 바로 명품이다.

■김동훈(대중문화평론가 · 서일대 강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 (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 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전국사찰,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靑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1100g×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 해 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 낙산사 홍련암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671-6079

새로나온 책



■ **<법문사의 불지사리 1, 2>**(웨난 · 상청융 지음, 일빛, 전 2권, 각권 1만2천8백원)=11월 11일부터 열리는 '법문사 불지사리 한국 이운 친견법회'에 맞춰 2000년 출간된 <법문사의 비밀>이 다시 출간됐다. 1981년 중국 시안(西安) 당나라 황실 사원 법문사의 13층탑이 무너져 내린 후 모습을 드러낸 지하궁에서는 4㎝짜리 부처님 손가락 사리를 비롯해 불상과 다구 등 중국 고대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이 책에서는 발굴조사 당시의 상황과 법문사에 불지사리가 모셔지게 된 역사적 배경, 지하궁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요강도 때론 밥그릇이 됩니다>**(풀브라이터 지음, 이명원 옮김, 한언, 9천8백원)=요강의 용도를 모른 채 밥통으로 사용해 온 이를 '더럽고 혐오스럽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아잔 차 스님은 묻는다. "한 번도 요강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그릇인데, 왜 이 상황을 역겨워 할까요?" 스님은 우리의 집착이 혐오스러움과 화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태국의 유명한 선승 아잔 차(1919~1992) 스님의 법문 모음집 <요강도 때론 밥그릇이 됩니다>에는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 **<도란도란 도 이야기>**(김종업 지음, 리더스넷, 1만원)=국내 최초로 기(氣)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종업씨가 명상과 마음수행, 장풍과 도술 등 도(道)와 정신세계에 얽힌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간다. 지난 6월 명지대 대학원에서 '삼일신고(三一神誥)의 수련 원리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방법론 이해'로 박사학위를 받은 지은이는 현재 한국정신과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으며 명지대와 장안대에서 단전호흡 · 기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 **<패밀리 닥터>**(연세대의대 교수진 옮김, 아카데미아, 전 48권, 각권 1만2천원)=영국의사협회(BMA)가 1960년대부터 펴내고 있는 의학총서 '패밀리 닥터' 시리즈 중 48권이 연세대 의대 교수진에 의해 국내 번역됐다. '패밀리 닥터'는 고혈압부터 암, 당뇨, 우울증, 스트레스, 치매 등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100가지 질병의 증상과 진단, 치료, 간호법 등을 제시하기 위해 펴내는 시리즈. 100여 쪽 분량의 책에는 각 질병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해당 증상별 의사 진단과 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부처님과 공자 '닮았네'

"나는 다행이다.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반드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동안 나의 언어와 행동에 어떤 잘못은 없었던가?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다면, 벗들이여! 부디 나를 가엾게 여겨 지적해 달라."

위의 말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고, 아래의 말은 <상응부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깨달은 이의 가르침과 실천은 일맥상통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공자'와 '붓다'는 동시대를 살며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문출판사 편집장을 역임한 박민영씨는 공자와 붓다의 가르침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게 됐고, <논어>와 <잡아함경>을 통해 '신화화되기 이전의 공자와 붓다의 모습'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붓다의 말 속에서 공자의 모습을, 공자의 말 속에서 붓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공자의 계단에 한 발을 디디면 그것을 기반으로 그보다 높은 붓다의 계단에 오를 수 있었고, 붓다의 계단에 한 발을 디디면 다시 또 높은 공자의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붓다와 공자의 사상이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한쪽에 대한 이해는 다른 한 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공자 속의 붓다, 붓다 속의 공자
박민영 지음 | 들녘 | 9천원

당대 사회문제 풀기 위해
노력한 실천적 지식인의 모습
'잡아함경' '논어'에서 찾아

지은이는 공자와 붓다의 사상 속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45가지 이야기 주제로 나누어 엮었다. 경전에 기록된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나 함축적 표현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쉽게 풀어써 붓다와 공자의 가르침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상응부경전>의 "색(色)에 집착할 때 악마에 붙잡힌다. 집착하지 않는다면 악마로부터 풀려난다"는 구절과 "번지르르한 말과 번지르르한 외양(色)이 어짊인 경우는 드물다"는 <논어>의 구절을 통해 지은이는 공자와 붓다 모두 물질적 세계 특히 몸에 갇힌 인간의 마음을 해방시키려 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붓다가 몸의 감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랐듯이, 공자 역시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탐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몸에 갇혀 있는 시야를 벗어나야 세계를 바르게 볼 수 있으며, 그래야 마음에 바른 도덕이 깃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공자와 붓다는 도(道)가 만인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아무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멸시하지 않고 아무리 하찮고 평판이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 예로 공자는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란 세력의 수장인 필힐을 만났고, 부처님은 살인자 앙굴리말라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이 밖에도 '큰 깨달음 작은 말' '깨달은 자의 고독' '깨달은 자의 사회적 책임' '종교관념의 혁신' '벗의 가치' '악의 실체' 등 각 상황에 대한 공자와 붓다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공자와 붓다 사상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시대 진정한 지식인이자 실천가로서의 공자와 붓다를 만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유식무경에 감춰진 존재의 비밀
최경호 지음
경서원
3만5천원

유식무경으로 본 하이데거

'노동하는 철학자' 최경호씨가 '유식무경(唯識無境)'의 사상체계를 밝히는 <유식무경에 감춰진 존재의 비밀>을 펴냈다. 지난해 <존재에서 규명한 선>을 펴낸 후 '유식무경'이란 주제에 사로잡힌 그는 9개월 간의 작업 끝에 이번 책을 집필했다. 유식무경은 대승불교 유식의 기본 사상으로, 식(識)만 있고 그 식의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다.

"지난 3~6월 일하는 내내 '유식무경'이란 하나의 주제에 몰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유식무경'을 하나의 화두로 삼고 있는 상태로 지낸 것이 아니라 유식무경이란 명제를 통해 경험한 사태 자체로서의 존재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공사장을 향하는 전철 속에서도,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유식무경'에 대해 고민했고, 저녁이면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했다.

'유식무경의 입장에서 하이데거 존재론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최씨는 "유식학을 하이데거의 존재를 빌어 고찰하고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유식무경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립했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은이는 "하이데거의 '존재'란 인간에게 있어 근원적인 식(識)으로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정립된 존재론"이라고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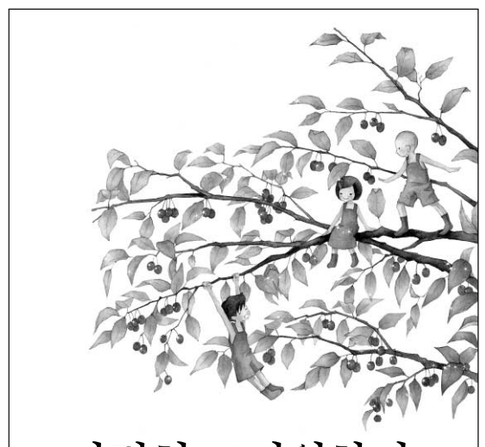
현광 스님 수행한담



이 좋은 아침에 아직도 잠만 자고 있느냐
현광 스님 지음 | 학수림 | 9천5백원

"오늘날은 다종교 사회라 별의별 종교가 많지만 마음공부만은 부처님 말씀 아니고서는 근본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디 정법에 귀의해 정진하자. 아직도 잠만 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이 좋은 아침의 밝은 세상을 맞이하자."

대전 불광사 주지 현광 스님의 에세이집. '죽비'를 부제로 삼은 이 책에서 현광 스님은 자신의 수행한담과 다양한 경전설화 소개, 불교 기초교리 해설 등을 담았다. 또한 불교 교리와 수행과정 등을 설명함으로써 인생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공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간절히 그리워하면 꼭 이루어진다

'인연'은 어떻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일까?

일찍 부모님을 잃은 준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할머니와 함께 묘옥사에 오게 된다. 하지만 준이는 학교를 그만둔 것도, 친구들과 헤어진 것도, '타고난 스님'이라는 할머니의 말도 영 마뜩치 않다. 자신은 스님 대신 공군 전투기 비행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묘옥사에 살고 있는 동자승과 여자아이 금란이와 함께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된 준이는 하루빨리 큰스님을 만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절을 내려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어느 날 준이는 묘옥사의 관음벽화를 1천년 전 신라시대의 혜련 공주가 그렸고, 그 관음보살의 주인공이 선각대사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런데 얼마 후 큰스님은 준이에게는 선각, 금란이에게는 혜련이라는 법명을 내려준다. 1천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뛰어 만나게 된 준이와 금란이. 하지만 준이는 비행사가 되고 싶은 꿈을 버리지 못하고 묘옥사를 나와 발검을 옮긴다.

소설가 유홍종씨가 쓴 <보리밥나무>는 천 년을 건너 계속되는 인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만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 준다. 유씨는 "동화를 통해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은 다음 세상에서라도 꼭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우리 인연의 실타래가 얼마나 정교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동화 뒤편에는 '스님들은 어떻게 생활할까'란 코너를 두어 삭발과 수계, 발우공양, 토굴수행 등 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보리밥나무
유홍종 글 | 김상희 그림
계수나무 | 8천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2006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생 모집요강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불교(석,박사) -역경(석,박사) -실천불교(석,박사)(포교사회) -불교문화재학(석사)	석사 30명 박사 10명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석사)	

2.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 박사과정은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 2005. 10. 17(월) ~ 10. 28(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2) 원서 접수 : 2005. 10. 31(월) ~ 11. 4(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3) 전 형 일 : 2005. 11. 10(목) 10 : 00 (박사과정) /14:00(석사과정)
4) 합격자 발표 : 2005. 11. 15(화) 11 : 00
5) 등록 기간 : 2005. 11. 16(수) ~ 11. 22(화)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
● 박사과정 : 논술(A4용지 1매내외)

5.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3) 석사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 박사 :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석사 : 대학 / 박사 - 대학원전학년성적증명서(백분율 성적 기재분)1부.
5) 승적증명서(3개월 이내) 1부. (최종수계일 기입 요)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
※ 대학/대학원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06. 2. 28(월)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무료 2) 전형료 : 박사 50,000원 /석사 40,000원

7.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입시위원 : 대학원 위원회

8.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전화 : 031)980-7864 / FAX : 031) 980-7863
● 특전 :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족계수지자)는 장학금혜택이 있음.
2)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지급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중 앙 승 가 대 학 교 대 학 원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삶과 죽음, 인간이 가야할 길



18세기 풍속화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고 풍부한 일상생활의 장면을 담은 불암사 감로탱의 하단부. 저자거리 주점, 대장간, 남사당패 공연 등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경북대 박물관 소장 감로탱.



바둑 두는 두사람 사이에 이들을 흉내 낸 영혼(원 안)이 '수묵몰골'로 표현됐다. 원광대 소장 감로탱.



해인사 감로탱의 영가천도재 부분도.

'감로탱'의 세계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을 주제로 조성된 '감로탱(甘露幀)'. 부처의 세계에서부터 아귀들이 가득한 지옥에 이르기까지 묘사를 통해 불자들에게 '죽음을 대비해서 바르게 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온다. 감로탱은 통속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고통과 슬픔을 정면에서 바라본다. 수많은 불화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현실의 삶에 밀접한 감로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감로탱 전시회를 계기로 알아본다.

감미로운, 그러나 결코 감미롭지 않은 인생사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아 마치 한 편의 풍속화라도 보는 것 같은 불화 '감로탱'이 국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였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10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감로탱 만을 모은 '감로(甘露)' 전시회를 열고 있다. 2005 문화관광부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시이다.

23점의 감로탱을 선보인 이번 전시에서 첫 공개되는 감로탱은 두 점. 17세기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 감로탱과 함양 법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안국암 감로탱이 바로 그것이다. 경북대박물관 소장 감로탱은 다른 조선시대 감로탱에 비해 현저히 크기가 작고 하단의 감로를 받는 고혼들이 매우 축소된 점이 특징이다. 안국암 감로탱은 보통 한쌍씩 배치되는 아귀가 영가천도재를 올리는 스님들을 향해 합장한 단독상으로 묘사된 것이 독특하다.

이외에도 국내 최고(最古)작으로 알려진 보석사 감로탱(1649), 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스님이라는 독특한 상단을 선보이는 청룡사 감로탱(1692), 조선 후기 한국적 불화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룡사 감로탱(1791), 구체적이고 풍부해진 풍속장면이 인상적인 불암사 감로탱(1890) 등이 눈길을 끈다.

정병모 교수(경주대 문화재학과)는 "감로탱은 보는 사람에게 좀더 실감을 주기위해 하단의 내용들을 당시 생활모습으로 환원해서 표현해왔다"며 "감로탱 역시 다른 불화처럼 의식 의궤 내용을 기준으로 그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현실성을 살리기 위해 풍속화의 영향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산 통도사=강지연 기자 · 사진제공=통도사 성보박물관

통도사 성보박물관 '감로' 展(11월 28일 까지)
국내 最古作 '보석사 감로탱' 등 23점 한자리
"보다 현실성 살리기 위해 풍속화 영향 받아"

 # 이렇게 감상하세요

하단부에 군상들 시대상 반영 까맣게 표현한 영혼 찾기 묘미

감로탱의 하단부를 주목하라. 감로탱 감상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왜 하단부인가. 하단부의 군상들이 표현해내는 시대상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보다 특별한 재미는 그 시대가 보여주는 생활상을 현대와 비교해 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감로탱 하단부의 과거 현재 비교는 다양한 생활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에서 한 번,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을 선사한다.

총 칼을 겨누고 싸우는 전쟁장면, 남사당패의 공연 모습, 침을 잘못 맞은 환자가 죽는 의료사고, 자살, 시장 풍경, 노숙자의 모습 등 다양한 생활군상이 곳곳에서 재미를 드러낸다.

하단부에는 또 하나의 재미가 숨어 있다. 숨은 그림 찾기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 영혼 찾기다. 그림자처럼 까맣게 그려진 도상들은 현실의 인물들을 흉내 내고 있는 영혼을 표현한 것이다. 바로 이 기법인 '수묵몰골(水墨沒骨)'로 그린 영혼의 모습은 안국암 감로탱, 운흥사 감로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감로탱이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불화 18세기 이후 다양한 사회상 담아

16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제작된 감로탱은 수륙재나 사십구재 천도재 등에 쓰이는 의식용 불화이다. 죽은 이에게 감로(甘露)같은 법문을 베푼다는 뜻에서 감로탱, 감로왕도(甘露王圖)라고 불렸다. 영가단에 봉안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영가단 탱화'라고도 하고, 내용상 <우란분경(于蘭盆經)>을 근본 경전으로 삼기 때문에 우란분탱화 · 우란분경변상도라고도 한다.

감로탱은 모든 중생의 영혼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극락으로 왕생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불화이다.

감로탱은 상단 중단 하단의 삼단으로 구성된다. 상단은 아미타삼존을 포함한 칠여래, 오여래 등의 부처와 지옥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인로왕 · 지장 · 관음 등의 보살이 공존하는 불보살의 세계를 보여준다. 중단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절차를 그린 반승(飯僧) 장면과 천도의 대상인 아귀가 공양을 받들어 먹는 장면을 그렸다. 스님 · 성현(聖賢) · 뇌신(雷神) 등 높은 신분의 인물들이 자리한다. 하단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실생활과 지옥도로 표현했다.

2006년 감로불교카렌다



이루어주소서(기도)


건강이야기가 있는 동자승의 세계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원성스님 동승전


피안의 노래


산사에 피는 들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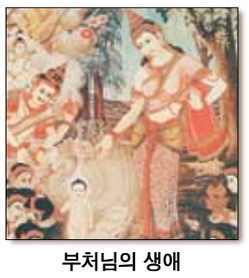

불국정토


불자동의보감


진흙속에 피는 연꽃


사찰음식과 전통차


동승일기


부처님의 생애


원성스님 연화이야기


불교성지


무소유와 깨달음의 지혜 발우


법음이 있는 산사


선으로가는 길


백의관음도

규 격
- 국 6절 카렌다(30×31cm)
- 작은 카렌다(25.5×26.5cm)
- 국12절카렌다(21×22cm)
- 탁상용 월력(21×13.5cm)
- 초미니 차걸이(8.8×9.5cm)
- 수첩용 메모 카렌다(9.5×13.5cm)
- 컬러숫자판 카렌다 7매(25.5×26.5cm)



수첩용 메모 카렌다











탁상용 카렌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대표전화:(02)723-4306 팩스:(02)738-8682 E-mail:gamro4306@hanmail.net 홈페이지:http:\\www.gamro.net



삼국시대부터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⑨

주제 : 한국불교 계맥의 자주적 전승 (10월 8일)
법주 : 지관 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포교와 중생 교화에 선봉인 승보가 탄생하려면 반드시 삼장중의 율장에 의해 사부대중의 분한에 따른 계를 받아야만 그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관 스님.

불교가 어떤 지역에 처음으로 전래될때는 반드시 경, 율, 론 3장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불, 법, 승 3보가 갖춰지고 비로소 그 가르침인 계, 정, 혜 3학이 유통됩니다. 이 정법유통의 일대사는 삼보중 승보 곧 승가(七衆)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보인 교리가 아무리 수승하고 오묘하더라도 교리 자체가 스스로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교와 중생 교화의 선봉인 승보가 탄생되려면 반드시 삼장 중 율장에 의해 사부대중의 분한에 따른 계를 받아야만 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전래 이후 전계와 수계를 통한 출가승가가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는 자신에 엄격해야 하고 가혹한 조복심(調伏心)이 없이는 대개 경외의 대상에 그칠뿐이지요. 계율 연구와 계율 전공자가 다른 분야의 연구자보다 적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숭유억불속에서도 면면히 계맥 이어와

조선조 중기 특히 환성 스님(1664~1729)의 순교 이후에는 율뿐만 아니라 선(禪), 경(經), 론(論), 예(藝) 등의 분야도 적막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속에서 대은 스님(1780~1841)이 계율 중흥을 서원하고 하동 쌍계사 칠불암에서 7일 기도끝에 수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1892년 대구 용연사의 만하 스님이 한국 계맥의 퇴보를 염려해 중국에 가서 법원사 황성계단에서 창수한파 율사로부터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고 귀국해 1897년 통도사 금강계단서 전계하므로써 계맥을 중흥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한국불교 즉 조계종단의 계맥이 분명히 전승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방계맥의 정통성을 숭상해 태국 스님들을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염려됩니다.

그렇지만 인도불교는 물론이거니와 남전정통이라 자처하는 스리랑카에서도 불법이 쇠퇴하여 단절된 계맥을 약 150여년전에 미얀마로부터 역수입했으며, 미얀마와 태국도 세존으로부터 지금까지 단전수수를 여법히 계승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불교 교단은 왕성했던 고려불교 이후 조선조에 접어들면서 숭유억불로 갖은 굴욕을 당했지만 면면히 계맥상승을 이어온 점을 후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동안 수계기록이 남아 있는 스님들의 행장을 정리해 수수전승한 한국불교의 계맥전승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에는 인도불교에서 기원한 오계, 팔관재, 그리고 십선계 및 대승계인 범망보살계가 아울러 전수돼 오고 있습니다. 출가대중도 대승십계인 보살계와 비구 · 비구니계를 아울러 수지하는 수계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계법은 면밀히 수지수행하는 사람들에게서만이 계체로 출생할 때 진정한 불법증흥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계 시원을 따라 올라가보면 삼국시대부터라고 합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의 부견이 불교를 널리 전파할 목적으로 순도 스님으로 하여금 불상과 경전을 보내왔고, 2년 후인 374년에는 아도화상이 뒤따라 들어옴으로써 나라에서는 교회에 초문사를 지어 순도 스님을 있게하고 이불란사를 창건해 아도화상을 주석토록 했습니다.

특히 담시는 관중 출신으로 경전 수십 부를 모시고 요동에서 오계 십선 등 인천인과교리(人天因果敎理)를 중심으로 포교했고, 의연 스님도 고구려 출신으로 평원왕(559~590 재위)때 입진구법한 스님으로서 율을 엄격히 숭상했지만 이때까지도 단단수계제도는 없었습니다.

남방 스님 초청수계 빈번 '우려'

백제에는 384년에 인도 스님 마라난타가 동진을 거쳐 입국함으로써 왕이 영접해 관중에 있게 했고, 다음해인 385년에 왕이 명하여 광주에 절을 짓고 10명의 스님을 배출했으나, 이때에도 역시 입단수계제도는 없었습니다.

신라에서도 이차돈이 출가하고, 모례(毛禮)의 누이동생인 사씨(史氏)가 비구니가 되었지만, 이때도 아직 입단수계 형식은 없고 다만 삼귀의, 오계, 십계 등을 받았을 뿐입니다.

특히 신라의 자장율사는 불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636년 10여명의 제자를 데리고 당나라에 가서 원향 스님을 만나 많은 문답을 나누고 귀국했습니다. 이후 선덕여왕은 자장율사를 대국통(大國統)으로 추대해 교단의 통솔과 왕의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양산의 영취산에 통도사를 창건하고 중국에서 모시고 온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고 금강계단을 설립해 승가의 기강과 통솔을 맡게 했습니다. 이때 스님은 전계와 포살로써 국민정신을 순화시켰지요.

그 후 진표율사는 12살 때 김제 금산사로 찾아가 숭제법사를 은사로 스님이 된 후 기도끝에 현신 수계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대구 용연사에도 방등계단이 있으나 규모 또는 지역적 관계로 사리를 봉안했을 뿐 계단으로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계단에는 국가에서 지정 운영했던 관단(官壇)과 각 사찰에서 설립운영했던 사단(寺壇)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 시대에는 통도사 금강계단이 선덕여왕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대표적인 관단이라 할 수 있지요. 이후 고려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많은 관단들이 있었으나 고려말부터는 수계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불교는 출 재가 대중 모두 대소승계를 겸하여 수지하는 오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계단에 금강계단(金剛戒壇), 감로계단(甘露戒壇), 방등계단(方等戒壇), 영감계단(靈感戒壇) 등 4가지 형태가 전승된 것도 바로 이 이유때문이지요.

이중 금강계단은 엄격한 자격심사인 갈마(羯磨)를 거쳐야만 수계할 수 있는 비구계를 중심으로 하고 겸하여 보살계도 수지합니다. 그러나 방등계단에서는 전계사의 말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사람뿐 아니라, 인천팔부중(人天八部衆)의 누구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승보살계를 수지합니다. 또 감로계단에서 '감로'는 곧 열반(涅槃)이라는 뜻이니 계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초문(初門)이라는 의미로 불여진 이름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 계단중 주로 금강 · 방등 계단 전통에 대소승계를 출 재가 모두 내외로 겸비해 전수해 왔습니다.

그럼 계를 잘 지키며 전수하는 정법공동체 유지를 위한 회의와 화쟁의 규범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대중의 전체회의를 일컫는 '갈마'가 있습니다. 갈마란 포살이나 자자, 수계 등 의사결정의 대중회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마에는 7가지 갈마와 8가지 갈마 등 많은 갈마법이 있습니다. 특히 수계갈마를 비롯해 <사분율잡육취법편>에는 치죄갈마와 성선갈마 등 2종 갈마를 들었고, <비니모경>에도 영빈갈마와 조복갈마 등 2종 갈마를 설하고 있는데, 영빈갈마는 영원히 승가의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악빈이고, 대중의 결의대로 죄를 인증하고 참회하여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는자에게는 선빈이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조복갈마인 것입니다.

금강 · 방등 계단 전통에 대소승계 전수

그 다음에는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발로(發露)'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과를 덮어 숨기지 않고 대중앞에서 낱낱이 고백 · 참회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로갈마란 것이 있는데 이는 지은 죄를 대중앞에서 남김없이 솔직히 고백 참회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별중갈마(別衆羯磨)'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현전승가(現前僧伽)안에서 화합승단을 형성하지 못하고 별도로 당파를 만들어 갈마작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말로는 '별갈마(別羯磨)'라고도 하는데 화합승단을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첫째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갈마는 현전승가 안에 거주하는 비구들의 전원출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승단의 화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둘째로는 위입해야 할 사람의 욕(欲)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여욕(與欲)을 하지 않고 갈마에 불참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지관 스님의 계율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불자들.

법회 동영상 중계 hompy.buddhapia.com/homepy/morals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갈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수계 시작

말합니다.

셋째로는 현전자들이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갈마에 참석한 자가 모두 청정해 비난받는 일이 없으며, 갈마의 진행절차 역시 여법하게 이뤄져 갈마에 참석한 비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이런점에서 문제가 생겨 갈마에 참석한 비구들이 부적절한 갈마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세가지 가운데 단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별중갈마입니다.

계 잘 지키면 신심도 나는 법

또 화합을 기다려 잠시 따로 머물게 하는 '별주(別住)'와 하나의 의제에 대해 한 번의 동의를 얻는 '백이갈마(白二羯磨)', 한 번의 의제에 대해 세 번의 동의를 얻는 '백삼갈마(白三羯磨)'도 회의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또하나 있습니다. 바로 7가지 분쟁을 소멸시켜 평화롭게 하는 '칠멸쟁법(七滅諍法)'입니다. 율장에 의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개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7가지 멸쟁법을 설하셨지요. 바꾸어 말하면 7가지 약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죄를 없애주는 '현전비니(現前毗尼)'가 있습니다. 둘째로 중상모략당했을 경우 무고하는 자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범죄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한 연후에 없애주는 법인 '억념비니(憶念毗尼)', 셋째로 정신 이상으로 저지른 죄는 벌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정신질환이 회복되면 없애주는 '불치비니(不癡毗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포살법회때 스스로의 자백에 의해 죄를 없애주는 '자언치비니(自言治毗尼)'가 있고, 다섯째로는 본인이 습관적으로 이리저리 편리한대로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 할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추궁해 다수결의에 따라 죄를 없애주는 '다인어비니(多人語毗尼)', 여섯째, '다멱죄상비니(多覓罪相毗尼)', 일곱째, 비구의 파당 싸움이 계속돼 많은 계를 범할 뿐 아니라,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때에는 쌍방의 대표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분규를 일시에 없애는 법인 '초부지비니(草覆地毗尼)'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서는 안될일을 안하면서 해야될 일만 지키는 게 곧 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가자는 물론 재가자들도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를 잘 지키면 신심도 나는 법입니다. 신심이 나야 불교도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계를 잘 받고 잘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지관 스님은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 했으며, 55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1960년부터 70년까지 해인사 강주로 있으면서 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자운 율사 스님으로부터 계맥을 이은 스님은 해인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냈고, 동국학원 감사와 이사, 불교대학장을 거쳐 제11대 동국대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 동국학원 이사 및 명예교수, 재단법인 대각회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이다.

저서로는 <가산불교대사림권1~7> <한국불교소의 경전연구> <비구니 계율연구>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법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날 법회의 법주인 지관 스님이 동참한 5백여 대중들과 삼귀의 의식을 하고 있다.

논 찬

수계장에 꼭 가야 계 받을 수 있나…갈마가 필수



무관 스님
(조계종 계단위원회 위원)

질문1 : 스님께서는 법문에서 삼보중 승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승보가 탄생하려면 반드시 삼장중의 율장에 의해 계를 받아야만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수계장에서 백사갈마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이들은 책만 보고 굳이 수계장에 가지 않더라도 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관 스님 : 절대로 안됩니다. 계에는 계상이 있고 계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상은 계목 즉 5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체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계를 받을때는 부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통해야 계체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율문을 혼자보고 계를 받는 것은 혼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받게 되면 승상이나 우바새상과 같은 계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계의식을 해서 부처님을 통해 참회의식을 하고 갈마를 거쳐 받아야지 그냥 해서는 안됩니다.

질문2 :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계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래 계라는 것은 삼사칠증 스님들 밑에서 계단을 통해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감로 · 금강 · 영감 · 방등 계단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은 스님과 금담 스님이 금강계단에서 서상 수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기도해서 서상 수계를 받는 것과 백사갈마에 의해서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관 스님 : 계단의 종류는 앞서 설명해 드린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은낭오 스님처럼 칠불암에서 기도해서 계를 받은 서상수계는 엄격히 율장에 근거해서 따지면 계를 받았다고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상수계 또는 호상수계라는 것은 기도 해서 좋은 상호를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감동해서 계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해 계를 받는다는 것은 수승한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장대로 따진다면 서상수계는 비구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구계는 청정비구의 삼사칠증 즉 전계사, 갈마사, 교수사 등 삼사와 일곱분의 청정비구가 모셔진 자리에서 갈마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율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수행력에 의해 서상수계를 받은 선지식들에 한해서는 서상수계도 계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3 : 구족계는 자리(自利)를 근본으로 합니다. 대승보살계는 이타(利他)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일반 재가불자들이 보살계를 받아서 십중대계와 48경계를 지키게 됩니다. 비구들이 받는 십중대계와 48경계의 범위와 일반 신도들이 받아서 지키는 계들의 범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으면 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관 스님 : 인도 초기에서 본다면 비구계는 소승으로 봅니다. 인도 초기에는 대승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반야부가 생기고 보살 사상이 이루어지고 십선계가 생기고 그것도 모자라 더 발전된 것이 바로 삼취정계입니다. 이것은 섭율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인데 이 세가지의 근본 정신은 오로지 이타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비구계를 받는 제도가 없었고, 중국에서는 대승과 소승이 다 들어와 비구계를 받고 이어서 보살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보살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구는 대승이지 소승이 아닙니다.

재가신도는 좀더 적극적인 이타행을 하기 위해선 보살계를 꼭 받아야 합니다.

문헌상 정확한 자료 없지만 계맥은 있다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질문1 : 스님이 최근 발표한 책에 보면 불교가 중흥을 이뤘던 고려 시대에는 계를 설하는 곳이 개성에 6군데, 진주에 한군데가 있었고, 경상북도에는 이곳 동화사에 관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화사 계율법회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던 계율중에서 계란 무엇이고 율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지관 스님 : 계와 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는 정신적인 내면, 즉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戒)'라는 한문 글자를 해석하면 대문앞에 군인이 양쪽에 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사람은 들어오고 나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문단속 안하면 도둑이 들어오고, 나라를 잘 못지키면 외적이 침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둑이 무엇이냐 하면 '안이비설신의'와 같은 6적을 말합니다. 잘 보고 지키고 판단하라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여기에 반해 율은 외형적인 몸가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2 : 계율이 이어져 오는 것을 전계라 하고, 강사를 이어오는 것을 전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불교를 처음 전해준 마라난타 스님의 계맥 이후 우리나라에 전계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국 각지의 스님들이 자기 상좌에게 수계만 했습니까?

지관스님 : 전계는 스승이 계를 준다는 의미고, 수계는 제자가 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을 전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700년 불교사를 돌이켜볼 때 선사들이 이어오는 것을 법맥이라고 하고, 율사들이 전해오는 것을 계맥이라고 하고, 강사가 제자에게 전하는 것을 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법, 전계, 전강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문헌상으로 정확한 계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십수년을 연구했어도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환성지안 스님 이후부터, 나라에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과정에서 계맥이 전수가 안되고 끊어진걸로 판단됩니다. 용성 스님도 이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게, 정확한 자료가 없다뿐이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과 손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문헌에는 없지만 비문(碑文) 등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계를 받은 스님들이 4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미하지만 계맥이 있다고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 계맥을 확실히 잇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삼사칠증이 있다하더라도 아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종정스님이 계를 주는 증명법사가 되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관 스님 : 조계종은 1982년부터 단일계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일계단이라 하면 누구든지 스님이 되려면 절은 각각 다른곳에 있더라도 총무원에 행자 신청을 해서 1년이 지나 날짜를 지정해 교구본사에서 수계산림을 합니다. 갈마를 해 자격이 갖춰지면 계를 줍니다. 이때 계를 주는 스님이 바로 전계대화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계대화상은 종단에서 딱 한분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전계대화상은 종정스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단의 가장 큰 어른인 종정스님이 하시면 더욱 좋겠지요. 이렇게 단일계단이 시행된 82년부터 계맥이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불교교단사연구소 편『僧伽和合과 韓國佛教의 未來』(1)

출판기념 다과회 및 기자 간담회

출판기념 다과회는 본 연구소에서 집필자와 논평자 분들을 모시고, 함께『僧伽和合과 韓國佛教의 未來』출판을 기념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계율과 승가 공동체의 운영제도 및 불교교단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 장소 : 한국일보 송현클럽 12층 북한산 홀
- 일시 : 2005년 10월 24일
  오후 4시 ~ 6시 – 다과회
  오후 7시 – 기자 간담회

'제 32대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종단화합과 관련.
불교교단사연구소와 출가중이 공동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음.

계율과 역사 및 승가 공동체의 운영 제도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논저

僧伽和合과 韓國佛教의 未來

불교교단사연구소 편

"화합과 부동주(不同住), 인류의 평화를 위한 불교의 지혜."

"90년대 불교계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불교적 성찰을 통해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 있는 논서."

제 1부 승가의 멸쟁법(滅諍法)과 제재법(制裁法)
제 2부 승려대회와 한국불교의 미래
제 3부 종단개혁평가와 종교분쟁에 대한 재판



- 도서출판 혜민기획
- 신국판
- 값 18,000 원(단체구입시 할인)

■주문처
- 02)722-0588, 팩스 02)722-4143
- E-mail : iws523@hanmail.net

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 추천의 글

지성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화합(和合)과 부동주(不同住)', 승가에서 화합된 삶이 어려울 경우, 일단 부동주함으로써 화합을 유지하도록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교단 뿐만 아니라 남 · 북한 문제를 포함해 우리 인류가 공존 · 공영해 갈 불교적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성현 교수 (동국대 불교대학)
『법구경』에서는 "실로 제불께서 나타나심은 즐겁고, 정법을 설하는 것은 즐겁다. 승가대중이 화합하는 것은 즐겁고, 화합한 사람들의 수행은 즐겁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가의 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 한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박재승 변호사 (전 대한변협회장)
본서에 수록된 불교승가의 멸쟁법(滅諍法)과 제재법(制裁法)은 우리 법조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불교법률에 관한 초유의 논문집으로 금후 발생하는 불교종단의 분규를 판단하는데 불가결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믿어 조야의 법조인들에게 일독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강동균 교수 (동아대 철학)
불교의 참된 발전을 위한 진지하고도 피땀 어린 연구 성과들이 수록된 책이다. 그 안에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은 바로 '석존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현실을 율장과 불교교단의 역사에 비추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 있다.

공종원 선생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사람의 불자로서 또 조계종의 분쟁 과정을 지켜 본 언론으로서 이 책의 발간을 접하며 깊은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무쪼록 이 연구서가 우리 종단의 기본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리란 믿음에서 출간을 경하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마성스님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이 책은 90년대 조계종 사태를 계기로 승단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가를 제시한 아주 귀중한 자료집이다. 이 책에서는 율장을 근거로 승단의 분쟁을 해결하는 멸쟁법(滅諍法)과 승가의 제재문제(制裁問題) 등을 고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세상에 큰 파문을 일으킨 조계종 사태의 발생에서부터 사후 처리 과정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율장과 종헌 · 종법을 근거로 조계종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책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승단 내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단 지도자는 물론 전 사부대중이 반드시 읽어야할 필독서라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바이다.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10월 19일 수요일 제 548 호

깊어가는 가을 축제로 물들다

가 볼만한 가을 문화축제

전국은 지금 축제 중이다. 가을을 맞아 다양한 문화전시축제 및 단풍축제 등이 열리고 있다. 단풍과 꽃 · 문화재를 테마로 열리는 가을축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이다. 주말에 가볼 만한 축제를 소개한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물들고 있는 장성 백양사 단풍.


보은 속리산 단풍축제에서는 인간문화재 김대균씨의 외줄타기 공연이 펼쳐진다.

● 청원 추사 김정희 특별전

청원군에서는 가을을 맞아 10월 25일까지 청원군 문의면 대청호미술관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예, 간찰, 병풍, 탁본 150여 점을 전시한다.

추사의 제주도 유배시절 작품인 금석문(金石文), 경남 양산 통도사에 있는 노곡소축(老谷小築), 56세 때 초의 스님을 위해 전남 해남 대흥사에 써준 일로향실(一爐香室), 경북 영천 은해사 대웅전 현판 등 서예, 탁본 43점과 불교의 윤회설에 입각한 무량수(无量壽) 서각, 제주도 유배 때 제자인 이상적에게 그려준 국보 제180호 세한도(歲寒圖) 영인본 등을 볼 수 있다.(043)251-3114


추사 김정희가 타계하기 3일전에 쓴 서울 봉은사 현판.

백암산 학바위를 배경으로 부채춤 공연을 하고 있다.

● 보은 속리산 단풍축제

충북 보은군은 10월 21~23일까지 3일간 속리산 단풍축제를 연다. 속리산 단풍축제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매년 개최되던 가을한마당 축제, 충북알프스등반대회, 속리산 단풍가요제를 하나로 묶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22일 아침 9시에 시작하는 '충북알프스등반대회'는 속리산 잔디공원에서 세심정, 문장대를 거쳐 다시 잔디공원으로 내려오는 일정이며 15세 이상의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3일 정오에는 속리산 최고봉 천황봉 높이와 같은 숫자인 1천 57명분의 산채비빔밥을 무료로 나눠주는 '속리산 산채비빔밥행사'도 열린다. 또한 인간문화재 김대균씨의 줄타기공연 등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043)540-3392~3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는 직접 물레를 돌려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 청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청주에서는 세계 공예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10월 23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공예비엔날레는 공예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공예의 진수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여러가지 색의 구슬을 꿰어 목걸이나 팔찌로 만들 수 있는 비즈공예, 물이끼로 동물모양을 만들어 심는 식물공간예술 등 20여 개의 각종 체험장을 돌며 직접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번 비엔날레 기간 동안 한국공예관 제1전시실에서는 '땅으로 빚은 하늘'이란 주제로 조선찻사발특별전이 열린다.

임진왜란 전후 일본으로 건너간 뒤 한국인의 노력에 의해 되찾은 찻사발 52점이 전시되는데, 이 찻사발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일명 이도다완으로도 불리는 이 찻사발은 전국에서 6명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국보로 여길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043)279-5205

●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마산은 전국 국화재배 면적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국화도시로, 예로부터 마산국화는 연간 안개일수가 적은 온화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화훼인들에게 '화색이 선명하고 신선도가 뛰어나다'고 평가받아 왔다.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리는 마산 가고파국화축제에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축제장소인 돝섬해상유원지에는 해안가에서부터 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다륜대작, 절화국, 현애작, 석부작, 목부작, 달마작, 복조작 등 각양각색의 국화 30여만 본이 화려하게 단장될 예정이다. 또 국화작품전시 및 소망등 달기, 국화여왕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055)240-2271

● 장성 백양단풍축제

단풍의 계절 가을을 맞아 장성군은 백암산의 기암괴석과 오색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28~30일에 백양단풍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고찰 백양사와 함께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단풍숲 거리공연, 사생대회 및 백일장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목판탁본체험전, 단풍잎 모자이크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가 열린다. 또 29일 오후 5시에는 백양사에서 '백양사 나눔음악회'가 열리며 7시부터는 군청광장에서 '백양단풍음악회'와 불꽃놀이가 펼쳐진다.(061)390-7224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방송

팔만대장경에 담긴 고려불심

마산 MBC, 5부작 다큐 '문명을 새기다-대장경'


팔만대장경 목판본.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 성전(聖典) 고려대장경을 만난다."

마산 MBC는 한국불교문화의 전통과 고려인의 정신을 조명한 특집 5부작 다큐멘터리 '문명을 새기다-대장경'을 방영한다. 제1부 '갠지스로부터(10월 25일)'를 시작으로 '만리장성을 넘어(11월 1일)' '혁신의 역사, 고려대장경(11월 8일)' '칼끝에 새긴 숨결(1월15일)' '대장경은 살아 있다(11월 22일)' 등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60분간 방송한다.

제1부 '갠지스로부터'는 기원전 1세기 스리랑카에서 종려나무 잎에 삼장총서를 기록했던 대장경 역사의 시작과 배경을 조명한다. 또 부처님이 열반한 뒤 5백 명의 제자들이 칠엽굴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 후 문자로 기록하기 전까지의 구전(口傳) 삼장(경 · 율 · 론)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불교의 경전 계승 과정도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몄다.

이번 5부작 다큐의 하이라이트는 제3부 '혁신의 역사, 고려대장경'과 제4부 '칼끝에 새긴 숨결'. 제3부에서는 대각국사 의천의 속장경은 물론 일본 남선사에 있는 초조대장경 인쇄본을 면밀히 분석해 당시 고려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밝힌다. 특히 제4부에서는 75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속에서도 흠집이나 좀이 슬지 않은 신비스런 보전과정을 조명하며, 장경판전과 판가의 숨은 과학 이야기 등을 세세히 파헤친다.

연출을 맡은 안관수 PD는 "팔만대장경은 한국불교의 삼장을 대표하는 불교유산의 꽃임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장경판전에 갇혀 박제된 유물로 남아 있는 것이 늘 아쉬웠다"며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고려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팔만대장경에 담긴 고려인의 불심과 지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전시

차와 선의 만남 '다선일미'

해남 대흥사, 이영수 서각전


채색이 가미돼 현대적인 미를 느낄 수 있는 이영수씨의 서각작품.

이번 주말에는 해남을 찾아 대흥사에서 열리는 초의문화제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특히 초의문화제 초대전으로 열리는 서각전은 특별한 감흥을 선사한다.

10월 22일~11월 6일 대흥사에서 열리는 서각가 이영수씨의 '차와 선이 어우러진 서각 초대전'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다선일미(茶禪一味)'를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영수씨의 4번째 개인전이기도 하다. 초의 선사의 선시, 다시(茶時) 등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선시 등을 서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채색을 통한 표현 등 독창적인 감각이 돋보인다. 다양한 글씨체는 현대적인 미적 감각을 뽐낸다. 글씨와 어우러진 간결한 그림은 그 자체로 이미 선(禪)이다.

이영수씨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차와 선을 통해 순간순간 놓쳐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는데 주력했다"며 "관객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061)534-5502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2006년 달력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이 2006년 달력을 선보인다. 국6절, 사륙12절, 국12절 달력은 물론이고 탁상용 월력, 스프링이나 홀더로 제작된 미니 차걸이용 달력, 숫자판 카렌다, 메모 카렌다 등이 준비돼있다.

류귀화 선생 닥종이 인형, 원성스님 동승그림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2006년 달력은 고급 스노우화이트지에 인쇄해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다. 가격: 5백원~3천원 (02)732-1520

게시판

자선바자회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19~20일 지하철 1호선 신길역 광장에서 KBS사회봉사단과 함께 혹한기 무의탁 독거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마련 자선바자회를 연다. 생활용품, 의류, 먹거리 등을 판매하며 연예인 소장품 경매도 이뤄진다.(02)831-2755



템플스테이 사진공모 조계종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10월 31일까지 템플스테이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사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진이나 운영사찰 전경사진 등을 원본 CD 또는 필름과 함께 템플스테이 사무국 앞으로 보내면 된다. 1등에게는 50만원의 상금과 기념패가 주어진다.(02)732-9925

청소년자원봉사한마당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10월 22일 제3차 청소년자원봉사한마당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효 실천, 손자손녀 되는 날'을 개최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 50명이 혜명양로원 어르신과 함께 대화나누기, 점심식사 모시기 등 1:1 활동을 펼치게 된다.(02)735-8165

조부모 · 손자 제주도 여행 서울 자양사회복지관은 10월 21~23일 건강한 조손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손녀 20여 가족을 대상으로 제주도로 떠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458-1664

20면 상식 퍼즐 정답

강	아	지	풀			
천			피	뢰	침	
사	경		리		전	
	국				물	권
	대					모
	전	대	미	문		술
				상	록	수

이영화 어때요?

촘촘히 짜인 여섯 빛깔 인연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감독: 민규동 출연: 엄정화, 황정민 장르: 멜로 상영시간: 129분 등급: 15세 이상

일곱 색깔 무지개만큼이나 아름답고 덩크 슛처럼 짜릿했던 일주일, 당신은 있었습니까?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여섯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속속들이 파헤친 영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이 영화는 우연히 꽃미남 가수를 만나 마음을 빼앗긴 예비 수녀 윤진서의 아슬아슬한 '사랑 줄타기', 전직 농구선수 김수로와 그를 사랑하는 팬과의 사랑 이야기 등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들었다.

오직 사랑만 먹고사는 가난한 젊은 부부 임창정 · 서영희 커플. 너무나 사랑하기에 생계에 대한 고민도 없이 덜컥 결혼부터 한 용감한(?) 이 두 사람. 거리외판원으로 취직해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만, 남의 것에 눈독들이지 않는 바른생활 부부의 진솔한 신혼이야기.



다 망해가는 극장주 주현. 지금이라도 불후의 명작을 찍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며 허풍을 떨며 영화 같은 인생을 꿈꾸며 산다. 그 극장 옆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오미희. 그녀 또한 오드리 햅번처럼 영화 속 주인공일수 있다고 꿈꾸는 50세 꽃띠소녀다.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다. 아직 이런 일주일을 살아 본 경험이 없는 당신이라면 이 영화를 보며 사랑표 수영복을 입고 행복호수에 빠져 '헬프미(Help Me)'를 외쳐보는 깜찍한 상상에 빠져 봄은 어떨까.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나에게 아비라 기도는 (중)

김두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삼천배를 하면서도 내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절을 통해 얻어지는 하심(下心)과 인연공덕, 업장소멸이 아니라 오로지 성철 큰스님을 뵙는 것이었다. 스님을 뵙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잃어버린 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까"를 여쭈어 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삼천배를 마치고 큰스님을 뵙고 난 후 내가 궁금해 한 것들에 대한 답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다. 대신 심원(心源)이라는 불명과,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예경(禮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성철 스님을 친견한 느낌은 맑고 투명하고 청량했으며 미소 띤 인자한 얼굴에서는 형형한 눈빛이 나와 감히 거역할 수 있는 위엄을 느끼게 했다. 또한 오래되긴 했지만 너무나 정갈하고 단정한 옷매무새는 쾌두쾌미한 수도승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경심과 겸손함을 이끌어 내는 힘이 있었다.

기도 중에 스님께 꼭 물어보리라 다짐했던 얼토당토 않던 질문들은 어느새 달아나 버렸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스님 얼굴만 쳐다본 채 서있던 나는 "기도 열심히 하라"는 스님의 한 마디만을 듣고 방을 나왔다.

그러나 스님을 뵙고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하는 큰스님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청량한 기운은 내 영혼을 지배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솔직히 그동안 나의 꿈이라는 것은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 자식을 두세 명 두고, 사업이 잘 되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멋있게 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성철 스님을 뵙고 난 후 나는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고, 평생을 통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재정비하게 됐다. 그 첫 번째 순서가 일과기도 정진이었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께서 지도해 주신 기도법에는 삼천배 기도 말고 아비라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또한 업장을 소멸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스님을 뵙고 2개월이 지난 후 나는 여류 거사와 함께 아비라 기도에 참석했다.

성철 스님 친견 후 평생 정진할 것 결심
'설마 죽기야' 하는 마음에 3일 밤낮 기도
내 마음 읽고 계셨던 스님 '심원' 법명 주셔

당시 거사들은 원통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겨울도 아닌 한 여름에 장작을 쪼개 아궁이에 불을 때 가면서 기도를 했다.

처음 하는 아비라 기도에 대한 긴장감이 나를 감쌌고 뜨거운 열기는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방바닥의 열기는 너무 뜨거웠다. 나름대로 묘책이랍시고 박스를 구해 2~3장 깐 후 그 위에 덮고 자는 이불도 깔아 두껍게 만들고 그 위에서 기도했다.

사시예불과 함께 기도가 시작됐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속옷은 물론 법복까지 흠뻑 젖었고 장궤합장을 한 다리는 마비되듯이 고통스럽고, 합장한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선배 도반들이 진언을 크게 외치라고 했지만, 아무리 진언을 하고 싶어도 뱃가죽이 당겨 내 의지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기도 시간인 30분은 너무나 길었고 혹시 시계가 멈춘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시간이 늦게 흘렀다. 제풀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쯤 죽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긴 숨을 토해내고 일어나서 3배를 하면 한 파트 기도가 끝난다.

한 파트 기도가 끝나면 25~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갖는데 이때 능엄주를 일독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능엄주 일독을 하는데도 20분이 넘게 소요되었으니, 휴식을 취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고, 쉬는 시간에 맞춰 능엄주 정독을 하기에도 급급했다.

불현듯 '내가 이렇게 힘든 기도를 왜 왔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에 정진하고 있는 여류 거사님에 대한 원망도 일었다. 한 파트 기도가 이럴진데, 나머지 23파트를 어찌 끝낼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이런 내 마음을 예상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동차 키를 여류 거사님이 보관하고 있었으니 해인사 백련암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

또한 당시 백련암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기도 온 학생도 있었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계셨는데, 젊은 내가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솔직히 당시에는 '힘들어도 이번만 끝내고 가자, 설마 죽기야 하겠냐' 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백련암의 첫날 잠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기만 했다.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자야 했고, 바닥이 뜨거워 잠도 깊이 들지 못했고, 유난히 씻는 걸 좋아하는 내 습관으로는 잘 씻지도 못한다는 사실도 힘겨웠다.

둘째 날 기도가 시작됐다. 고정된 자세로 지탱하고 있어야하는 다리는 이미 마비되어 내 다리가 아니었고, 공양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고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이틀째 기도가 끝났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들었지만, 저녁이 되니 언제 낮에 땀을 흘렸는지 모를 정도로 땀냄새도 나지 않고 뽀송뽀송한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7번째 기도에서 드디어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아프던 몸뚱어리가 갑자기 하나도 아프지 않으며, 기도하는 몸 상태가 아주 편안해졌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도 뱃가죽이 당겨 하지 못했던 법신진언 '옴 아비라 훔 캄스바하'가 술술 나오는 것이었다.

덕분에 이후 기도는 거뜬하게 마칠 수 있었고 기도를 끝낸 후 스님은 나에게 '심원'이란 법명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불명을 주면서 스님께서는 "니, 아비라 기도하면서 3일째까지 욕 많이 했제? 다시는 아비라 기도 안 올라꼬 마음도 먹고… 그래도 니는 심원이 무슨 뜻인고 알제?"라는 말씀을 하셨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성철 스님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훤하게 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계셨다는 당황스러움에 부끄러움이 느껴짐과 동시에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2005년 화제신간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일곱 번째 완성자
해조음 /값 9,500원

저자특별공개강좌

주요내용
-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불 출세시 인간 수명이 팔만사천세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진위와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 중생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래출현의 비밀은 무엇인가??



- 서울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 부산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 대구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

강좌 문의
053)653-9124

전국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

아래와 같이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와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1)세미나일정 : 10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9:00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 가능)
(2)교육내용 : 전통적 최면과 에릭슨최면, NLP, 전생치료 -빙의치료의 원리와 방법 (이론강의와 실습위주)
(3)교 육 비 : 150만원
(4)장 소 : 본 연구원 강의장
(5)개인상담안내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설기문박사가 직접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6)상담내용 : 불안증 및 공포증, 우울증,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각종 알레르기 문제, 비만문제,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빙의 문제



● 설기문 박사 : 상담심리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1997년 이후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전생상담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전생퇴행", "최면과 최면치료", "전생가기 참 쉽다"와 같은 다수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한국 최면-전생상담 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번지 안양건설타워 617호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구
(엔시-뉴코아백화점 맞은편 시티은행 옆 17층건물)
전화: 011-1762-4598
인터넷 주소창: 설기문 또는 최면술 www.nlpplus.com
daum 카페: 설기문트랜스넷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11. 7 월 · 화 반(주 · 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토요일, 일요일 전문가과정 특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16번지 고영빌딩 407호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30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2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구독문의 : 02-2004-8211~2(고객관리부)

알림

현대불교가 만드는 <불교평론> 정기구독 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를 담은 CD를 드립니다



<불교평론> 창간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CD가 제작됐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교평론> 제작을
기념해 지난 5년간 제작된 23권 전체를
CD에 담아 <불교평론>을 정기 구독
하시는 분께 증정합니다.
우리시대 유일의 불교 지성 교양지
'불교평론'은 이 시대 불자
지성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정기구독 가능!

<불교평론>, 정기구독 방법도 쉬워졌습니다.
본사 고객부로 전화 한통만 주시면 구독료
자동이체로 쉽게 정기구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관리부(02-2004-8211~2)로 전화를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에 1만원씩 연간 4만원이 이체됩니다.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 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 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
  국민은행 : 038-25-0008-365(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입금 후 전화 확인 하셔야 합니다)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 제조 및 판매 : S선농BIO식품(주)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하남시민을 위한 축제 ! 불자를 위한 축제 !

초 하남 상불사 산사음악회 대

초대의 글을 올리오며...
하남시에 자리한 상불사 도량은 43년을 하남시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비구니 천도스님의 창건과 비구 학산스님의 중건을 거쳐, 이제 동효스님이 새로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이 도량을 이루기 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 감사보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불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 가을에 "산사음악회"를 하남시민은 물론이요, 상불사와 인연이 지어졌던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꼭~ 오십시요. 꼭~ 오셔주십시요. 방문해 주심을 환영합니다.

하남 상불사 불자들 두손모음

- 공 연 : 풍물, 찬불가, 범패, 승무, 스포츠댄스, 대중가요
- 특별출연 : 남진 -님과함께, 둥지 외 ● MC : 가수 박현 - 성공시대, 민들레사랑 외
- 출 연 진 : ◆불교법우회 - 범패, 승무, 화청 ◆상봉스님 - 불교그림 ◆향운스님 - 노래 ◆불교레크레션협회 - 찬불가와 레크댄스 ◆김도훈, 김지수 - 스포츠댄스 ◆신정용과 한얼팀 - 풍물 ◆상불사 불자회 - 찬불가, 대중가요
- 일 시 : 2005년 10월 28일(금) 오후 5시 30분부터
- 장 소 : 하남상불사 도량 (하남 IC 인접. 대중교통 - 하남등기소 앞 하차)

※ 행운권 추점 경품 - 묵화 달마도, 공기청정기, 자전거 외 여러가지

▷주관 : 하남상불사 불자회 ▷후원 : 국민상조 http://cafe.daum.net/sangbulsa
▷협찬 : 동학사 승가대학 반야공회, 은백음향, 불교법우회, 불교레크레션협회, 유마기획

한마음 쉬어가는 도량
하 남 상 불 사 경기 하남시 천현동 산 31 ☎ 031)792-4585, 011-392-1019



신간



몸에 지니기만해도 병이 낫는 청혈기술

고혈압 동맥경화 걱정없다

이 재 복 편저

이책속에 귀하의 평생 건강이 있습니다.

100쪽 값 6,000원

- 죽음을 부르는 탁한피 당신의 피는 안전한가
- 꽉막힌 혈관 확 뚫어라
- 심혈관 질환의 주범, 고지혈증
- 고지혈증의 원인과 증상
- 증이라고 무시 했다간 큰코다친다.
- 한국인이 더 위험
- 심장병 환자에겐 시간은 생명
- 뇌졸증 주범은 뇌경색
- 몸에 지니기만 해도 병이 낫는 청혈기술
- 북한 의학박사가 발명한 방해석의 신비
- 18년간 1만명이상 임상시험
- 심, 혈관질환 치료율 98.8%
- 당뇨 합병증예방, 치료한다.
- 21세기 인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의학적 대발명
- 38년간 고생하던 두통이 하루만에 없어졌다.
- 불면증이 4일째부터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
- 두통과 메스꺼움이 7일만에 없어졌다.
- 편두통에서 벗어났다.
- 두통으로 하루 8알씩 먹던 진통제를 끊게 되었다.
- 신우신염이 좋아졌다. - 이명증이 없어졌다.
- 하지 정맥류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 손, 발 저림이 하루 밤 사이에 깨끗
- 혈압 200-97이 3일만에 120-70으로
-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피가 맑아졌다.
- 소변에 혈흔이 나타나지 않는다.
- 극심한 생리통이 없어졌다.
- 25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안 먹게 되었다.
- 숨이 차고 , 불안, 가슴두근거림이 없어졌다
- 심장 압박에서 벗어났다.

※많은스님들이 애용하신후 질병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 02)3436-32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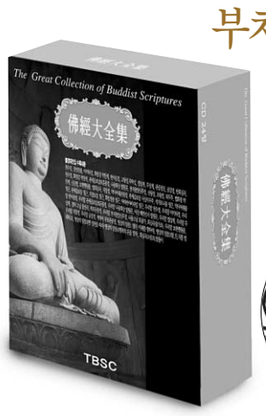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New 2005년

오디오불경대전집

佛經大全集 탄생

경전을 듣는 사람이면 어리석음에서 눈뜨고 무명을 깨뜨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무소유보살경)



CD 23장



불경대전집 수록내용
천수경, 장엄염불, 아미타경, 화엄경 약찬게, 반야심경, 고왕경,목탁성, 법성게, 무상게, 관음정진, 금강경, 반회심곡, 천수경, 화엄경 약찬게, 관세음보살보문품경, 나옹화상 발원문, 천지팔양신주경, 산왕경, 조왕경, 복두주, 법화경 약찬게, 신심명, 보현행원품, 별회심곡, 지장경, 약사여래본원경,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주, 석가모니불 정근, 약사여래불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보살 정근, 화엄정중 정근, 마하반야바라밀 정근,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반야심경, 우리말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우리말 나옹화상 발원문,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 우리말 법성게, 우리말 무상게, 경허 스님 참선곡, 부모은중경, 우리말 천지팔양신주경, 나옹스님 토굴가, 회심곡(불가조), 우리말 보현행원품, 우리말 지장경, 우리말 금강경, 현대어 부모은중경, 명상의 말씀1 (밝은 미래를 향하여), 명상의 말씀2(탐,진,치를 멀리하고), 명상의 말씀3(옛 성현을 따라) 명상의 말씀4(행복의 문을 열자), 회심곡(소릿조),탑돌이

◆ 수록시간 : 25시간 07분
◆ MP3용 : CD1장 + 고급우단 케이스 가격 = 25,000원
◆ 일반CD용 : CD23장+휴대용 CD자켓 가격 = 60,000원



부처님의 말씀은 수 많은 경전으로 엮어져 무량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를 다시 이 작은 CD로 감히 엮어 선을 보이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도를 바라며 부디 이 「불경대전집」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MP3 CD 1장
컴퓨터,DVD,MP3CD 플레이어 용

은행계좌 : 제일은행186-20-017075 예금주 : 홍선희

티비에스시(TBSC) www.tbsc.co.kr T.3274-1198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58 용산전자 O/T1116호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현대불교 제548호
서기 2005년 10월 19일
(음력 9월 17일) 수요일

실천하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가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모두를 잘 아시고, 너라고 하는 것이 너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참 생각하면 극치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한 말입니다, 극치적이게. 형제간에도 진짜로 "너만은 할 수 있어." 이러고 위로를 해줄 때가 있죠. '너만은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럴 때 진정으로 아주 진실하게 들어가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못된 이름도 아니고 잘된 이름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 뜨거운 정열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고요, 그럼 말씀하세요.

▲질문자1: 스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에 불을 밝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원에 처음 입문했을 때 스님께 질문드렸던 그 마음과 지금 제 마음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공부한다는 마음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님: 그래요. 예.

▲질문자1: 열 마디의 진실한 말을 하였을지라도 한 번의 침묵만 못하다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지금 날더러 뭐라고 그랬죠? 전자에 질문할 때와 지금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으리만큼 감사합니다, 이랬죠? 나도요. 부처님의 그 뜻과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뜻을 말로 어떻게 할 수가

>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직선적으로 들어가세요!"

없어요. 이것도 어떡하면 표현을 좀 해줄까 해서 그냥 하는 거지 진짜로는 가고 옴도 없이 가고 오고, 온통 그냥 일어나는 줄 모르게 일어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그냥 뭐 모두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온통 이러는 데는 이것을 뭘로 말을 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아야만 아마 이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에, 한 번 침묵만 못하다 이러는 것은 열 마디 말로 아무리 해봤던들 소용이 없고 한 번 생각의 침묵이 그렇게 우주를 들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원에 와가지고 많은 스님들 말씀을 듣고는 저도 처음에는 도를 이루어보려고 상당히 집착심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제 마음은 이 마음공부 하면서 한마음 공부는 단, 도도 아니요 또 내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편안하고자 함도 아니고, 말로 굳이 표현해서 말씀드리자면 맹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스님: 올바르게 그냥 생각하시고 살면요, 본인의 몸뚱이 속에 있는 의식들이 다 본인의 생각을 따라줘서 한 침묵이 한생각이 돼서 한생각의 법이 돼요. 그래서 법이 됨으로써 그것을 이름해서 법신으로서 움죽거리는 것을 뜻하죠. 그걸 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 모두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질문을 할 때 자기가 알았더라도 남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도 그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 그것을 잘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가 터득을 해야지 남이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런가보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해가지곤 안 돼요. 냇물이 흘러가는데 끝이 없다 이러니까 끝이 없는 걸로만 그냥 알지 말고 진짜로 그 끝이 없는 걸 집어먹어 봐야 안단 얘깁니다. 나는 똥누고 밑 안 씻는 사람은 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똥을 누고선 반드시 밑을 닦고 깨끗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앞으로 성취를 꼭 하실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질문자1: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 말씀해주신 감로법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2: 아버님이 운명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과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막상 그 일에 처하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실 때마다 정말 맨 처음에는 고통으로 보니까 참 고통스러웠는데, '한마음 주인공, 한자리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산고를 겪고 있으시구나!' 그렇게 한생각 돌리니까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언니들이 큰스님 친견하고요, 그날 바로 편히 몸 벗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8남매인데요, 그 당시에 큰 오빠가 교도소에 가 있었어요. 이렇게 국토의 버려진 땅을 유용하게 썼는데 현행법으로는 위법이 되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있는 사이에 아버님이 그렇게 굉장히 위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80 평생을 사신 아버님이 장남 못 보고 가시게 하면 서로 한이 되니까 장남 얼굴 보고 가실 수 있도록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탁 말겠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오빠가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류가 한데 뭉쳐지면 그게 죄가 과해가지고 입건이 되고요, 서류가 나누어지면 죄가 약해져가지고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류가 자연스럽게 풀려졌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속의 뜻은 저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곤 나중에 아버지하고…, 그런데 잠 자식하고 부모지간이란 그렇게 착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경을 헤매시다가도 정말, 정말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큰오빠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 보고 그때 의식 잃으시고 한 3일 효도하실 수 있게끔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8남매 중 6남매는요, 한마음 공부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오빠하고 막내오빠가 기독교인거든요. 그래서 오빠하고 3일 동안 계속 아버지 이쪽 손, 저쪽 손 잡고 오빠랑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얘기하고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이 깜짝 놀란 게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빠도 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니까 한마음으로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문제되었던 게 왜 우리가 갈고 닦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오빠한테 그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제 마음에서 '아! 우리 부처님도 내가 부처라고 하면서도 내가 부처라고 내세우면 이미 부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건 말이구나. 진리는 하나구나.' 그러면서 어렴풋이나마 글자를 보지 말고 백지를 보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 장례식 절차가 문제가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세례를….

▲스님: 그래서 그렇게 관했더니 오빠가 아버질 만나고 돌아가셨소?

▲질문자2: 예.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영결식장에서요, 저희가 이 공부를 안 했더라면 어쩌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찬송가 부를 때 불러드리고 모든 그런 절차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초상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잔칫집 같이 그렇게 화목하게 그 일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 모든 걸 그렇게 해서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마음 안에서 의정이 있는 게요, 목사님이 오셔서 전부 예배 절차도 다 하고 우리 광주지원 스님들께서 시다림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음에서 의정이 나는 게 물론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데, 형식과 마음이 둘이 아닌데 어떻게 형식이 틀리는데 마음이 하나로 돌아갈까? 그게 의문이 생깁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제각기 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다르죠. 모습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모두가 달라요. 그러나 다른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비유하건대 불기둥이 땅을 딛고 하늘을 꿰고 있다고 합시다. 그 불기둥을 중간에 끼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그 불기둥에 꿰여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그 돌아가는 것마다 똑같을 게 없어요. 전부 불기둥에, 한 불기둥에 꿰여서 돌아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수레가 제각기 돌아가는 거는 차원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모든 게 전부 다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각기 돌아가면서도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로 돌아가면서도 제각기 돌아가요.

그러니 이것을 사람들이 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죠. 각자 내 몸뚱이를 생각해보세요. 다른 걸 보지 말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로 돌아가지 않나. 그러면서도 모습 다르지, 의식 다르죠. 다 생명은 똑같은데 전부 달라요. 그리고 소임 맡은 것도 전부 다르고요. 안 그래요? 위장 공장 · 간장 공장 · 대장 공장 · 소장 공장 · 방광 공장 · 콩팥 공장, 식도 공장 그냥 모두 제각기 다 다르죠. 그래도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의식 자체를 모아서 모두 다스리는 선장 말입니다. 자기 영원한 선장, 주인공 말입니다.

▲질문자2: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맛있게 밥상 차려주셨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맛있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하치않다 하지마는, 이게 생활 속에서 다 쓰이고 생활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체험들입니다.

▲질문자3: 저는 한마음선원 신자가 아니고 오늘 우연히 조카의 말을 듣고 큰스님을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법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나 스님들의 설법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87세이신데 60년 전에 천신이라는 신을 믿고 계시는데 저는 부끄러움으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혼자 하시면 되겠지 그랬는데, 이제는 가실 때가 가까워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섭다고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지금 모시고 있는 신들을 천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마음선원에 다니는 조카가 큰스님을 뵙자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머니는 공덕을 많이 닦고 혼자 신을 모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따르지를 않고 좀 부끄러워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시는 마당에 어머니가 모시는 신들을 좋은 데로 천도할 수 있는 그 일을 맡아주셨으면 하고 왔습니다.

▲스님: 그래서 저더러 그것을 없애달라고요. 허허허. 글쎄요, 없애드리기는 하겠지만요, 지금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질문자3: 저도 깨닫은 바가 많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저도 한마음 신도가 되어서 마음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스님: 예.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요,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댁에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것은 해결이 났다고 봐야죠. 그런데 댁의 마음이 겁이 나서 모셔놓은 물질을 해결을 못할 겁니다, 겁이 나니까. 이 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물 한 동이 떠다 마당에 놓으시고요, 뭐 마당도 없네요. 그냥 갖다 놓으시고요, 상에다가 그냥 물 한 그릇 떠 놓고요. 상 아니더라도 좋아요, 어떤 항아리라도. 그러시고 초 향 켜놓으시고요, 그 옆에서 모두 그것을 사르세요. 살라버리시고 왼쪽으로 세 번 돌면서 '주인공! 당신이 해결해.' 하고 세 번 위쪽으로 도시고 서서 절 세 번 하시고 끝마치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도 좋은 데로 가실 거고, 그 노인네가 젊어서부터 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니깐 그런 것이지 알고는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고 여북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손들을 위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볼 점이 있죠.

▲질문자4: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렇지만은 스님께서 설법하신 책을 보고 수행한 지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그 책을 읽으면서 수행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와 닿아서 진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

> "근본에 다 맡기고 믿고 일임하고 거기에서 꺼내 쓰세요!"

게 돌이켜보니까 그건 또 새로운 하나의 탐심이 아니었던가? 오히려 놓고 맡긴다는 게 하나의 뭐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볼 때 내가 찾아야 될 나, '참나'와 그 다음에, 맡기고 놓아야 될 이 '가아(假我)' 이게 차이가 나서 제가 많이 혼동이 옵니다.

그렇게 하고 스님 말씀이 다 이해는 가는데, 순간순간 저희들이 경계에 부딪칠 때 즉, 진심(瞋心)이라든가 심한 그 탐심에 부딪칠 때는, 그런 의식이런 것도 되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거기에 말려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고 아주 심하게 번뇌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은 안쪽으로 굴리면서 절도 많이 해보고 또 참선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또 마음이 더 여여하고 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찾아야 될 '참나'와 그 다음에 놔야 될 '가아(假我)'와의 차이, 고 다음에 마음은 안으로 굴리면서 절을 많이 하고 참선을 하는데, 그 수행 방법 두 가지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가아(假我)도 없고 참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둥 하나가 이렇게 방편으로 있다면 굴레가, 거기에 끼고 돌아가는 굴레가 있습니다. 기둥은 움죽거리지 않지만 그 굴레는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 그 수레가 역시 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가짜나'가 믿고 찾는 것, 또는 진짜 참나가 하는 것 이렇게 따로따로 찾지 마세요. '주인공' 했으면요, 그 기둥 째 수레 째, 내가 찾는 나와 더불어 같이 지금 댁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수레에서 굴러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수레에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수레에서 나오는 대로 그 수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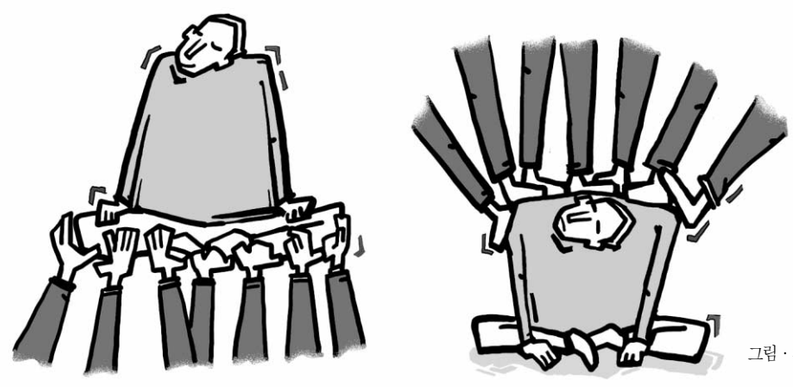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활하면서 모든 걸 한마음으로 조복 받아야

☞29면에서 계속

레에다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선을 하고 또는 참나를 찾으면서 절을 하고 이러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똥누고 싶으면 똥누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럴 때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이자 그냥 도예요. 그러니까 행주좌와(行住坐臥)를 그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앉아서 참선할 사이가 없는데도, 시간이 없는데도 참선한답시고 시간을 내서 앉아있다면 그건 참선이 아니에요. 진짜 참선이라는 것은, 똥누면서도 진짜 진실히 돌아간다면 그게 바로 참선이 돼서 공덕이 되는 거고요, 공심(共心)으로 돌아가는 게 공덕이에요. 공심으로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한마음으로 움쭉거리고, 한마음으로 먹고, 한마음으로 살고, 한마음으로 용을 하고, 모두 이러는 것이 그대로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살고 이런다면 자기를 보기까지, 참자기가 자유스럽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생활 자체가, 당신이 보고 듣고 하고 만나고,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랑하고 돈 벌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당신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하고 거기다가 다 맡기고 믿고 일임하고 그러고 꺼내 쓸 때는 거기서 또 꺼내 쓰고 이렇게 하세요. 아까 얘기 들으셨죠. '어, 아드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밖에 없다.' 고 할 때 아드님이 나와서 사흘을 지내고 난 뒤에야, 같이 계시다 돌아가셨다고요. 어때요? 이것이 우연 같죠? 우연은 없습니다. 이 도리에서 '우연히'라는 건 더더욱 없어요. 내가 그냥 생각하고 사는 게 그대로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얘기했죠. 아, 이성계가 꿈을 다섯 가지를 꿨죠. 꿈을 너무나 기막힌 꿈을 꿨죠. 색경이 그냥 와르르르 깨지는 것과, 꽃이 그냥 활짝 폈다지는 것과, 대문에다가 허수아비를 매달아놓은 꿈과, 까마귀가 까옥까옥하고 짖고 가는 꿈, 이렇게 꿈을 꿨을 때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럴 때에 무학 대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 얘긴 다 집어치우고 본론만 말하자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학 대사가 어떻게 꿈 해몽을 해줬는지 아십니까? '당신 생각에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꿈이요, 꿈 꾼 것도 꿈이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당신 생각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하고 나서 잠자코 있으니까 야, 까옥까옥 짖는 그 까마귀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오, 가옥이니까. 하하하. 색경이 와르르르 깨지는 거는 주변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는 꿈이요, 또 꽃이 활짝 피었다가 지는 것은 열매가 맺는 꿈이요, 또 허수아비를 쳐다보는 거는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우러러보는 것이요, 아 요렇게 딱 말씀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임금 노릇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한생각에 생활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두 사람들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조절을 하게 돼 있죠. 아, 이런 비밀도 내가 얘기를 하니 이거 야단났죠. 하하하.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생중생을 항복을 받는다면, 조복을 받는다면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응신(應身)이 돼서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응해주시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모든 걸 한마음으로서 조복을 받아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자4: 스님! 설법 감사합니다.

▲스님: 실천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언제 이놈의 것을, 이렇다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 언제 실천하고 터득하겠습니까? 죽고 나서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리 아주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서 그냥 해버려야죠.

▲질문자5: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배 부부의 권유로 해서 금왕지원에서부터 KBS홀, 오늘까지 세 번째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말씀마다에 제가 많은 걸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오는 차 안에서 많은 도반들이 한마음 공부에 대해서 토론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마음공부를 해가지고 주인공을 주장자 삼아서, 예를 들어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기고 관(觀)하고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 같은 초심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대단한 경지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성불의 경지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저도 마음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지난 금왕지원 법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의문을 느껴서 외람되게도 질문을 올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인공을 주장자 삼아가지고, 예를 들어 모든 걸 '주인공,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인공 네가 해결해.' 하는 이런 말씀은 스님 법문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제가 정작 주인공을 보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주인공을 제가 느끼고 볼 수가 있다든지 마음으로 느끼고 있어야 저도 주인공을 찾아서 주장자 삼아가지고 거기에 관하고 믿고 모든 걸 이렇게 하겠는데, 현재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건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 자신 속에 불성을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겠는지 하는 걸 가장 여쭈고 싶고요. 정리가 안되니까, 그 다음 마음공부가 아무런 진전이 안 되는 걸 한 달 사이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면 두 번째 것은 예를 들어 스스로 짓고 지은 그 어떤 업이나 습으로 인해서 지은 병고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액난 같은 이런 것을 주인공한테만 맡겨 놓고, 아까 앞에 도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전생에 제가 지었던 업이나 습으로 인하여 받은 그 환난과 고와 어떤 병을 '주인공, 네가 했으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인공, 다 해.' 하면, 그럼 저는 비켜서가지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어떤 면에서 좀 뭐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점. 그럼 적어도 주인공은 제 자신의 나 하나에 대한 어떤 병고라든지 제 가족, 친족, 처자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주인공을 운영한다 했을 때 좀더 넓은 의미에서, 기복적이지 않게 제가 마음공부를 해가지고 주인공하고 자유자재로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이웃이 있다든가 할 때, 그랬을 때 제 주인공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지 이 점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시려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하나가 없으면 그 가정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댁의 몸뚱이가 배 한 척이라고 합시다, 배 한 척. 아주 허허바다에 지금 띄어진 배 한 척이에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맡입니다, 지금 댁의 몸 안에 모든 중생들이 다 살아 있듯이, 그 배 안에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망망대해를 지금 젓고 갑니다. 그 배 안에서 지금 마음이라는 선장이 노를 젓고 가요. 그런데 그 자생중생들이 배 안에서 가만히 침착하게 앉아서 선장한테 '아휴, 노를 잘 젓고 가야 다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선장 당신만이 모두 살릴 수 있어. 당신만이 살게 할 수 있어.' 하고 모든 걸 선장한테 일임해야지 제각기 들고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용신 모두 찾고 야단을 하면 그 배는 뒤집혀서 못 살게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댁을 지금 끌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댁의 몸뚱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댁의 마음 이전 근본 뿌리가 당신을 끌고 다녀요, 지금. 영혼이 불성인 줄 알지 마세요. 영혼 자체가 그대로 당신을 끌고 다니는데 근본 자체가 당신을 이렇게 생산시켰고, 그런데 끌고 다니는 건 영혼 자체가 끌고 다녀요. 잘못 끌고 다니고 잘 끌고 다니고, 마음대로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야 이게 한마음으로 하나로 돌아가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과 같고 또 한 가지는 방편이 있어요. 저 일체 나무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무들이 뿌리가 있어서 모두 살고 있죠. 그 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나무의 뿌리를 보고 있지만 그 나무는 자기 뿌리를 못 보고 있어요, 흙이 가려서. 그런데 그것을 불가(佛家)에서는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에 덮여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듯이 그 나무는 바로 제 뿌리를 믿어야, 제 뿌리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그 싹은 또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려보냅니다.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싹은, 그 나무들은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네? 저 상대방의 나무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큰 형상의 다른 나무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높은 이름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못났든 잘났든 자기 뿌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자5: 자기 뿌리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스님: 그런데 뭘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질문자5: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 더 하겠습니다.

▲스님: 예, 하하하.

※위 법문은 1994년 11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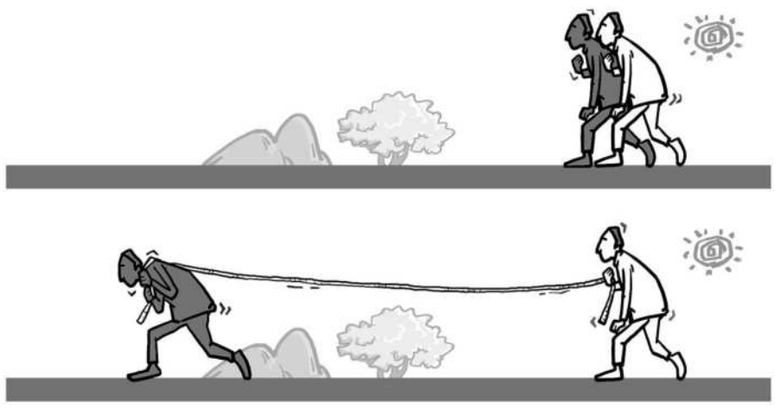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용도에 따라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이자 道!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천도재 비디오 3개 (대령, 관욕, 시식, 배송) 완벽한 방송용 자막 커리, 할인가 6만원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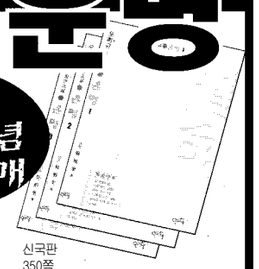
제4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본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뜻 있으신 분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과 정
기초과정(6개월)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상용영반, 요잡, 목탁타법
전문과정(1년) | 삼신이운, 각단권공, 사다라니, 대령관욕, 49재, 천도재, 시식, 사물타법, 요잡, 제반의식
2. 모집대상 : 스님 및 불교의식에 뜻이 있는 재가불자
3. 강의일시 : 매주 월-토요일 중 택일 오후2시부터(주1회 4시간 교육)
4.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수강원서 / 사진 2매
5. 교 수 : 대원스님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사단법인 부산 영산재 보존회 범음 범패 부문 조교)
부산 동래구 명장동 산 54-1 (금불사 부설)
051)522-1948, 051)523-1948, 011-597-8077
영남 범음 범패 교육대학

진각스님 철학교실 수강생 모집

어려울때는 철학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문을 모르셔도 괜찮고 기초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쉽게 속성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과목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2. 교육과정 : 기초부터 5개월
3. 모집요강 : 스님, 일반 男 · 女
4. 교육기간 : 주4회, 1일 1시간씩
卍大韓佛敎 부산 송광정사 부설
진각스님 명리 철학 교육대학
부산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안쪽 50m에 있습니다.
전화 051-867-8438 / 팩스 867-7438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실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人蔘 먹고 힘써 볼까?

인삼 알고 먹으면 효과 백배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는 '인삼'. 다 죽어가던 사람이 인삼 한 뿌리를 달여먹고 씻은 듯이 나았다는 전래동화 속의 인삼. 그렇다면 그 효능은 어떨까. 인삼의 어떤 성분이 사람의 몸에 좋은 걸까. 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근 열린 금산 · 풍기 · 홍천의 인삼축제를 통해 인삼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봤다.



■ 홍삼

뇌신경 보호하는 사포닌 함유
체지방 감소, 인체 면역력 향상

6년근 고려홍삼의 주성분은 사포닌이며 종류는 모두 32종으로 미국삼 14종, 중국삼 13종에 비해 월등히 많다. 또 저년근 보다 고년근인 6년근에서 가공하지 않은 수삼(水蔘)이나 그대로 건조시킨 백삼(白蔘)보다 증기에 쪄서 말린 홍삼(紅蔘)이 더 많은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 사포닌은 DNA · RNA를 촉진시키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염증과 피로에 효능이 있다. 당뇨병 환자들이 홍삼을 복용하면 체중이 느는 것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혈압도 내려간다. 또 홍삼은 암세포가 자라는 것도 억제한다.

서성옥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위암과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홍삼 투여군과 비투여군으로 구분해 면역기능을 조사한 결과 홍삼 투여군이 비투여군에 비해 면역기능의 지표가 되는 종임파구수와 T-세포 및 자연살해세포 등이 훨씬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삼은 또 자궁경부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와 산부인과 개복수술 환자들의 조혈기능을 돕고 이들의 회복을 촉진시킨다. 특히 사포닌 추출성분은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경감시키고 기억력을 좋게 한다.

김철원 신농씨한의원장은 "예로부터 홍삼은 한의학에서 무독하고 장기복용이 가능한 상약(上藥: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가 없는 약)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홍삼은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체지방 감소 효과와 인체 면역력을 증가 시켜 독감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웰빙 한방건강식품'이다"고 말한다.

■ 인삼

보습효과 뛰어나 피부에 좋아
갱년기 여성 호르몬 생성 도와

중국에서는 인삼이 가진 7가지 뛰어난 효능을 두고 인삼칠효설(人蔘七效說)이라 하였다. 칠효설의 내용은 허약체질 개선 및 체력증진, 조혈 및 혈액부전 개선, 심장기능 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 항당뇨 및 비장기능 강화, 호흡기 강화, 위장기능 개선, 제독 및 저항력 증진 등이다. 이중 피부에 관한 효능을 탁독합창(托毒合瘡)이라하여 체내의 독을 제거하여 피부를 곱게 만들고 피부병에 뛰어나 종기를 삭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조선 최고의 명기 황진이가 피부를 가꾸던 비법도 바로 인삼잎차에 있었다고 한다. 인삼잎차는 기미, 잡티 등을 예방하고 주름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인삼에 들어있는 파나긴산은 뛰어난 보습제로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흡수 ·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가정에서도 인삼 잎을 이용해 목욕을 할 수 있다. 말린 인삼잎 30g 정도를 거즈에 싸서 욕조에 20분 정도 불린 후 입욕하면 혈액순환과 수족냉증이 있는 여성에게 특효다.

한방에서는 탈모가 음허증(陰虛症:음기가 허한 증상)에 속하므로 음허를 보강해 주는 생강즙과 인삼가루를 1/2씩 배합해 머리에 바르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인삼은 인체의 특정부위가 아닌 신체전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신체조건을 정상화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최근에는 인삼이 여성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 여성의 갱년기 증세 개선에도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한국인삼연구소는 인삼의 유효성분인 사포닌의 구조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해 적혈구 내의 APT함량을 증가시켜 난소 기능을 부활시킴으로써 여성호르몬의 생성을 돕는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사상의학적 분류에 따르면 소음, 소양, 태양, 태음체질 중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소음인 체질에 인삼이 가장 잘 받는다고 한다. 복용하는 사람의 체질과 신체조건에 따라 복약 후 치유돼 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는 명현반응과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복용량을 줄이거나 잠시 쉬었다 먹으면 곧 회복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도움말=서성옥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김철원 신농씨한의원장

이렇게 드세요

8시간 이상 달인후 복용
기름진 음식, 좌욕 등 금물

복용법은 생으로 씹어 먹거나 8시간 이상 달인 물을 먹는 것이 제일 좋은데, 복용 전 한끼 정도는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되도록 간단한 식사로 소화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인의 경우 6년근 정도는 1회 절반,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하고, 그 밑으로는 회당 1개를 다 먹어도 무방하다. 천천히 씹어 먹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꿀 등에 찍어 먹어도 괜찮다. 이밖에 수삼을 믹서에 갈아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도 있다. 금기사항으로는 복용 후 돼지고기, 땅콩, 수박 등 차갑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한다. 또한 인삼을 먹고 좌욕이나 찜질방에서 땀을 급히 내는 일도 삼가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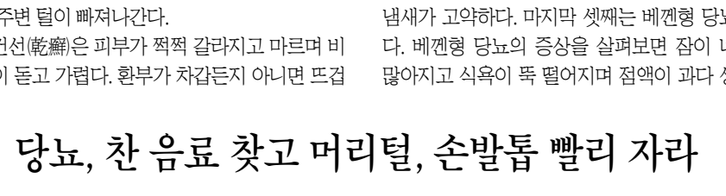
얼마나 아세요?

▲ **산삼**-산에 자연적으로 나는 인삼으로 옛부터 신비의 영약으로 알려져 왔다. 동의보감에는 일명 '신초' 또는 '심'이라 칭하고 있다.

▲ **장뇌삼**-장뇌 또는 장뇌산삼(長腦山蔘), 장로(長蘆), 산양산삼이라고도 한다. 산삼의 종자를 채취하여 깊은 산 속에 씨를 뿌려 야생상태로 재배한 것이다.

▲ **인삼**-산삼을 인공재배 한 것으로 보통 밭에서 캐낸 인삼 그 자체를 말하는 수삼과 수삼을 세척하여 표피를 벗겨 건조시킨 백삼을 일컫는다.

▲ **홍삼**-수삼을 껍질째 찌고 건조시켜 수분함량 14% 이하가 되도록 가공한 것으로 농다갈색의 색상을 띠며 매우 단단한 원형을 유지시킨 인삼이다. 홍삼 원형은 품질에 따라 천삼 지삼 양삼 절삼 미삼 등 5가지로 나뉜다.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35)

18가지 악성질환 창궐 예언

당뇨, 찬 음료 찾고 머리털, 손발톱 빨리 자라
만성시 혈관 손상시키고 시력장애 등 유발

티베트의학에는 피부질환으로 백반증 습진 사마귀 옴 건선 여드름 주근깨 반점 그리고 갈색반이렇게 아홉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백반증(白斑症)은 그 원인에 따라 다시 세 갈래로 나눈다. 룽(氣)병으로 오는 백반증(白斑症)은 환부가 약간 거무스름하고 건조하게 되고, 티빠(膽:담)병에서 온 것은 환부의 주변 털이 빠지게 되며 화끈거린다. 베껜(점액담)병으로 생긴 백반증은 환부가 딱딱하게 굳고 가렵다.

다음으로 습진은 티베트에서 랑슈라고 부르는데 '소의 목'이란 뜻이다. 마치 피부가 고삐에 닿아 벗겨진 소의 목덜미처럼 비늘이 일고 염증이 생기며 진물이 흐르기 때문이다. 피부가 두꺼워지며 물집도 생긴다.

다음, 사마귀는 백사마귀와 흑사마귀 두 종류가 있다. 옴(疥癬:개선)은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환부가 푸르스름해지며 지독히도 가렵고 환부의 주변 털이 빠져나간다.

건선(乾癬)은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마르며 비늘이 돋고 가렵다. 환부가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다. 여드름은 끝에 하얀 고름이 찬 뾰루지를 말한다.

이어 주근깨는 피부에 난 수많은 갈색 또는 검은색 작은 점들을 말하며, 반점은 환부가 희끄무레 다른 부분과 다른 피부질환이다. 마지막으로 갈색반은 환부가 갈색으로 다른 부위와 구별되는 반점들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총 9가지의 피부병은 그 유형에 따라 치료방법도 제각기 다르다.

당뇨병은 티베트의학에서 친니 또는 빈뇨(頻尿)라 부른다. 당뇨는 소금 설탕 그리고 차고 소화가 잘 안되는 날음식을 많이 섭취하여 생긴 병이다. 차고 습한 기후에 활동하거나 습기 찬 곳에 오래 머물러도 걸릴 수 있다. 그러한 식습관과 무모한 처신은 모두 베껜 장애을 키워 신장과 방광을 손상시킨다.

당뇨의 일반적 증상은 비실비실 졸음이 밀려오고 온 피부가 다 끈적거리며 몸 냄새가 역하고 입과 입천장이 바싹바싹 말라 늘 찬 음료만 찾으며 손발바닥이 화끈거리게 된다. 또 머리털과 손발톱이 빨리 자란다. 오줌은 탁하고 진하며 밖에다 볼일을 보면 당도가 높아 금세 파리 떼가 몰려든다. 당은 장에 흡수되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도 변하고 조직으로도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가 바로 당뇨인 것이다. 티베트의학에 당뇨병은 세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룽형 당뇨인데, 그 증상으로는 불안정성 심계항진 걸신들린 듯한 심한 허기 권태 불면증 숨가쁨증 그리고 가래가 심하게 차는 증세들이다. 오줌은 미끄럽고 끈적이며 마치 벌꿀과 같다. 이 룽형 당뇨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제 I 형 당뇨병 '인슐린-의존성당뇨병'과 매우 흡사하다.

둘째는 티빠형 당뇨이다. 티빠형 당뇨는 성기와 방광에 감염증 다갈증 체온상승 설사 그리고 독감을 늘 달고 사는 증세들이 따른다.

오줌은 검푸르스름하고 누르스름한 적색이며 냄새가 고약하다. 마지막 셋째는 베껜형 당뇨이다. 베껜형 당뇨의 증상을 살펴보면 잠이 너무 많아지고 식욕이 뚝 떨어지며 점액이 과다 생성되고 구토를 하며 체중이 불게 된다. 오줌은 사탕수수즙 쌀미음 또는 정액과 비슷하고 물처럼 맑다. 이 베껜형 당뇨병은 제II형 당뇨병 '비인슐린-의존성당뇨병'과 아주 비슷하다.

이런 당뇨병들을 그대로 방치해 만성화되면 농양으로 발전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류 독소를 증가시켜 혼수에 빠뜨리거나 시력장애와 신장병으로 내몰 수 있다. 당뇨병 역시 치료에 앞서 그릇된 식습관과 생활습성을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이다. 현대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의 생활습관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 여러 티베트의약 전통약제로 만든 환제들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복용하도록 처방한다.

티베트 고전의서에는 지구의 천연자원이 거의 고갈되고 환경과 5원소가 크게 파멸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일찍이 예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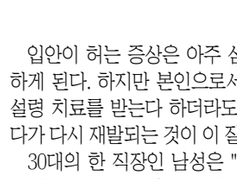
이 시대에는 18가지의 새로운 악성질환이 창궐하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고 하였다.

■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PR

당뇨, 한방으로 잡는다

- 합병증 예방 치료에 효과적 -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호전



혈당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면서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초기 당뇨병은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로 인한 각종 합병증에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래한의원(원장 최선미 (02)512-2075)은 당뇨에 따른 각종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 제당탕과 제당환(除糖丸)을 환자들에게 투여한 결과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미 원장은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에게서 혈당 정상화와 함께 피곤감, 시력저하, 혈압상승, 성욕감퇴, 손발 저림 등의 합병증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며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환자들에게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호전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가운데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83명)가 1개월 이내에 혈당이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유지하고, 손발저림, 혈액순환장애, 피곤감, 시력저하 등의 합병증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치료효과를 보였다. 특히 이중에서 발병한지 3년미만의 초기 환자 20명은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세가 사라지는 등 더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

최원장은 "당뇨 환자 대부분이 해당근, 백강잠, 영지 등의 20여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약인 제당환을 복용한지 3일뒤부터 혈당이 잡히기 시작, 늦어도 15일 이내에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찾아 일상 생활에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호전됐다"며 "특히 초기, 중기 환자들은 일주일만에 정상 혈당을 되찾는 등 증상의 회복속도가 무척 빨랐다"고 설명했다.

최원장은 "합병증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 10년 이상된 당뇨환자 역시 한달 이내에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 증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에서는 인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분 성분인 진액을 보충해주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하며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당뇨를 치료한다.

최원장은 "한방 당뇨치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별다른 부작용 없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 증세를 없애주고, 궁극적으로는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인체 스스로 인슐린 분비를 하도록 도와 준다는 점"이라며 "발견 즉시 또는 3년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www.storydang.com

입안이 자주 허는 증상, 청열탕과 침으로 다스린다

- 합병증 예방 치료에 효과적 -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호전



입안이 허는 증상은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병원에 가기를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무척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설령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을 당시에만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재발되는 것이 이 질환의 특징이기도 하다.

30대의 한 직장인 남성은 "늘 입안이 헐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특히 야근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심해진다"며 "입 안에 작고 둥근 상처가 생기며 그 자리가 둥글게 곪는 증세를 자주 겪어왔다"고 호소한다.

이 증세는 조금만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잇몸과 뺨 안쪽 등에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마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을 주어 이만 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구내염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한방 치료법이 나왔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재발성인 구내염이나 설염 등의 질환을 체질과 증상에 따라 한방으로 치료해 수일이내의 빠른 치유와 만족할만한 재발방지효과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진선미한의원(02-2273-8694)의 신기돈 원장은 "스트레스 및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반복성 구내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 한약으로 만든 청열탕을 복용케 한 결과 증상의 빠른 회복과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한방에서는 구내염이 심장에 열이 있거나 방광의 열이 소장을 뜨겁게 달구어 그 열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바, 스트레스 및 기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이러한 염증을 없애주고 오장의 뭉쳐있는 기운을 고르게 하며 편안하게 만들어 재발을 방지하는 작용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청열탕에 주로 쓰인 약재는 생지황, 택사, 적복령, 신이, 금은화, 홍화, 황연 등 20여 가지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열탕은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가감해 사용하는데, 헤르페스성 구내염 및 아프타성 구내염 등에 있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원장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괴롭혀오고 있는 이 구내염은 뜨거운 음식이나 구강위생불량, 질병이나 과로로 인한 체력저하, 면역결핍, 영양불균형 또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과량복용으로 인한 것이 많다"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뭉쳐진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는 한약재로 만들어 구내염의 신속한 치료와 재발을 막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문사 전경

"석가모니 진신지골사리 드디어 한국에 온다!"
중국 법문사 지하궁 유물 100여점 들여와.
전국 고승대덕 스님의 친견법회 함께 이뤄져.

지난 1987년 중국 산시성 시안 법문사에서 발굴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석가모니 진신지골사리가 드디어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축이 된 불지사리 한국이운 봉행위원회는 '당나라 황실사찰 법문사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및 지하궁 유물 한국 특별전을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여일간 서울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과 부산 컨벤션 센터 제 1전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역대 황제들이 30년의 주기로 친견법회를 봉행했던 이 부처님 손가락 진신사리는 부처님이 기원 전 485년 열반의 세계에 입적한 후 7일간의 다비식에서도 남아 있는 손가락뼈로서 세계 유일의 현존 지골사리로 약 200년 후 아소카왕 시절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불법을 전하고자 중국에 들어올 때 전해진 성보라고 법문사 지하궁 출토 비석 기록과 중국의 역사 기록들은 전하고 있다.

중국 법문사의 불지사리와 국보급 유물 100여점(불교 및 당나라 황실 최고의 유물)이 한번에 이운 되는 불교계의 오랜 숙원 행사로서, 특히 2002년 대만과 2004년 홍콩 등지에서 수백만 인파가 몰려 친견을 하였던 불지사리는 중화권을 벗어나는 실질적인 최초의 외국 나들이이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며, 중국정부와 중국불교협회측은 한국불교와는 1700여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속에 동반자로 여기고 한국의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 이운이 성사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중인 봉행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불지사리 친견과 함께 불교문화 체험을 통한 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찰운영 및 포교전략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불지사리 친견을 통해 한국의 불교문화 보존과 새로운 불교문화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비로운 부처님, 우리 부처님...

2005년 11월!

세상은 변하였으되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고
세월은 흘렀으되 부처님의 자비는 여전히 세월을 머금는다!
중국 법문사 현지를 방문해도 절대 친견이 불가능한 석가모니
부처님 손가락 사리의 한국 이운!
중국황제도 쉽게 친견이 용인되지 않았던 신비의 佛指舍利!
그 至高至上의 聖體가 여러분 곁으로 다가 오십니다.

■ 서울 : 불기2549(2005). 11.11~12.03
■ 부산 : 불기2549(2005). 12. 8~12.20

"석가모니부처님의 손가락사리"

천년의 세월을 거쳐 열린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

1987년 4월 초파일. 1113년 동안 깊이 숨겨졌던 법문사 지하궁의 문이 굉음 속에서 세상에 빛을 발하였습니다.

법문사 지하궁(一道, 五門, 四室)안의 불지사리

진신보탑에 보존되어 있던 사리탑, 탑문, 사리자, 판본 경전, 필사본 경전, 106개의 존상과 전실, 중실, 후실, 밀감에 불지사리가 각각 1과씩 4과가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사불 금태양부만다라(四方四佛 金胎兩部曼荼羅)

법문사 지하궁은 일도사문에 佛指舍利 네점을 봉안하였습니다.
하나의 길이 전체의 단을 통과하는 것은 금강계와 태장계 양부의 대일여래가 중정의 길을 가고 있음을, 네곳에 네점의 사리를 둔 것은 사방사물로써 양부의 만다라를 만든 것입니다.

中國의 皇帝라 할지라도 용이하지 않았던 佛指舍利 親見

2005년 대한민국은 2,000만 불자와 더불어 온 국민이 부처님의 빛을 따라 광명 해탈의 정토가 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지골사리 봉영단 동참

중국 법문사 현지를 방문해도 절대 친견이 불가능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지골사리의 한국이운 봉영단에 동참하여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덕을 짓는 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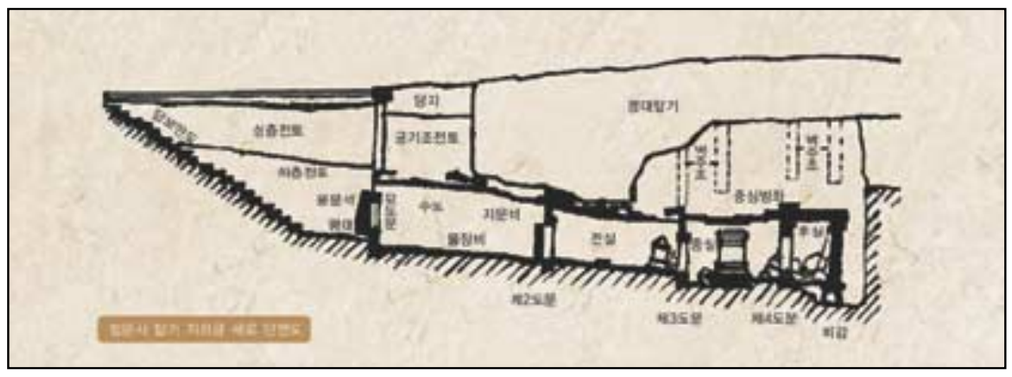
1진 봉영단 (80명) 2005년 11월 07일 출발, 옛 장안(서안)의 불적지 순례 및 문화탐방, 서안 법문사 한국이운 대법회 공식 참석, 전세 항공편 기내 특별 친견법회 및 기도. 2005년 11월 11일 귀국 [불지사리 봉안 및 입재식 참석. 동참금 125만원/인]
2진 봉영단 (20명) 2005년 11월 09일 출발, 서안 법문사 한국이운 대법회 공식 참석, 전세항공편 기내 특별 친견법회 및 기도. 2005년 11월 11일 귀국 [불지사리 봉안 및 입재식 참석. 동참금 95만원/인]
상담 및 문의 접수 (주) 대승항공여행사 02)730-0202 / 051)245-0108 / 053)572-0108 / 042) 583-0108 / 062) 361-0108

법문사 지하궁 유물

중국 중원땅에 높이 솟은 천년 皇家寺院, 법문사

법문사는 후한(後漢) 시대인 147~189년의 환제(桓帝), 영제(靈帝) 시대에 창건되어 이미 18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규모가 24원에 이르며 상주 승려 5,000명이 넘었던 당나라 황실의 사찰

1987년 탑 기지를 정리하면서 발견된 지하궁은 황제의 능묘를 모방한 석조 건축물이다.
이 지하궁의 입구는 당 의종 함통 14년(873) 봉폐된 입구로서 탑의 정남쪽에 있으며 지하궁은 일도(一道), 오문(五門), 사실(四室)로 구성되어 지하계단, 평대, 지하복도, 전실, 중실, 후실, 밀감 7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밀감에는 불지사리가 각각 1과씩 봉안되어 있다.




• 류금대좌보살 • 우금마갈문 죄유 삼족가은염대 • 홍안문은향남 • 감조석수정곽자 • 봉진신보살 • 석장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유일의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에 즈음하여
2천만 불교도와 국민께 드리는말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예하님, 원로회의 의장 스님, 원로의원 스님, 각 종단 종정 예하 및 원로 대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과 비구, 비구니 스님, 각 신행단체장과 사부대중, 그리고 정계와 문화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및 5천만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저희 '중국 법문사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대한민국 봉행위원회'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부처님 진신지골사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천만 불교도는 물론이요, 5천만 겨레 모두에게 커다란 홍복의 기회요, 무한공덕을 짓는 기회이며, 부처님의 가피지묘력으로 국운융창과 세계평화 기여의 더 없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은 56억 7천만년이 지난 뒤에야 사바세계에 그 모습을 나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 역시 백천만겁난조우로 비유될 만큼 어렵고 어려운 인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는 일이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지골사리를 친견하는 의미는 이런 맥락에서 놀랍고 신성하며 장엄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세상에 단 하나 뿐이며,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일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지골사리를 대한민국에서 친견할 수 있는 법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불교도뿐만 아니라 거국민적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봉행위원회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 불교도와 5천만 겨레 여러분.

부처님을 친견하는 공덕은 백천만겁의 모든 죄와 업장을 소멸하고 일체의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소원을 성취하고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을 찾아 기도를 봉행합니다. 그러나 적멸보궁을 찾아가더라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특별기도, 친견, 참배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이 법석에서만 친견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백천만겁난조우의 공덕 짓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문사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은 56억 7천만년을 기다려 미륵부처님을 친견하는 공덕에 버금가는 공덕을 불자들과 친견 국민들께 흠뻑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번 모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 지골사리와 함께 중국의 국보급 문화유물 100여 점이 전시돼 중국문화의 진수를 한국 땅에서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대한민국 봉행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현 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운 산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운 덕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회 정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 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장 주
(사)민족화합 운동연합 상임공동의장 겸 본위원회 후원회장 이재환 7배 돈수합장

※ 자원 봉사자 모집 : 부처님 진신지골 사리 친견 봉행위원회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덕을 짓는 기회에 참여하십시요.
문의처 : [봉행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2 종로우정에쉐르빌딩 3층 TEL.02)730-7273 FAX.02)730-7275 http://www.buljisari.com